

김운용 회장 신년 인터뷰

화합과 단결로 종주국 올림픽종목 영구채택

이제 우리는 20세기의 마지막해인 1999년을 맞이했다. 다음 해이자 21세기의 첫해인 2000년에는 시드니 올림픽에서 태권도가 첫선을 보인다.

태권도가 한국문화의 상징으로 승화되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김운용 회장은 그동안

국제 스포츠계 거물로 한국스포츠의 위상을 한껏 드높였다.

새해를 맞아 새롭게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김운용 회장으로부터 태권도의 올림픽종목 영구채택 등 태권도계의 현안에 대한 포부를 들어보았다.

❑ 회장에 선출되신 소감은 ?

전국을 대표하는 태권도 대의원들의 뜻을 받들어 앞으로 우리 태권도인이 화합과 단결로 종주국의 위상을 확립하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태권도 문화를 가꾸어 나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1세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태권도인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한다면 새로운 세기의 변화와 도전을 능히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앞으로 임기 2년을 맡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에 꼭 이루고 싶으신 일은?

2000년 9월에 열리는 시드니 올림픽을 차질없이 준비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또 태권도가 온 지구 가족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되도록 힘써야겠습니다. 그래야만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으로 영구히 채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태권도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태권도의 발전방안을 수립할 것이며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의 모든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모든 태권도인이 합심 단결하여 위기



▲김운용 회장

를 극복하여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위상 확립해야 위해 노력

❑ 현재 IMF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떻게 협회를 꾸려가실 생각이신지요?

수입원이 감소했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나은 편이라고 봅니다.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경제원칙에 따라 태권도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꼭 필요한 사업은 더욱 강화하고 비효율적인 요소는 과감히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올해 서울에서 개최되는 IOC 총회에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종목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권도의 정식종목 채택 가능성과 앞으로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으로 영구히 뿌리내리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태권도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경기가 치러지기 때문에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경기종목으로의 최종 결정은 시드니 올림픽의 결과를 보면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으로 영구히 채택되기 위해서는 시드니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서울 올림픽 10주년을 기념해 방한했던 사마란치 IOC 위원장은 태권도가 시드니 올림픽에서 세계인들의 관심과 함께 성공적으로 치러진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정식종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태권도계는 올림픽 영구종목화를 위해 세계 각국 태권도협회의 조직 증강에 힘쓰는 한편,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경기규칙의 보완에 힘쓰고 현대화된 장비개발을 위해 연구해야 합니다. 또한 관중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경기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영구종목으로의 채택은 태권도인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태권도인들의 염원인 태권도전당 건립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태권도 중추국으로서 그에 걸맞는 태권도전당 건립은 태권도인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태권도 전당을 건립하자고 누구나 말하기는 쉽지만 행동으로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말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준비해야 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며 서두른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국민의 지지와 정부의 지원을 얻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계의 태권도인들에게 태권도 메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칭에서부터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내놓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 태권도 전당 건립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텐데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태권도전당 건립추진위원회가 97년 출범되었으나 98년 IMF로 인해 일단 전임 집행부에서 유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태권도인들이 중심이 되어 즉, 일선 지도자에서부터 유단품자를 중심으로 성금 모금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면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주춧돌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태권도전당 건립은 단순히 태권도인의 재산이 아니라 국가의 민족적 문화유산을 창조한다는 공감대가 우선 폭넓게 형성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 아시안게임과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전통문화로 선정되는 등 태권도는 국기화와 함께 세계스포츠로 자리매김했다고 봅니다.

21세기 태권도를 위한 중주국협회로서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단자와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 중주국협회로서 인류가 좋아하고 즐기는 태권도를 계승, 발전시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뜻에서 대한태권도협회가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있는데 경기 스포츠 측면과 태권도의 교육적, 정신적 가치를 표현하는 무도적 측면에서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과 세계인이 사랑하는 새로운 태권도 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현재의 태권도 경기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누가 이기고 지는지에 대해 구별하기 힘들고 재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태권도가 알기 쉽고 재미있는 인기 스포츠로 각광받기 위해서는 경기규칙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권도 수련의 목표는 이상적 인간성 창출 청소년들을 미래의 일꾼으로 키우는 교육에 힘써야

현대의 스포츠는 방송매체를 통해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직접 뛰는 스포츠 뿐만이 아니라 보는 스포츠로 즐기는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올림픽만 해도 전세계 지구촌 곳곳에서 방송을 통해 지켜봅니다.

지구촌 방방곡곡까지 올림픽의 열기가 확산될 수 있는 것은 안방에서도 경기를 지켜볼 수 있는 텔레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태권도는 아직 보는 스포츠로의 재미를 만끽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포츠도 재미가 있어야 더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태권도인들이 서로 지혜를 모아 태권도의 기본 정신을 살리면서 보는 재미를 증폭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끊임없이 룰을 연구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막대한 방영권료를 지불함으로써 IOC와 조직위원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TV 방송사의 지지를 얻어 올림픽 종목으로서 영구히 채택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최근 국가경제의 침체로 인하여 일선 도장도 심각한 경영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선도장을 활성화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선 도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태권도의 교육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어린이 전용 태권도장이 되다시피한 도장을 일반 태권도인의 저변 확대를 꾀할 수 있도록 성인 수련 프로그램 개발을 서둘러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호신술을 익히기 위해, 체중을 줄이기 위해, 자신감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동기로 태권도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능력을 도장이 갖추어야 합니다.

❑ 일선에서 태권도를 지도하는 사범이나 관장들은 회장님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합니다. 어떻게 태권도인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계신지요?

일정이 바쁘다보니 마음같지 않게 쉽지 않습니다. 대신 국기원에서 실시하는 지도자 교육이나 각종 강연회에 참석해 국내외 태권도인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자주 지도자들을 만나 태권도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회 닿는 대로 월간 태권도를 통해 본인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 문화관광부에서는 경기단체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인화단체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법인화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가 경기단체를 법인화하는 것은 정부의 지원 없이 홀로서기를 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법인화 지원금을 타기 위해 법인화를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자체 수익사업 개발 등 사전 준비가 충분히 선행된 뒤에 법인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회장님께서 세계연맹 총재로서 지난 25년간 태권도의 세계화를 주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해외에서나 국내에서 회장님의 뒤를 이어 세계연맹을 이끌 후임자를 서둘러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회장님의 의견은?

지도자 육성을 위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권도의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여 완성시킬 수 있는 국제적이고 정치력이 있는 역량있는 분이 지도자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태권도인들의 의견에 늘 귀를 기울이면서 존경을 받는 분이 태권도를 이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질을 갖춘 분이 스스로 노력해서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 최근 각 분야에 걸쳐 남북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회장으로서 남북체육교류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또한, 태권도의 남북교류 가능성과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태권도의 명칭은 같지만 현재 남북한의 태권도 경기규칙은 다릅니다. 북한 체육계 인사들과 만나는 기회를 통하여 북한이 세계에서 공인하는 WTF(세계태권도연맹) 경기규칙을 받아들이어 각종 국제대회에 참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회장님께서 1971년에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으로서 취임하시면서 태권도의 정보교류, 대외홍보 매체이자 태권도의 史的인 자료로서 태권도 잡지의 필요성을 역설하시고 계간지를 창간하였습니다. 97년부터는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회원들의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월간지로 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태권도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지가 타종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잡지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평가합니다.

태권도 최고의 전문지로서 태권도계의 각종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고 일선 지도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태권도지가 태권도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끌어 나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고교시절 태권도를 수련하기 시작한 김운용 회장은 태권도 최고수인 10단이다.

그리고 태권도의 대외 홍보매체로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올림픽 스포츠로서, 생활스포츠로서, 또한 무도 스포츠로서 태권도의 우수성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있고 친근감있게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태권도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은?

태권도 수련의 근본적인 목표는 정신적, 신체적 단련으로 이상적인 인간성을 창출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태권도 지도자들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무도정신을 심어주어 미래의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각별히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IMF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일선 지도자들은 올림픽 종목 태권도의 지도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불굴의 정신으로 어려움을 타개할 것이라고 믿으며 태권도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제 13회 아시안게임 방콕 현지 리포트 ①



페더급 결승에서 강남원이 필리핀의 리자 하이트에 오른발 돌려차기 공격을 하고 있다.

떠어나는 장신의 한족(漢族)과 중동세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는 무엇을

아시아의 교통요충인 태국의 방콕에서는 66년, 70년, 78년, 그리고 98년에 4번째 아시안게임이 열렸다.

하지만 98년의 제 13회 아시안게임은 태권도가 정식종목이 된 뒤 처음으로 태국에 선을

보인 대회였다.

방콕 아시안게임 태권도는 어떤 열매를 맺었으며 각 체급경기는 어떻게 금메달리스트를 가려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방콕 = 고두현)

한국태권도팀은 98년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 동안 태국 방콕의 타마사트대학교 제 7체육관에서 치러진 제 13회 아시안게임 태권도경기에서 12명이 출전, 11명이 금메달, 1명이 은메달을 차지하는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 또한 이번 대회부터 아시안게임 태권도에 여자부가 생긴 것도 반가운 일이다.

29개국 181명(남 118명·여 63명)이 참가한 이번 아시안게임 태권도경기는 태권도가 아시아에도 뿌리를 깊이 내려가고 있으며 그 수준이 눈부시게 향상되고 있는 밝은 면과 국가 간의 메달경쟁의식이

과열한 나머지 판정을 둘러싼 말썽이 적지 않았던 어두운 점이 엇갈려 문자 그대로 명암(明暗=밝음과 어두움)이 교차(交叉=가로, 세로로 엇갈림)한 대회였다.

먼저 태권도가 이번 대회에서 12명 출전에 11명이 금, 1명이 은을 따낸 쾌거는 '86 서울 아시안게임에서 한국복싱이 12개 전체급을 석권한 이래 아시안게임 격투기 사상 한 나라가 차지한 금메달이 가장 많은 두번째 기록이 된다.

특히 일본의 재기로 부진에 빠진 유도과 구소련의



붕괴로 독립한 구소련권 아시아 국가들의 아시안 게임 출전으로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된 복싱 등 다른 격투기들이 금메달 획득에 어려움을 느껴가고 있는 지금 태권도는 한국의 새로운 메달박스로 각광을 받아가고 있다.

이번대회에서 한국 태권도가 좋은 성적을 거둘수 있었던 데에는 몇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가 있다.

남녀 각 8개 체급, 모두 16개 체급 가운데 12개 체급만 출전할 수 있다는 대회규정에 따라 심사숙고 끝에 결정한 12개 체급 선택이 들어맞은 것이 첫번째 이유다. 결과를 놓고 볼때 최정도 감독이 이끄는 코칭스태프가 실시한 강화훈련이 열매를 맺은 데다 선수들의 투지와 기량이 아작은 아시아 정상급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점이 두번째 이유가 되겠다.

대회 2일째인 8일 여자 라이트급의 이선희가 결승에서 타이페이 선수에게 억울하게 당한 판정패로 빚어진 세계태권도연맹(WTF)의 「판정공정성유지」에 관한 강력한 경고가 나머지 이들 동안의 판정을

이 스탠드를 매워 각국 응원단을 고려에 넣어라도 무에타이(타이복싱)의 나라 태국에도 태권도의 인기가 높아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어두운 면으로는 『지난해 홍콩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단 1건에 지나지 않았던 판정불복소청이 9건』에 이른 데다 여자플라이급에서는 판정을 뒤엎고 태국선수가 인도네시아 선수에게 이기는 태권도 사상 최초의 판정반복이 일어나 앞으로 나쁜 선례가 되지않을까 하고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선수단 지원을 위해 이번 대회에 참가한 노우종 대한태권도협회 전무는 『세계선수권대회는 각국 협회끼리의 경쟁이지만 국가 간의 메달레이스가 펼쳐지는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은 자칫 경쟁의식이 과열되기 쉬워 결말하면 판정불복소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여자플라이급에서의 판정반복은 앞으로 국제대회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되지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전광판을 이용한 전자판정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전제 페이퍼에 의한 제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탓도 있지만 그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대회에서 나타난 소청사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기장 점거 등으로 확산되기 쉬운 무분별한 판정불복 소란은 자칫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종목 영구화에 걸림돌이 되기 쉽다는 것을 모든 태권도인들은 알아야된다.

복싱을 올림픽에서 제외하자는 IOC(국제 올림픽 위원회)내부의 의견은 복싱의 선수 안전보호대책 문제와 판정말썽을 그 이유로 들고있다.

판정말썽 등으로 TV방영스케줄에 차질을 가져오는 것을 올림픽 방영권을 지닌 TV방송사들은 무척 싫어한다. 막대한 방영권료를 지불하고 있는 TV방송사는 올림픽종목 채택에 있어 IOC나 조직 위원회에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한다. 한마디로 올림픽종목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판정말썽이 없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앞으로 2년도 채 남지않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라고 있는 장신 유망주들에게 효율적인 기술지도와 막판까지 지치지않는 체력강화, 그리고 불굴의 투지를 키워주어야 할 것이다.

타이페이, 중국 등의 한족, 그리고 상송세를 나타내고 있는 중동세에 스페인, 멕시코 등 태권도 강국의 유망선수들에 대한 정보수집과 전력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세계각국의 겨냥이 되고 있는 한국태권도는 올림픽 첫체패를 위해 새로운 기술과 전략 개발에도 힘써야 될 것으로 여겨진다.

바짝 경계하라! 배우고 얻었나?

공정하게 이끌었던 점도 한국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세심력을 평가받을 수 있었던 이유로 꼽을 수 있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상과 단신의 불리함을 강한 정신력으로 이겨낸 선수들의 불타는 투지에 찬사를 보내야할 것 같다.

애당초 목표로 잡았던 8개체급 제패를 훨씬 초과하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지만 금 3개를 따낸 타이페이, 그리고 중국 등 장신의 한족(漢族)들은 특히 여자부에서 강세를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남녀부에서 성장이 눈부신 요르단, 남자부에서 뻗어나고 있는 이란 등 중동세는 한국의 아성(牙城=큰 조직이나 단체 등이 「중심되는 곳」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을 위협하기에 이르러 아마도 앞으로는 이토록 좋은 성과를 아시안게임에서 거두기란 쉽지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중들은 경기가 열렸던 4일동안 매일 약 1500명

제 13회 아시안게임 방콕 현지 리포트 ②

부상과 단신의 핸터캡을 투지와 기량으로 극복 금 11개와 은 1개 어떻게 거둘 수 있었나

두고두고 생각할수록 억울한 이선희의 은메달

이 기사를 쓰는데 있어서 기술해설은 경기 기록을 정리한 김무천 대한태권도협회 운영부장의 도움을 받았다.

남자부 (MEN)

▲핀급 = 가장 어려웠던 첫 상대 요르단

박희강은 준결승에서 홈페트의 이점을 안은 태국의 퓌톨을 주특기인 원발 앞돌려차기와 뒤엎차기로 확실히 득점, 4-0의 압승으로 결승에 진출함으로써 태국관중들이 자기네 선수에게 보내는 열광적인 성원을 가라앉혀 버렸다.

결승에서도 첫 라운드는 원발 앞돌려차기로 1점을 올리고 베트남의 구엔에게 뒷차기로 실점한 뒤 2라운드 0-0으로 팽팽한 접전을 벌였으나 3라운드에서 오른발 앞돌려차기를 성공시켜 결승점을 올리고 2-1로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그러나 박희강이 가장 어려웠던 고비는 첫번째 경기이자 16강전에서 맞부딪혔던 요르단의 알하메드 모하마드와의 경기였다. 핀급인데도 175cm나 되는 장신인 알하메드는 168cm 밖에 안되는 박희강에게 다채로운 발기술로 과감히 공격을 펼쳤으나 1-2로 패배하자 바로 이번 대회 첫번째 판정불복소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알하메드의 신장을 가르쳐준 요르단 선수에게 고맙다는 뜻으로 전해준 '88 서울 올림픽의 호돌이 배지를 일단 받은 뒤 임원과 의논 끝에 도로 되돌려주었을 정도로 요르단팀은 이 판정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플라이급 = 베트남이 올린 첫 금메달

이 체급에 한국이 출전하지 않았던 것은 베트남에 게 큰 행운이었다. 그동안 국가적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여러 차례 한국에 전지훈련했던 베트남 태권도의 노력이 금메달로 열매를 맺었다.

베트남의 호 나트통은 첫 경기이자 16강전에서 카타르의 라시디를 4-0으로 가볍게 일축했으나 8강전에서는 요르단의 아스말과 접전 끝에 1-0으로 겨우 이겼고 준결승에서는 필리핀의 아브라티크와 서로 득점없이 각각 감점만 1점씩 기록하는 팽팽한 대결 끝에 우세승으로 어렵사리 결승진출을 이룩했다.

그러나 호에게 다행스러웠던 것은 결승상대인 인도네시아의 라하다니의 기량이 그다지 높지않아 5-2의 낙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고 베트남 선수단은 온통 잔치분위기에 휩싸였다.

▲밴텀급 = 시드니올림픽의 유망주 이란

밴텀급에는 한국이 바짝 경계해야될 골치아픈 이란선수가 나타났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기는 아직 이르지만 아무튼 우승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짙은 선수』라고 세계태권도



연맹 이금홍 총장이 허를 내두르고 대한태권도협회 김무천 부장도 같은 견해를 나타낸 것이 이 체급에서 우수한 이란의 비박 메디다.

첫 경기인 16강전을 타지키스탄 코시아네크의 부상 기권으로 돌파한 비박은 8강전에서 강호인 타이페이의 후양과 5-3의 그란대로 접전을 벌였을 뿐 준결승에서는 중국의 뤼를 6-2로 격파하고 결승에 올랐다. 비박과 결승에서 대결한 태국의 요다니아마니윙은 도저히 적수가 되지 못했다.

장신인 데다 발을 손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비박은 화려한 발기술로 여러차례 다운까지 빼앗고 8-0 완승으로 금메달을 따냈다.

▲페더급 = 마지막날 걱정 씻어준 강남원

매일 가벼운 체급과 무거운 체급 남녀 2체급씩 모두 4체급을 치른 이번 대회 마지막날인 10일은 페더급과 헤비급이 치러졌다.

여자페더급은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페더급의 강남원 남자헤비급의 김제경, 그리고 여자헤비급의 정명숙이 이번대회를 마무리짓도록 돼있었다. 솔직히 남녀 헤비급은 가장 관심이 되는 체급이었고 대표선수 평가전 때 부상을 입었던 강남원에게 한가닥 불안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다.

그러나 강남원은 예상밖으로 잘 싸웠다. 두번째 경기인 8강전에서 격돌한 요르단의 알에게 5-4 접전을 벌인 것이 가장 힘든 경기였을 뿐 4강전에서는 이란의 모간루우를 5-1로 가볍게 물리쳐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는 필리핀의 게이슬러에게 나래차기와 오른발 앞돌려차기를 소나기처럼 퍼부어 7-1의 완승으로 금메달을 차지하고 병역면제의 특전도 움켜쥐었다.



▲라이트급 결승에서 김병욱(왼쪽)이 대만의 성 천시엔과 격돌을 벌인 끝에 6-0 판정승을 거두었다.

▲라이트급 = 회오리바람 같은 앞돌려차기

189cm 장신 김병욱은 회오리바람 같았다. 몸통을 축삼아 양쪽으로 도는 앞돌려차기는 앞을 가로막는 상대를 차레로 무너뜨리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첫 경기인 8강전에서 네팔의 보하라를 KO로 눕히고 준결승에서는 관중들의 열광적인 성원을 받은 태국의 모이커드가 무에타이 선수처럼 무릎을 구부려 들어올리고 수비를 굳히는 데도 앞돌려차기로 얼굴을 강타함으로써 5-2의 압승을 거두었다.

결승에서도 김병욱은 타이페이의 성을 왼발 앞돌려차기와 오른발 돌려차기를 설새없이 퍼부어 6-1의 압승으로 우승했다.

▲웰터급 = 큰 동작으로 관중 매료시킨 류근무

장신들이 즐비한 웰터급에서도 188cm의 류근무는 신장면에서 끌릴 것이 없었다.

제 13 회 방콕 아시안게임

경기를 앞두고 염려했던 과감성 부족은 쓸데없는 걱정이었음이 밝혀졌을 정도로 그는 대단한 큰 동작으로 관중들을 매료시켰다.

첫 경기인 8강전을 레바논의 아보우의 부상기권으로 통과한 류근무는 준결승에서 요르단의 파랄제를 5-1로 가볍게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 마주친 이란의 아플라카캄세는 과감하게 맞섰으나 침착한 류근무는 부드럽고 다양한 양쪽 얼굴 앞돌려차기로 3회까지 5-3으로 리드한 뒤 상대방 정강이에 부상을 입히고 KO로 경기를 마무리지었다.

▲미들급 = 부상 무릅쓰고 우승한 강동국

강동국은 첫 경기인 8강전에서 타이페이의 장을 2-0으로 물리칠 때 왼쪽팔목에 부상을 입어 코칭스태프들의 마음을 아쉽게 만들었다.

우려했던 대로 강동국은 준결승에서 이란의 아민 토라비와 대결할 때 왼발 움직임이 신통치않아 1, 2라운드에서 득점을 올리지 못하다가 3라운드에야

런에서 오른쪽 허벅지 뒷쪽 근육이 늘어나는 부상을 입고 있었으나 금메달을 딸 때까지는 본인을 물론 코칭스태프도 굳게 부상사실을 감추고 있었다.

말하자면 『김제경 부상』은 한국팀의 1급 비밀(?)이었던 셈이다.

아픔을 억누르기 위해 마취제를 맞고 출전한 김제경은 세계선수권 3연패를 이룩한 거물 챔피언에게 침착하게 상대선수를 요리해나갔다.

첫 경기인 8강전에서 쿠웨이트의 알자랄라를 원발 북부강타로 다운시키면서 3-0으로 가볍게 물리쳤으나 여느때보다 준결승에서는 지난해 홍콩세계선수권대회 준우승자인 이란의 아슬라니 후세인과 맞부딪혔으나 노련한 경기운영을 펼쳐 3-0으로 이겨 코칭스태프로 하여금 안도의 한숨을 쉬게 만들었다.

결승의 상대는 지난해 홍콩세계선수권대회 8강전에서 김제경에게 1-3으로 졌던 요르단의 카말 이브 라힘이었다.

지난해 홍콩세계선수권대회 3위 가운데 한 사람인 칼리드 아도사리는 사우디가 출전하지 않는 바람

김제경 마취제로 통증 감추고 아시안게임 2연패 8강에서 발목 다친 강동국, 불꽃 같은 투혼으로 『금』

얼굴후리기로 1점을 따내고 결승에 오를 수 있었다.

마지막 경기인 결승전에서 몸을 더 이상 아낄 필요가 없는 강동국은 첫 라운드를 탐색전으로 득점 없이 비기고 2라운드에서 빠른 원발 앞돌려차기와 원발 얼굴후리로 2점을 따고 앞돌려차기로 1점을 잃어 2-1로 리드를 잡았다.

3라운드에서는 오른발 뒤차기로 1점을 올렸으나 원발 앞돌려차기로 1점을 빼앗겼으나 결국 3-2로 불타는 투혼의 우승을 차지했다.

▲헤비급 = 왼쪽 발로만 싸워 우승한 김제경

『컨디션은 어때요?』

『컨디션은 그냥 보통입니다.』

『김제경 선수가 컨디션이 보통이라면 아무런 염려 안해도 되겠네요.』

경기를 앞두고 필자와 김제경이 나눈 대화다.

그러나 김제경은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가졌던 혼

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이 체급은 사실상 아시안게임이 세계선수권이냐 다름없을 만큼 한국과 중동에서 세계정상권을 구축하고 있다.

결승에서 김제경은 정말 눈부신 활약을 보였다. 첫 라운드에서 빠른 원발 앞돌려차기로 2점, 오른발 뒤차기와 오른발 앞돌려 받아차기로 각 1점으로 4-2 리드를 잡고 2라운드에서도 오른발 앞돌려받아차기, 오른발 얼굴앞돌려차기, 원발 얼굴앞돌려차기 각 1점을 따서 3점을 보태고 1점을 내주어 7-3으로 크게 앞섰다.

부상을 감추기 위해서인지 오른발을 카말의 얼굴에 걸친 적도 있으나 통증을 느낀듯 휘두르지는 않고 밀어버리고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상 우승을 확보한 김제경은 마지막 라운드에서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모험을 하지않고 안전운행으로 1점만 잃었으나 상대방의 반칙가점 1점이 있어 결국 7-3의 큰 스코어 차로 94년 히로시마대회에 이어 아시안게임 2연패를 이룩했다.



여자부(WOMEN)

▲핀급 = 「태권도 매트」의 여우」인 장정은

2차대전 때 아프리카전선에서 영국군을 괴롭힌 독일기갑군단의 톱별원수를 「사막의 여우」라고 부른다면 장정은 「태권도 매트의 여우」다.

아무리 핀급이라 해도 장정은의 키 150cm는 꽤 작은 편이다.

그 작은 장정은이 비교적 장신인 상대선수들을 부지런히 치고는 빠지면서 금메달을 기어이 따내고 말았다.

첫 경기인 8강전에서 요르단의 탈후니를 1-0으로 힘겹게 이긴 장정은은 준결승에서도 타이페이의 치를 역시 어렵사리 1-0으로 물리쳐 코칭스태프의 간을 대우며 결승진출을 이룩했다.

우승후보로 꼽혔던 타이페이의 치는 실새없이 빠른 발놀림으로 위협했으나 장정은은 이에 말려들지 않고 1라운드에서 정신없이 들락거리면서 이 1점을 끝까지 지키는 데 성공했다.

결승에서도 장정은은 베트남의 구엔으로부터 2라운드에 원발뒷차기로 1점을 따고는 이 1점을 결승점으로 만드는 데 성공함으로써 금메달을 움켜쥐었다.

▲플라이급 = 4강의 실력이 비슷했던 파란의 체급

이 체급은 4강의 실력이 백중(白仲= 기술이나 지식 따위가 서로 엇비슷해서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것)했던 체급이다.

우승자인 타이페이의 탕은 첫 경기인 8강전에서는 일본의 호프 하타케나카 미나코를 7-1로 가볍게 물리쳤으나 준결승전에서는 같은 동족인 중국의 유안과 3-3 타이를 이룬 뒤 우세승으로 어렵사리 결

승진출을 이룩했다.

한편 다른 준결승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왕사가 태국의 신라파잔에게 3-3 우세승을 거두었으나 관중들의 열광적인 성원을 등에 업은 태국측의 강력한



▲핀급의 장정은(오른쪽)이 베트남의 구엔에게 뒷차기를 성공 1-0으로 판정승을 거두었다.

판정불복 소청이 받아들여지는 바람에 결과는 뒤집어져 신라파잔에게 승리가 선언됐다.

결승에서 타이페이의 탕과 태국의 신라파잔은 3-3을 기록했으나 탕에게 우세승이 돌아갔다.

▲밴텀급 = 대진운과 경기운 좋았던 이지는

앞돌려차기와 얼굴후리기 등 단발공격과 찬스를 잡으면 반격이 날카로운 이지는에게 이번 대회에서는 대진운과 경기운도 따랐다.

제 13회 방콕 아시안게임

첫 경기인 8강전에서 이지은은 일본의 고테라 아키코를 12-0의 큰 스코어 차로 누르고 준결승에 올라 네팔의 말라를 6-2로 꺾어 결승진출을 이룩했다. 공교롭게도 '98 월드컵 페더급 우승자인 대만의 홍 치안전은 '98 아시아선수권 페더급 우승자인 베트남의 트란이 8강전에서 격돌, 5-5 타이 끝에 트란이 우세승을 거두고 준결승에 올랐다.

한편 마지막 8강전에서는 '98 아시아선수권 2위인 태국의 수궁돔노엔이 '98 아시아선수권 3위인 중국의 쉐 슈를 7-2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 태국의 트란과 마주쳤다.

결국 수궁돔노엔이 3-1로 트란을 누르고 결승에 올라 이지은과 마주쳤다.

그러나 이지은의 강적 4명은 다른 조에서 서로 치고받아 그 가운데 태국의 수궁돔노엔만이 살아남아 이지은과 금메달을 겨루게 된 것이다.

이지은의 눈부신 공격으로 태극관중 열기에 찬물 정명숙은 세계선수권 3연패 관록이 되려 경기력 해쳐

결승에서 이지은은 눈부신 공격으로 태극관중들의 성원을 침묵시켜 버렸다.

빠른발 앞돌려차기, 얼굴후리기 오른발 앞돌려차기, 왼발 앞돌려차기 등 화려한 발기술을 구사함으로써 수궁돔노엔에게 6-4를 기록했으나 감점 1점으로 최종공식 스코어는 5-4로 우승했다.

이지은의 승리에 승복한 태국 관중들은 아무런 항의도 나타내지 않았다.

▲페더급 = 장신의 타이페이션수 첸이 우승

우승을 차지한 타이페이의 첸은 장신에 기량이 뛰어난 선수로 한국이 출전했다라면 고전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 첸은 첫 경기인 8강전에서 싱가포르의 웅을 6-2로 누르고 준결승에서는 말레이시아의 수우를 7-3으로 격파하고 결승에 나섰다.

결승에서도 네팔의 라지브한다리를 8-1의 큰 스코어 차로 누르고 쉽사리 우승함으로써 타이페이 응원단을 열광시켰다.

▲라이트급 = 정말 억울한 이선희의 은메달

아무리 생각해도 이선희의 은메달은 억울하다. 이선희의 라이트급의 경기 2일째인 8일에 치러졌

다. 첫날이 7일 한국이 4개 체급에서 모두 금메달을 딴 데 대한 견제심리가 작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편파적인 판정으로 이선희는 금을 놓치고 은에 머무르고 말았다.

1차전에서 태국의 사이준타를 2-1, 준결승에서 일본의 오카모토를 5-3으로 각각 꺾은 이선희는 결승에서 타이페이의 슈와 대결했다.

첫 라운드를 1-1로 마친 뒤 2라운드에서 이선희는 왼발 앞돌려차기로 1점을 앞섰다.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이번은 3라운드에서 일어났다. 서로 엇비슷한 공방전으로 끝난 3라운드를 필리핀부심은 2-2로 매겼다. 이 경우 4-3으로 이선희는 우승한다. 일본부심은 0-1로 타이페이션수에게 1점을 주었다. 공격에서 앞섰던 이선희에게 우세승이 주어져야 한다. 마지막 태국부심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0-2 타이페이에게 2점을 주었다.

결국 최종스코어는 3-3에 타이페이의 우세승으로 나오고 말았다. 이 어처구니없는 판정에 한국선수단은 불복하고 이승만 부회장의 진두지휘 아래 소청을 제기했다. 비디오를 돌려보아도 타이페이션수의 득점이 인정될 만한 장면이 나오지 않자 김운용 세계태권도연맹총재도 이상을 보류하도록 지시하지 했으나 중국이 앞장서서 판정변복을 고집하는 것은 좋지않은 선례를 남길 가능성도 있어 결국 판정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불공정한 판정에 대한 세계태권도연맹의 분노는 남은 이틀동안의 경기를 공정하게 판정하도록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는 여론이다.

▲웰터급 = 「투혼의 화신」 조항미의 우승

태권도를 못본 사람들에게 조항미의 경기를 지켜보라고 권하고 싶다. 솔직히 여자부라 해도 웰터급에서 조항미의 168cm는 작은 키다. 그 단신의 조항미가 머리 두개 정도는 차이가 나는 장신선수들을 상대로 자신이 세계선수권 2연패의 위대한 챔피언임을 증명해 보이는 장면은 정말 불만이다.

「야이앗!」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두 주먹을 불끈쥐고 새빨강게 달아오른 얼굴로 기합을 지르는 조항미의 투지



앞에 웬만한 선수들은 주눅이 들게 마련이다.

첫 경기인 준결승에서 조항미가 '98 아시아선수권 2위인 중국의 첸종을 4-3으로 물리치자 중국선수단은 관정불복소청을 내고 경기장을 점거 80분동안이나 경기를 중단시켰으나 참다못한 태국관중들의 아우에 결국 물러나고 말았고 소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승에서도 조항미는 매트를 완전히 지배하면서 이 체급 최강신인 요르단의 쿠티쿠트에게 원발 앞돌려차기를 구사, 3-0으로 이기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미들급 = 침착하게 역전승으로 금 딱 이희영

이희영의 167cm도 미들급치고는 작은 편이다. 발 기술에 치중하고 경기가 운영되는 추세인 태권도에서 단신은 주먹만을 쓰기 때문에 접근전이 가능한 복싱보다 더 큰 핸드캡이 되고 있다.

결국 빠른 움직임에 의한 기습공격 외에 현재로서는 다른 전술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웰터급의 조항미처럼 장신선수가 내뺄는 다리의 사정권 밖에 있다가 틈만 보이면 뛰어들어가 상대방의 의표(意表=상대방이나 남이 전혀 예상하고 있지 않던 것)를 찌르는 다양한 발공격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

이희영은 첫 경기인 준결승에서 개최국인 태국의 메이어를 1-0으로 누르고 결승에 올라 '98 아시아선권 우승자인 중국의 헤 루밍과 대결했다.

첫 라운드에서 1점을 빼앗겼으나 침착함을 잃지 않은 이희영은 2라운드에서도 1점을 또 잃었지만

빠른 원발 앞돌려차기로 1점을 만회 1-2로 리드를 당한 채 3라운드를 맞이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과감한 공격에 나선 이희영은 역시 빠른 원발 앞돌려차기로 1점을 보태 2-2 타이로 끌고 들어가 우세승으로 금메달을 따냈다.

▲헤비급 = 노련한 경기운영으로 우승한 정명숙

페더급과 함께 헤비급은 마지막날인 10일에 치러졌다. 「우승을 해야한다」는 중압감에 마지막날까지 시달린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세계선수권 3연패의 관록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정명숙은 큰 경기를 앞두고는 긴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번 대회에서 정명숙의 컨디션은 좋은 편이 못했다. 우승에 이르기까지 두차례의 경기에서 지난날의 무서운 파괴력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노련한 경기운영으로 불안감없이 금메달을 손에 넣었으니 아무튼 대단한 선수다.

첫 경기인 준결승에서 필리핀의 보니파시보를 2라운드에서 안면강타로 다운을 시키면서 4-0으로 이기고 결승에 올라 98년 아시아선수권 3위인 말레이시아의 리완유엔과 대결했다.

첫 라운드에서 오른발 얼굴내려찍기로 1점을 선취한 정명숙은 2라운드에서도 오른발 앞돌려차기로 다시 1점을 추가, 모두 2점을 앞섰다. 3라운드에서는 우승을 자신했는지 오른발 앞돌려차기로 1점을 다시 보태고 상대에게 1점을 내주는 안전운행으로 경기를 마무리지어 3-1로 금메달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총 16체급 (한국 12체급 출전)

순 위	국 명	메 달 현 황		
		금	은	동
1	한국	11	1	·
2	대만	3	1	1
3	베트남	1	2	3
4	이란	1	1	3
5	태국	·	3	7
6	요르단	·	3	1
7	중국	·	1	4
8	필리핀	·	1	3
9	네팔	·	1	2
9	인도네시아	·	1	2
11	말레이시아	·	1	1
12	일본	·	·	2
12	키르기스스탄	·	·	2
14	쿠웨이트	·	·	1

남자부 태권도 전적

▲핀급

- ① 박희강(한국)
- ② NGUYEN Duy-Khuong(베트남)
- ③ SHRESTHA Kishor(네팔)

PIMTHON Wirat(태국)

☐ 결승

박희강(한국) 2-1 NGUYEN(베트남)

☐ 준결승

박희강(한국) 4-0 PIMTHON(태국)
NGUYEN(베트남) 3-1 SHRESTHA(네팔)

▲플라이급

- ① HO, Nhat-Thong(베트남)
- ② RAHADANI Satriyo(인도네시아)
- ③ AMANKULOV Anuarbek(카자흐스탄)

ABRATIQUE R.(필리핀)

☐ 결승

HO(베트남) 5-2 RHADANI(인도네시아)

☐ 준결승

HO(베트남)(우세승) 0-0 ABRATIQUE(필리핀)
RAHADANI(인도네시아) 1-0 AMANKULOV(카자흐스탄)

▲밴텀급

- ① BIBAK Mehdi(이란)
- ② YODANYAMANEWONG J.(태국)
- ③ LIU Chuang(중국)

ALMER Thamar(쿠웨이트)

☐ 결승

BIBAK(이란) 8-0 YODANYAMANEWONG(태국)

☐ 준결승

BIBAK(이란) 6-2 LIU(중국)
YODANYAMANEWONG(태국) 5-4 ALMER(쿠웨이트)

▲페더급

- ① 강남원(한국)
- ② GEISLER D.(필리핀)
- ③ MOGHANLOO Bijan(이란)

HSU Chi-Hung(타이페이)

☐ 결승

강남원(한국) 7-1 GEISLER(필리핀)

☐ 준결승

강남원(한국) 5-1 MOGHANLOO(이란)
GEISLER(필리핀) 4-3 HSU(타이페이)

▲라이트급

- ① 김병욱(한국)
- ② SUNG Chen-Hsein(타이페이)
- ③ KANAI Hiroshi(일본)

NOYKRD Kriengkrai(태국)

☐ 결승

김병욱(한국) 6-1 SUNG(타이페이)

☐ 준결승

김병욱(한국) 5-2 NOYKRD(태국)
SUNG(태국) 6-1 KANAI(일본)

▲웰터급

- ① 류근무(한국)
- ② AFLAKIKHAMESH M.(이란)
- ③ ALFARAJEH Mohd(요르단)

SAGNIDYKOV Y.(카자흐스탄)

☐ 결승

류근무(한국) 3회 KO AFLAKIKHAMESH(이란)

☐ 준결승

류근무(한국) 5-1 ALFARAJEH(요르단)
AFLAKIKHAMESH(이란) 기권 SAGNIDYKOV(카자흐스탄)

▲미들급

- ① 강동국(한국)
- ② TAHLEH Hussein(요르단)
- ③ AMINTORABI Majid(이란)

SATTAKOM Prawes(태국)

☐ 결승

강동국(한국) 3-2 TAHLEH(요르단)

☐ 준결승

강동국(한국) 1-0 AMINTORABI(이란)
TAHLEH(요르단) 2-0 SATTAKOM(태국)

▲헤비급

- ① 김제경(한국)
- ② KAMAL Ibrahim(요르단)
- ③ ASLANI Hassan(이란)

NGUYEN Van-Hung(베트남)

☐ 결승

김제경(한국) 7-3 KAMAL(요르단)

☐ 준결승

김제경(한국) 3-0 ASLANI(이란)
KAMAL(요르단) 2-1 NGUYEN(베트남)



방콕 현지 리포트 ③

여자부 태권도 전적

▲핀급

- ① 장정은(한국)
- ② NGUYEN Xuan-Mai(베트남)
- ③ CHI Shu-Ju(타이페이)
HUANG LI(중국)

☑ 결승

장정은(한국) 1-0 NGUYEN(베트남)

☑ 준결승

장정은(한국) 1-0 CHI(태국)
NGUYEN(베트남) 1-0 HUANG(중국)

▲플라임급

- ① TANG Hui-Wen(타이페이)
- ② SINLAPAJARN Usa(태국)
- ③ YUAN Guiru(중국)
WANGSA Juana(인도네시아)

☑ 결승

TANG(타이페이) 3-2 SINLAPAJARN(태국)

☑ 준결승

TANG(타이페이)(우세승) 3-3 YUAN(중국)
SINLAPAJARN(태국)(우세승) 3-3 WANGSA(인도네시아)

▲밴텀급

- ① 이지은(한국)
- ② SUKKHONGDUMNOEN N.(태국)
- ③ MALLA Sapana(네팔)
TRAN Hieu-Ngan(베트남)

☑ 결승

이지은(한국) 5-4 SUKKHONGDUMNOEN(태국)

☑ 준결승

이지은(한국) 6-2 MALLA(네팔)
SUKKHONGDUMNOEN(태국) 3-1 TRAN(베트남)

▲페더급

- ① CHEN Yi-An(타이페이)
- ② RAJBHANDARI Sabita(네팔)
- ③ SOO Lai-Yin(말레이시아)
PANSOMBUT P.(태국)

☑ 결승

CHEN(태국) 8-1 RAJBHANDARI(네팔)

☑ 준결승

CHEN(태국) 7-3 SOO(말레이시아)
RAJBHANDARI(네팔) 2-1 PANSOMBUT(태국)

▲라이트급

- ① HSU Chin-Ling(타이페이)
- ② 이선희(한국)
- ③ OKAMOTO Yoriko(일본)
SY Ma-Nelia(필리핀)

☑ 결승

HSU(타이페이)(우세승) 3-3 이선희(한국)

☑ 준결승

HSU(타이페이) 4-0 SY(필리핀)
이선희(한국) 5-3 OKAMOTO(일본)

▲웰터급

- ① 조향미(한국)
- ② KUTKUT Alaa(요르단)
- ③ CHEN Zhong(중국)
KAO Ching-Yi(타이페이)

☑ 결승

조향미(한국) 3-0 KUTKUT(요르단)

☑ 준결승

조향미(한국) 4-3 CHEN(중국)
KUTKUT(요르단) 9-5 KAO(타이페이)

▲미들급

- ① 이희영(한국)
- ② HE Luming(중국)
- ③ MEYER Sivaporn(태국)
KHUC Lieu-Chau(베트남)

☑ 결승

이희영(한국) 2-2 HE(중국)

☑ 준결승

이희영(한국) 1-0 MEYER(태국)
HE(중국) 3-0 KHUC(베트남)

▲헤비급

- ① 정명숙(한국)
- ② LEE Wan-Yuen(말레이시아)
- ③ BONIFACIO M.(필리핀)
HERU Sinta-Berlian(인도네시아)

☑ 결승

정명숙(한국) 3-1 LEE(말레이시아)

☑ 준결승

정명숙(한국) 4-0 BONIFACIO(필리핀)
LEE(말레이시아) 7-3 HERU(인도네시아)

순조로운 출발로 일찌감치

여자부, 대만에 밀리고 스페인·프랑스 도전받아

한국은 지난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멕시코 코리마 만자날로에서 열린 제 5회 세계대학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10, 은메달 1, 동메달 1개를 따내는 저력을 과시하며 지난

96년 4회 대회에 이어 정상을 지키는데 성공했지만 여자부의 경우 대만(금 4, 은 2, 동 1)에 밀리며 금 3, 은 1, 동 1개에 그쳐 충격을 주었다.



▲대회 마지막날 경기에서 미들급에 출전한 김민우(오른쪽)가 프랑스 허비에 선수를 4-2 판정으로 누르고 정상을 차지했다.

대회 첫날부터 금 3으로 기선 제압

세계대학스포츠연맹(FISU) 주최로 멕시코대학 태권도연맹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만, 스페인 등 26개국에서 총 261명의 선수 및 임원들이 참가했다.

한국은 정찬모 단국대 교수를 단장으로 남녀부 감독에 김우규(동아대 감독), 조근중(한양대 교수), 남녀부 코치에 이경호(경희대 코치), 강문섭 코치의 인솔 하에 남녀 각 8체급씩 16명의 남녀대표선수단이 참가했다.

대회 첫날인 11월 24일 경기는 남녀 핀급과 헤비

급 4체급 경기가 펼쳐져 금 3, 은 1개를 따내는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남자 핀급의 민병석(한체대)은 예선에서 일본에 4-1, 대만에 4-2 판정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라 멕시코의 사를로스 아알라를 2회전에 원발 뒷차기와 3회전에 원발 점프 뒷차기로 상대 몸통을 공격하며 2-0으로 판정승을 거두고 정상에 올랐다.

남자 헤비급의 문대성(동아대)은 1차에서 핀란드에 5-0, 2차전서 독일에 6-2 판정승. 준결에서 프랑스에 3-2 판정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라 대만의 루천차에게 1회전에 오른발 받아차기와 나래차기로 3-0 판정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따냈다.

여자 헤비급에 출전한 신경현(경희대)은 준결에서 막상막하의 경기 끝에 스페인에 2-1 판정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라 대만의 최명진에게 가볍게 4-1 판정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국가대표 출신으로 기대를 모았던 여자 핀급의 윤송희(한체대)는 결승에서 대만의 체이첸에게 2-1로 판정패하며 은메달에 머물렀다.

대회 둘째날은 남녀 밴텀급, 페더급 경기가 펼쳐졌다.

한국은 금 3, 동 1개를 따내며 대회 첫날에 이어 모두 금메달 6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로 큰 이번이 없는 한 종합우승이 예상되었다.

남자 밴텀급에 출전한 김항수(청주대)는 1차전에서 오스트리아 선수에 1회전 앞돌려차기로 얼굴을

종합우승 결정

강타하며 KO승을 따내는 위력을 발휘했다. 2차전에서 대만에 4-3으로 판정승을 거두었고 결승에서 멕시코의 주안 알카자르에게 앞발 얼굴돌려차기와 뒷발 얼굴돌려차기로 2-1 판정승을 거두고 승리를 거두었다.

남자 웰터급 장순호(경희대)는 오스트리아 선수에 4-2 판정승, 스페인 선수에 우세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라 네덜란드의 오노 부일을 맞아 1회전에 오른발 받아차기, 2회전에 뒷발 선제 돌려차기, 3회전에 오른발 더블과 뒷발 들어찍기로 4득점을 올리며 4-1로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여자 웰터급의 안근아(한체대)는 미국과 스페인을 차례로 꺾고 결승에 올라 멕시코의 에리카 쿠엔 선수에게 3회전 오른발 뒷발 받아차기를 적중시키며 승리로 이끌었다.

그러나 밴텀급에 출전한 전 국가대표 채혜경(경희대)은 준결에서 프랑스의 카린레마파니즈에게 2-1로 판정패하며 동메달에 머물렀다.

노현구 투혼 발휘하며 승리

대회 3일째 경기는 남녀 페더급, 라이트급 경기가 펼쳐졌다.

남자 페더급의 노현구(한체대)는 브라질, 멕시코, 프랑스를 차례로 꺾고 결승에 올라 대만의 천시위 선수와 막상막하의 치열한 접전 끝에 4-5로 득점에서 밀리는 상황이었으나 끝까지 최선을 다해 경기를 치름으로써 경기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며 점수 지키기에 의존한 상대선수가 감점패를 당함으로써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 라이트급의 이준희(용인대)도 브라질, 독일, 미국선수를 차례로 꺾고 결승에 올라 대만의 린차탄 선수에게 2회전 뒤돌려차기로 선취득점을 올린 뒤 3회전에 원발 빠른발로 득점을 추가하며 2-0으로 정상에 올랐다.

여자 페더급의 강해은(상명대)은 뒷차기, 뒤후리기 등 고난도의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미국과 대만선수를 가볍게 누르고 결승에 진출, 스페인의

베렌 페레난테즈와 치열한 접전을 펼친 끝에 1-1 동점에 우세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러나 여자 라이트급에 출전한 김수현(동아대)은 8강에서 프랑스 선수에게 1-1 동점에 우세패 당하고 탈락했다.

이로써 한국은 3일간의 경기를 통해 금 9개, 은 1, 동 1개를 따냄으로써 마지막 날 경기에 상관없이 종합우승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대회 마지막날은 우승이 확정된 탓인지 4체급 경기 중 남자부 미들급 김민우(동아대)만이 금메달을 획득하는 데 그치고 남자 플라이급 이광수(한체대)와 여자부 플라이급 최유리(한체대), 여자 미들급 하민숙(상명대)이 예선에서 탈락하는 저조한 기량을 보였다.

이로써 남자부의 경우 8체급 중 7체급을 석권하며 중주국의 기량을 떨친 반면 여자부는 대만(금 4, 은



▲대회 3일째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낸 노현구, 강해은, 이준희(왼쪽부터)

2, 동 1)이 한국(금 3, 은 1, 동 1)을 따돌리고 종합우승을 차지함으로써 충격을 주었다. 또한 여자부에서 스페인과 프랑스가 뛰어난 신체조건을 바탕으로 한국을 위협해 앞으로 이들 국가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한국은 남녀 경기에서 모두 금 10, 은 1개, 동 1개를 따내며 종합우승을 거두었고 대만이 금 4, 은 5, 동 3개로 2위, 프랑스가 금 2, 은 1, 동 4개로 3위를 차지했다.

인터뷰 /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전무이사 이승국 교수 (한체대)

멕시코 대통령 개회식에 참석 대만, 체육회 전체 예산의 3분의 1 태권도에 투자

이번 대회에 임원으로 참가한 이승국 한국 대학태권도연맹 전무이사는 한국이 좋은 성적으로 세계 최강을 자랑했지만 대만이 월등한 기량으로 한국을 추격했으며 프랑스, 멕

시코, 스페인 등 유럽선수들이 체격과 체력 면에서 앞서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승국 전무이사로부터 전반적인 대회 평가를 들어보았다.

❑ 이번 대회 결과를 평가한다면?

남자부는 8체급 중 7체급이 금메달을 따내는 최강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여자부는 대만이 한국을 압도했다. 한국이 금 3, 은 1, 동 1개를 따낸 반면 대만은 금 4, 은 2, 동 1개로 7체급에서 입상하는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었다. 신체적인 측면에서 일단 우리선수를 압도했으며 경기의 노련미도 뛰어났다.

❑ 대만의 경기력이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로 드러났다. 대만의 경기력이 날로 향상되고 있는 저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대만은 체육 정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태권도가 세계 수준의 경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 체육회 예산의 3분의 1을 태권도에 투자할 정도로 태권도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대만은 국제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선수들에게 많은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선수들의 정신력은 한국 선수들보다 더 치열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 이번 대회를 통해 돋보인 유망주나 한국팀을 위협해온 나라가 있다면?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선수들이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프랑스의 남자 플라이급 우승자 루도빅 보와 여자 밴텀급 우승자인 카린 젤마노비크는 유연성과 노련미를 갖추었



▲이승국 교수

다. 스페인의 여자 페더급 베렌 페르난데즈는 체격과 체력면에서 뛰어났다. 강해은 선수에게 결승에서 비록 우세패하긴 했지만 돋보이는 선수였다.

❑ 이번 대회를 주최한 멕시코의 태권도에 대한 인기도는? 또한 경기운영면을 평가한다면?

대회 첫날 개회식에 멕시코 대통령이 참석할 정도로 태권도에 대한 멕시코의 관심과 인기는 매우 높았다.

대회 운영면에서는 국제대회를 많이 치러본 경험이 있어 질서정연하게 잘 치렀으며 심판도 무리없는 진행으로 성공적이었다.

제 5회 세계대학선수권대회

순위	남 자 부	여 자 부	총 합 성 적
1	한국 (금 7)	대만 (금 4, 은 2, 동 1)	한국 (금 10, 은 1, 동 1)
2	프랑스 (금 1, 은 1, 동 2)	한국 (금 3, 은 1, 동 1)	대만 (금 4, 은 5, 동 3)
3	대만 (은 3, 동 2)	프랑스 (금 1, 동 2)	프랑스 (금 2, 은 1, 동 4)
4	멕시코 (은 2, 동 2)	스페인 (은 2, 동 3)	멕시코 (은 4, 동 2)
5	네덜란드 (은 1, 동 2)	멕시코 (은 2)	스페인 (은 2, 동 5)
	미국 (은 1, 동 2)	독일 (은 1, 동 1)	네덜란드 (은 1, 동 4)
	스페인 (동 2)	크로아티아 (동 3)	미국 (은 1, 동 4)
	벨기에 (동 1)	네덜란드 (동 2)	독일 (은 1, 동 2)
	크로아티아 (동 1)	미국 (동 2)	크로아티아 (동 4)
	독일 (동 1)	폴란드 (동 1)	벨기에 (동 1)
	쿠바 (동 1)		폴란드 (동 1)
			쿠바 (동 1)

		남 자 부		여 자 부	
체급	등위	이름	국가명	이름	국가명
핀	1	민병석	한국	NI TI LING	대만
	2	CARLOS AYALA	멕시코	윤송희	한국
	3	CHEN YI-JEN	대만	AMELIA NEGRETE	스페인
플라이		JOSE LUIS PRIETO	스페인	FRANCE POUZOLET	프랑스
	1	LUDOVIC VO	프랑스	TSAI YI TING	대만
	2	JASON TORRES	미국	CARMEN MORALES	멕시코
	3	RUBEN PALAFOX	멕시코	GILL ARINGANENG	네덜란드
		DENNIS MOLLET	네덜란드	ESTHER KIM	미국
밴텀	1	김항수	한국	CARINE ZELMANOVITCH	프랑스
	2	JUAN ALCAZAR	멕시코	LAI HSIUN WEN	대만
	3	LIU CHI-TAI	대만	채혜경	한국
		BOUMRAH ACHMED	벨기에	ANTENKA HULISELAN	네덜란드
페더	1	노현구	한국	강해은	한국
	2	CHEN SHIH-KAI	대만	BELEN FERNANDEZ	스페인
	3	MICHAEL ALOISIO	프랑스	MIET FLIPOVIC	크로아티아
		TOMMY MOLLET	네덜란드	HSU SHIH YEN	대만
				CHANG WAN CHEN	대만
라이트	1	이준희	한국	LUISA ARNAZ	스페인
	2	LIN CHIATAN	대만	OGENE MOJINSON	프랑스
	3	WILLIAM PALMIERI	미국	ELIZABETH MOHAMED	미국
		KRUNOSLAV MARKULIN	크로아티아	안근아	한국
웰터	1	장준호	한국	ERIKA CUEN	멕시코
	2	ONNO BUIL	네덜란드	MIRIAM MONTESINOS	스페인
	3	SEUS DEL VALLE	멕시코	LESLIE ELLEN LANZ	독일
		JON GARNICA	스페인	YANG WEN CHEN	대만
				CORDULA SPIEGELHOFF	독일
미들	1	김민우	한국	JUSTYNA TALAN	폴란드
	2	XAVIER BOUTON	프랑스	IVA GAVEZ	쿠바
	3	ESAMOTTI AALTO	독일	신경현	한국
		CARLOS ESPINOZA	쿠바	CHIN MENG JEN	대만
헤비	1	문대성	한국	ANA MARRON	스페인
	2	LU CHUN-CHIO	대만	NATASA VEZMAR	크로아티아
	3	LARRY LUCAS	미국		
		MOCTAR DOUMBIA	프랑스		

경기
분석

1998. 11. 16 ~ 23
〈미국 텍사스〉

제 10회 세계군인선수권대회

최강을 자랑한 한국군인들

10회 연속 종합우승 금자탑

지난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미국 텍사스 포트 후드 체육관에서 펼쳐진 제 10회 세계군인선수권대회 태권도경기에서 우리나라 군

대표팀은 금메달 5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함으로써 종합우승을 차지, 10년 연속 종합우승의 쾌거를 이룩했다.



▲한국의 군인정신을 세계에 떨친 자랑스런 대표팀의 모습.

**김홍일 기세 몰아 압도적으로 금메달 차지
고대휴 군인정신과 패기로 최우수선수상**

국제군인체육회(CISM) 주최로 미 국방부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네덜란드, 독일 등 총 22개국에서 320여명의 선수 및 임원들이 참가했다.

한국은 상무의 황영갑 감독(48)과 정주석 코치(29세)의 인솔하에 상무소속 선수 4명, 해병대소속 선수 3명, 공군소속 선수 1명 등 모두 8명의 군 대표가 참가했다.

경기결과 편급의 김홍일, 밴텀급의 고대휴, 페더급의 조진호(이상 상무), 플라이급의 고동완(공군), 미들급의 황동환(해병)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지난 9월 제 7회 국방부장관기대회에서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 3연패를 자랑하는 진승태(한국가스공사)를 꺾는 이변을 일으키며 일약 스타로 떠오른 핀급의 김홍일은 기세를 몰아 이번 대회에서도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금메달을 차지해 실력을 재확인했다.

김홍일은 베트남 대표와의 결승에서 앞발 빠른 발과 들어찍기 등을 이용해 4-0으로 승리, 핀급 정상에 올랐다.

플라이급 고동환은 패기와 다양한 고난도의 기술을 발휘하며 결승에서 독일대표에 4-1 판정승을 거두는 기염을 토했다.

또한 밴텀급의 고대휴는 결승에서 독일대표와 치열한 접전으로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친 끝에 뒷차기, 돌려차기 기술로 2-1 판정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고대휴는 이번 대회에서 강인한 군인



▲핀급의 김홍일이 베트남 대표에게 앞발 빠른 발과 들어찍기로 4-1 판정승을 거두고 있다.

어플레이상을 차지했다.

2천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됨에 따라 각국 선수들의 기량이 급상승하여 실력이 세계적으로 평준화 추세에 통해 나타나 있

군인들의 절도와 질서있는 경기 펼쳐 스포츠를 통한 군사외교와 우호증진 위한 대회

정신과 패기, 뛰어난 기술이 돋보여 최우수선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페더급의 조진호는 빠른 발을 이용한 다양한 공격으로 결승에서 이태리 대표에 4-2 판정승을 거두었고 미들급의 황동환은 결승에서 캐나다에 3-0 판정승을 거두며 미들급 정상에 올랐다.

독일이 준우승, 미국은 3위 페어플레이상은 베트남

이번 대회에서 독일은 금 1, 은 2로 준우승을, 미국은 금 1, 은 1개로 3위를 차지했다.

깨끗한 매너로 경기에 모범을 보여준 베트남은 페

어는 관계로 우리 군 대표선수들은 출전 1개월 전부터 상무에서 합숙하며 강도높은 훈련을 해온 결과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됐다.

이번 대회를 통해 각국 군인 태권도 선수들의 기술이 날로 향상되었음을 보여주었고 각국의 응원 경쟁이 치열해 대회장 분위기가 열기로 가득했거나 군인들의 절도있고 질서있는 행동으로 성공적으로 치러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세계군인선수권대회는 스포츠를 통한 군사외교와 각국의 우호증진을 위해 해마다 종목별로 실시되고 있으며, 올림픽처럼 4년에 한번씩 종합대회가 개최된다.

내년 99년도에는 크로아티아에서 제 2회 종합 CISM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황영갑 감독 인터뷰

열띤 대회 분위기 속에서도 질서 돋보여 국방체육에 힘쓰는 독일, 미국 복병으로 떠올라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5개, 동메달 1개로 10회 연속 종합우승을 일구어내 만면에 미소가

가득한 상무의 황영갑 감독을 만나 대회의 전반적인 평가를 들어보았다.



▲황영갑 감독

❑ 세계군인선수권대회는 언제부터 열리기 시작했습니까?

1980년 국제군인 간에 스포츠를 통한 우호증진과 범세계적인 평화증진을 목적으로 창설되어 매 4년마다 종합대회가 열리고 종목별 경기가 매년 한차례씩 열리고 있습니다.

❑ 이 대회의 특징이라면 무엇일까요?, 또 대회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다른 국제대회와는 달리 각국의 군인들만이 출전하기 때문에 패기있는 경기, 절도있는 행동과 깨끗한 매너가 돋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각 국가별로 응원경쟁이 치열해 대회분위기가 매우 고조되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질서가 돋보였습니다.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진정한 자유로움, 신선함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국방체육으로 태권도에 힘쓰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군인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하고 전투력을 강화하는 나라로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 미국, 이탈리아, 베트남, 레바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그리스, 페루, 오스트리아, 브라질, 대만을 꼽을 수 있습니다.

독일은 군사훈련시간의 10%를 체육활동시간으로 할당하고 있는데 우수선수에 대한 훈련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역시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며 한국을 추격해왔습니다.

❑ 이번 대회에서 드러난 각국의 전력을 평가한다면?

유럽 선수들은 체격조건이 좋은 반면 유연성이 부족한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북미 쪽에서는 미국과 캐나다가 강세를 보였는데 각 체급에서 고른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노련미가 부족하였습니다. 남미에서는 페루가 실력은 떨어지지만 태권도에 대한 집중 훈련을 실시해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아시아 쪽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베트남이 빠른 몸놀림과 투지있는 경기로 한국을 위협해왔습니다.

❑ 내년 대회는 어디에서 열리게 되며 목표는?

내년에는 크로아티아에서 종합대회로 개최됩니다. 금번 시합을 통해 배운 기술과 보완점들을 최대한 적용하여 계속적인 반복훈련으로 경기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군인다운 패기와 근성으로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10회 세계군인선수권대회

국기미인전사관급이하 경관대회

회수	년도	개최지	참가국	대회전적	금	은	동
1	1980	한국	10	한국종합우승	7		
2	1987	한국	14	한국종합우승	7		
3	1991	한국	17	한국종합우승	6	2	
4	1992	이란	13	한국종합우승	4		2
5	1993	캐나다	15	한국종합우승	5	2	1
6	1994	페루	18	한국종합우승	5	1	2
7	1995	이란	15	한국종합우승	5	1	2
8	1996	크로아티아	18	한국종합우승	5	2	
9	1997	이탈리아	16	한국종합우승	5	2	2
10	1998	미국	22	한국종합우승	5	0	1

단체전

우승	준우승	3위	페어플레이상
한국	독일	미국	베트남
금 5, 동 1	금 1, 은 4	금 1, 은 1	

※최우수선수상 : 고대휴 (한국 · 상무소속)

개인전

체급	등위	국가명	이름
핀	1	한국	김홍일
	2	베트남	
	3	사우디아라비아	
플라이	1	한국	고동완
	2	독일	
	3	이태리	
밴텀	1	사우디아라비아	
	2	한국	고대휴
	3	독일	
페더	1	사이포스	
	2	캐나다	
	3	한국	조진호
라이트	1	이태리	
	2	요르단	
	3	독일	
웰터	1	독일	
	2	미국	
	3	독일	
미들	1	캐나다	
	2	사우디아라비아	
	3	한국	황동환
헤비	1	캐나다	
	2	사우디아라비아	
	3	그리스	
	1	요르단	
	2	독일	
	3	한국	심재섭
	1	그리스	
	2		
	3		

태권도 수련으로 인생의 이치 터득



박
명
환
의
원

태권도 유단자 중에는 각계각층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이 많이 있다.

고려대 태권도부 출신으로 태권도 6단인 박명환 의원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틈을 내어 모교를 방문하거나 후배들이 운영하는 도장에 들러 태권도복으로 같이입고 태권도를 수련하는 시간을 즐긴다.

“태권도를 통해 오늘의 자신이 있게 되었다.”고 힘주어 말하는 그의 태권도 인생에 대해 들어 보았다.

중학교 때 시작한 태권도

박의원이 태권도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승문중학교 시절.

“그 당시 동기생 중에는 유단자가 몇명 있었는데 허약하고 나약한 모범생에 지나지 않았던 저는 그 친구들이 몹시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활동적이고 강인한 정신력을 키우기 위해 친구들을 따라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하루도 도복을 입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수련했습니다.”

이렇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태권도를 수련해온 박의원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2학년 때 군에 입대했는데 태권도부 출신으로 당시 3단이었기 때문에 미 7사단 태권도 사범으로 발탁되어 미군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게 되었다고 한다.

1950년대 배고프고 어려웠던 시절, 미국의 원조를 받던 그 시절에 미군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게 된 박의원은 “한국인의 자존심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해 무도정신을 가르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는 당시 지도자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가를 절감했다고 한다.

미군들에게 태권도의 본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기자신이 빠를 쥘는 자세”가 있어야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제자가 스승을 따르게 하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에서 본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그는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며 살아가는 자세에 있어서 어른의 역

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당시 배우게 되었다고 한다.

젊은시절 10년 운동은 30년 건강 보장

현재 나이 61세. 그러나 10년은 젊어보인다.

“젊은 시절 10년간 운동으로 체력을 단련하면 나이들어 30년을 건강하게 지낸다.”고 강조하는 그는 학창시절 태권도로 단련한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피로를 모르고 일할 수 있다고 건강을 자랑한다.

최근 그의 건강관리는 특별한 것이 없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는 자체가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말하는 박의원은 운동이라면 어떤 것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틈이 날 때마다 등산이나 조깅축구, 야구, 걷기 등 가리지 않고 한다. 특히 고려대 태권도부 출신들의 모임인 무우회가 1년에 한두차례 학교 태권도장에서 모임을 갖는 날은 빠짐없이 참가해 몸을 뚫고 있다. 또한 후배들이 하는 도장에서 심사를 보는 날에는 직접 도복을 입고 수련생들 앞에서 태권도 실력을 발휘해 보인다.

기본 예절만 제대로 익혀도 태권도 수련은 값진 투자

“태권도를 배워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고 닭을 수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까지 말하는 박의원. 그는 태권도를 통해 의리, 사랑, 존

것을 배웠다고 한다.

그리고 태권도 수련을 통해 얻은 자신감과 예의, 결단력은 바로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었다며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바로 태권도”라고 힘주어 말한다.

“태권도 수련을 통해 정중하게 인사하는 기본 예절만 제대로 익히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도 태권도 수련의 본전은 찾은 셈”이라며 어떤 교육보다도 값진 인생에 대한 투자로 생각한다.

박의원은 평소 예의가 없을 때 겸손한 것은 비굴에 가깝지만 힘이 있을 때 겸손한 것은 진실한 겸손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겸손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큰 덕목 중 하나인데 태권도를 통해 강인함을 갖춘 태권도인으로서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다양한 일이라고.

태권도는 그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데에도 큰힘이 되고 있다.

정신을 가다듬고 신체를 단련하는 끝없는 수련으로 “일격필살(一擊必殺)”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는 태권도 수련방식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에서나 국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같은 이치로 통한다는 것. 그래서 평소 “지식과 도덕, 겸손”을 비축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항상 자신을 연마하는 데 시간을 투자한다. 이런 면모는 국정감사 때 빛을 발한다. 평소 예의 말을 아끼는 대신 연구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 국정감사 때에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민의를 대변한다. 국회 재경위 소속인 박의원은 지난 10월 국감에서 경제위기의 원인과 대책을 규명하며 단언 두각을 나타냈다.

“나라를 찾아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어린시절 꿈이 정치가의 길로

박의원이 정치가의 길을 걷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초등학교 시절, 일제치하였기 때문에 학교에는 일본 국기가 나부끼고 일본인 선생들로부터 일본말과 글을 배울 때 “내가 어른이 되어 빨리 나라를 찾아야지.”하는 마음과 가난한 어린시절, “내가 커서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각오가 박



▲미 7사단에서 태권도를 지도할 때 멋진 뛰어 옆차기 시범을 보이고 있는 박명환 의원(오른쪽)

의원을 일찍부터 정치인의 길을 걷도록 했다고 한다.

그는 백범 김구, 링컨 대통령, 마하트마 간디를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으며 그들을 닮고자 한다. 그들은 모두 자기를 버리고 일생을 국가와 민족,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다.

박의원은 1991년 국내 최초로 장기기증을 약속하는 등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을 말없이 실천해왔다. 최근 박의원은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 덕, 체”를 고루 갖춘 미래의 꿈나무를 육성하는 장학회 설립을 준비중에 있다.

박의원은 후배 태권도인들에게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태권도인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자기자신의 마음 속에는 늘 정직과 거짓, 선과 악, 정의와 불의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늘 정도(正道)를 걸을 수 있도록 자기자신을 이겨야만 합니다.”

박명환

1938년생. 서울 공덕초, 숭문중을 거쳐 경북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럼비아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객원교수를 역임했다. 14, 15대 한나라당 마포 갑지구에서 국회의원 당선. 태권도 6단.

국가대표시범단 리포트
(11. 12 ~ 11. 21)

호주, 뉴질랜드 태권도 순회시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열리는 호주에서 태권도 시범 “바로 이것이 태권도의 진수”

대한태권도협회는 11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호주와 뉴질랜드에 임원과 선수 20명으로 구성된 태권도시범단을 파견했다.

태권도 국가대표 시범단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태권도의 사전 흥

보뿐만 아니라 영구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태권도의 우수성을 떨치고 돌아왔다.

여기에서는 시범단원으로 파견되었던 이춘우 씨의 순회시범기를 실었다.

〈취재 = 이춘우〉



▲이춘우(국가대표시범단 부단장)

처음으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이 열리는 호주와 인접국인 뉴질랜드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이기 위해 이민우 협회이사단장으로 임원과 시범단원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된 국가대표시범

단원들은 9박 10일 일정으로 11월 12일 출국했다.

IMF 시대에 어려운 나라 여건 속에서 떠나는 시범이라 우리 단원들은 한치의 실수도 없이 종주국 태권도의 우수성을 떨치고 시범 목적을 달성하고자 약 한달 이상 고된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시범단의 활동사항을 보면 14일 호주 올림픽 위원회가 주최한 국제오픈태권도대회가 열린 호주 멜보른 스포츠센터에서 호주 체육부장관, 멜보른 시장, 조용대 호주 태권도협회장을 비롯한 10여명의 한국사범들과 이번 대회에 참가한 8개국 선수 및 임원과 약 3000여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황리에 시범이 펼쳐졌다.

이날 태권도 시범은 호주의 5개 TV를 통해 방영되었고, 현지 신문기자들의 취재열기 또한 대단해 시드니 올림픽을 앞두고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국가대표 시범단의 기본동작, 품새, 호신술, 기술격파에 이어 이규형 감독의 위력격파 등 약 1시간 가량 시범이 이루어지는 동안 관중들은 한 동작 한 동작이 끝날 때마다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주었고 시범을 마치자 우리 단원들에게 사인 공세를 퍼는 등 성공리에 시범을 마칠 수 있었다.

시범이 끝나자 이번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스페인에서 온 스페인 태권도협회장도 시드니 올림픽 전에 호주에 태권도 붐 조성을 위해 다시 한번 초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일행은 11월 16일 다음 목적지인 낙논의 나라 뉴질랜드의 남섬 CHRIST CHURCH로 향했다. 11월 17일 HILLMORTON 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거행된 시범에는 우리 교민 100여명을 비롯하여 CHRIST CHURCH 시장을 비롯한 각계인사와 1000여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가득 메워 우리 단원들의 멋진 시범이 이루어질 때마다 환호를 보내는 등 성황리에 시범을 마쳤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 교민들은 태권도 시범으로 우리 교민들의 사기를 높여 주었다고 대단히 좋아하였다.

11월 18일, 시범단은 다음 시범장소인 뉴질랜드 북섬에 위치한 AUCKLAND로 향하였다. 19일 오전 이정남 뉴질랜드 회장의 체육관에서 약 1시간 가량 TV 녹화촬영을 하였고 이것은 오후 6시 NATIONAL NEWS와 스포츠 뉴스에 방영되었다.

오후 7시 MT EDEN WAR MEMORIAL HALL에서 시범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뉴질랜드 대표팀으로부터 친선게임 제의가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 시범단의 팍택용과 뉴질랜드 대표선



▲뉴질랜드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인 대표시범단과 뉴질랜드 태권도 수련생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수간의 게임이 펼쳐졌는데 콕택옹이 빠른 스피드와 고난이도의 기술로 8:0이라는 큰 점수차로 쉽게 승리를 거두고 이어서 시범에 들어갔다.

우리 교민 약 200여명과 김상훈 총영사, AUCKLAND 시장을 비롯하여 약 1500명의 관중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이번 일정의 마지막 시범을 하였다.

우리 단원들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하여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눈빛이 역력한 가운데 최선을 다해 마지막 시범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였다. 관중들은 시범이 펼쳐질 때마다 기립박수를 보내는 등 태권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김상훈 총영사는 10여년 전에 보인 시범과는 격이 다른 아주 훌륭한 시범이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우리 일행을 관저로 초대하여 맛있는 식사를 대접했다.

시범단 일행은 21일 오전 7시 김포공항에 무사히 도착하여 간단히 인사를 하고 해산하였다.

9박 10일간의 일정 속에서 우리 단원들은 태권도에 대한 홍보와 민간 외교사절로 태권도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한 결과 호주, 뉴질랜드의 시범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

시범단 명단

❖ 단장

이민우(대한태권도협회 이사)

❖ 감독

이규형(국가대표 시범단장)

❖ 주무

김동철(문화관광부 사무관)

윤문희(대한태권도협회 운영과장)

박기인(국기원 국제부장)

❖ 단원

이춘우(국가대표시범단 부단장)

정재환(국가대표시범단 주장)

콕택옹(사범)

이정민(경기대학원)

장도영(경희대 4년)

변관철(경희대 4년)

박동영(경희대 4년)

전병수(웅인대 4년)

이선우(경희대 3년)

박용기(웅인대 3년)

서하영(웅인대 2년)

김환섭(웅인대 2년)

최미정(웅인대 2년)

박진수(경희대 2년)

정재은(한체대 1년)

태권도
동아리 탐방

13

홍익대학교
태권도부



98년 9월 운동 후 도장에서 부원들이 함께 했다.

엄격함 속의 자유로움 · 홍익대학교 태권도부



쌀쌀한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초겨울 저녁.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미처 외투를 준비 못한 학생들이 종종걸음을 옮기고 있는 홍익대학교 앞 거리. 정문을 들어서자 바로 보이는 체육관 앞에서 태권도 부원 4명이 누군가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다. 훈련이 끝난 7시를 한참 지난 시간인 8시경 눈썰을 휘 날리며 학교에 도착한 필자.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지만 학생들과 필자는 이내 서로를 알아보았고 반가이 인사를 나눴다. 그리고 학생들은 오랫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어설픈 변명과 사과를 웃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동아리방으로 안내했다.

잘되는 동아리

미안한 표정으로 인사를 한 뒤 동아리방을 둘러보던 필자는 이들의 속속고 인내심 강한 만만디 기질(?)의 근원을 짐작할 수 있었다. 크고 환한 동아리방. 저녁 늦은 시간에도 많은 부원들이 남아 넓은 동아리방을 온기로 덮히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인상적이까까지 했던 적극적인 일사불란한(?) 인터뷰. '잘 되는 동아리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체육관에 있는 수십개의 동아리방 중 가장 넓은 방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들의 설명에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홍익대학교 태권도부의 위상을 엿볼 수 있었는데 이 날 인터뷰에는 27기(92학번) 선배부터 34기(98학번) 후배까지 다양한 기수들이 참석해 여러 가지 도움말을 주었다.

34년의 역사를 가진 홍익대학교 태권도부를 소개



▲올해 하계수련회에서 부원들이 바닷가를 달리고 있다. 지옥훈련의 초기단계.

해 준 부원들은 바로 이들이다.

홍익대 태권도부는?

후배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기 위해 동아리 방을 찾았다가 인터뷰를 잠시 지켜본 뒤 말없이 먼저 일어난 목격한 27기 한건(경제학과), 그의 예비신부이자 28기생인 명랑한 어지연(영어교육과·2단), 동기의 활달함을 점잖게 지켜보던 28기 박원석(무역학과·2단), 태권도부가 낳은 불세출의 명대변인 29기 송치용(경영학과·1단 ※참고 - 목표는 9단), 이들간의 대학 친선대회에서 영광스런(?) 부상을 당한 몸으로 필자를 마중나온 전과공학과 3학년 장민희, 그리고 간간이 인터뷰의 분위기를 일신해 준 30기 김성식(도목공학과·2단), 30기 부장을 지낸 '범생스타일' 권우철(컴퓨터 공학과·3단), 내내 조용히 웃고만 있던 33기 조영일(전자전기공학과·2단), 새내기답지 않은 진지함과 준비성, 달변이 돋보였던 34기 김용(무역학과·1단). 이들 아홉명의 개성있는 부원들 외에도 30여명의 부원이 활발하게 태권도부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한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부장은 33기 박상호가 맡고 있고 재학생과 졸업생들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자리로 주로 복학생이 맡게 되는 회장은



▲훈련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조금만 참자. 여기서 지면 안돼



▲98년 5월 대동제 때 공중연속 3방 파괴.(장민희)

29기 김한호가 맡아 수고하고 있다고.

부원 40명, 졸업생 200명

홍익대학교 태권도부는 휴학생을 제외하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부원들은 40명, 졸업생은 200여명 가량이다.

태권도부의 활동적인 분위기는 선배들의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현재 이사장인 이면영 씨가 초대 지도교수였고 또 경영대학장을 맡고 있는 김건조 교수가 1기 선배다.

초창기부터 학교의 지원이 막강했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말 보다는 행동하는 무언실천(無言實踐)이 모토 「태권도」란 이름으로 단단히 뭉친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들

부실과 가까이 있는 도장은 40여평 규모의 잘 정돈된 분위기였는데 벽면을 둘러가며 걸려있는 각종 대회 상장들이 태권도부의 영화로운 역사를 말해주는 듯 했다. 약간 빛이 바랜 상장들이 많은 이유를 곳곳에 물었더니 대변인 왈, 80년대 후반까지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다가 90년대 들어서면서 내실화(단어 선택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 인상적)를 기하느라고 그렇게 됐다는

것.

90년대 중반부터는 제 실력을 발휘, 올해 전국 대학 친선대회에서는 종합 우승까지 노렸을 정도라고. 이မ်게도 노력미보다 패기가 앞섰기에 금메달 한 개 획득에 그치고 말았지만...

여기서 잠깐. 영예의 금메달 수상자는 누구였을까? 앞서 소개했던 영광의 부상자 전과공학과 3학년 장민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중학교때까지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다가 부상으로 인해 운동을 중단했고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당연히' 태권도부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해온 장민희는 태권도부가 인정하는 '열심 감자'다. 인터넷을 통한 홍익대학교 태권도부의 홍보에도 열심인 그는 졸업하기 전에 종합우승의 꿈을 이뤄보는 것이 소원이라면서 태권도부의 화끈한 분위기와 선후배간의 끈끈한 정이 너무 좋다고 자랑이다.

휴학생을 제외하고서도 40여명이 수련에 참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자랑하는 태권도부는 200여명의 동문들의 든든한 후원에 가슴을 짝 펴고 산다. 만리포에 있는 대학의 임해학교(60년대에는 콘도라 불리웠던)에서 매년 여름 4박 5일의 수련회를 가지는데 졸업한 동문들도 가족들과 함께 와서 즐기며 태권도부의 화합의 한마당을 연출한다고.

엄격함과 자율성

이들은 서로 아무리 친하더라도 선후배간에 형이나 오빠로 부르지 못한다. 무조건 '선배'로 통하는 것. 이 부분에서 부원들은 얼마전 대한태권도협회 제 작 협조한 역사 드라마를 떠올렸다. '형이 있어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팔라라 팔라 팔라라'

이들이 선후배간의 위계질서만을 중요시한 나머지 인간적인 상호 교감을 가벼이 여기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교감을 중요시 하기에 보통 태권도 동아리에서 금기시(?)되는 부내(部內) 커풀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4커풀이나 되는 것이다. 여기서 홍익대학교 태권도부 특유의 개성이 발견된다.

바로 엄격함 속의 자유로움이다. 이해를 돕기 위

해 에피소드를 한 가지 들어본다.

올해 여름 만리포에서 있었던 일. 훈련부장 장 모군은 해병대 출신. 귀신잡는 해병대라는 말이 있지만 정말 그때의 훈련은 너무나 혹독했었다고 한다. 바닷물 속에서 며칠동안 몇시간에 걸쳐 지옥훈련을 받은 이들은 '한을 푸는 시간'만을 기다렸다. 태권도부의 민주성을 짐작할 수 있는 이 '한-간'이란 혹독한 훈련을 참고 견뎌낸 부원들에게 주는 상(賞)의 성격을 띤 것으로, 그동안 쌓인 답답함을 특정 대상(아마도 훈련의 지휘자일 것)을 향해 풀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태권도를 못하면 여자들은 집에 가서 밥이나 해라'는 훈련부장의 말에 분노하던 여성 부원이 이 시간을 너무나 기다렸음은 당연한 일. 폭풍같은 '한-간'의 시간이 지난 후 당시 훈련부장이었던 장 모군의 상태가 어땠는지는 사진이 말해줄 것이다.

극한의 고통을 인내한 이들은 지난 사진첩을 들여다보며 하나가 되는 일체감을 경험했다. 이는 젊음만이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인 셈이다.

미팅 약속이 있는 부원은 정해진 횡수 내에서 훈련에서 제외시켜 주는, 다른 태권도 동아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자유로움이 있지만 대학생으로서의 욕심을 자제해야 하는 많은 부분이 있기에 태권도



▲78년도 14기 선배들의 연무시범 광경. 기왓장을 격파하는 대단한 실력.

부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부원으로 인정받는데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부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뿌듯한 감회에 젖는 것이다.

무언실천의 정신으로

규율과 민주가 공존하는 홍익대 태권도부의 모토는 무언실천(無言實踐)이다. 말을 앞세우기 보다 행동으로 진정된 태권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이들의 각오는 97년 학내에서 강간범을 잡은 32기 김택주와 현장에 있던 태권도부원 모두가 보여준 용기에서도 드러난다. 처음엔 불합리해 보이고 이해 못할 부분도 많았지만 함께 1년여를 보내면서 너무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됐다고 새내기들은 입을 모았다.

이들을 지켜보며 흐뭇해하는 선배들의 표정에서 고생 끝에 오는 낙의 기쁨을 읽을 수 있었다. 태권도부라는 이름으로 단단하게 묶인 이들,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들을 보는 듯 했다.

〈정순영 프리라이어터〉



▲혹독한 훈련, 한풀이 시간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부원들은 전보다 더욱 돈독한 우애를 과시한다.



하 권 익 박사

성균관 의대
삼성 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스포츠의학과)

어린이와

태 권 도



심 종 섭 박사

성균관 의대
삼성 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소아정형외과)

골관절 결핵

생소하게 느껴지는 척추결핵

며칠전 초등학교 3학년 남자 어린이가 부모와 같이 외래를 찾아왔다. 점점 운동을 하기 싫어하고 매우 피곤해하고 허리가 자주 아파서 동네 의원을 찾아갔더니 척추가 흰 것 같다고 전문 병원을 찾아가라고 하여서 왔다는 것이다. 방사선 검사를 해보았더니 환아의 허리는 휘어 있었지만 그 원인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척추 결핵에 있었다.

부모들은 어린이의 척추가 흰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하여 치료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하고 방문했지만 척추결핵이라는 진단을 듣고는 매우 생소해하며 어리둥절 하였다.

“폐결핵 말고도 결핵이 생길 수 있는 겁니까? 쉽게 나을 수는 있습니까? 결핵약으로 쉽게 고치는 겁니까? 후유증은 없나요?” 등등 설세없이 쏟아붓는 질문에 곤혹을 치른 일이 있다.

과거부터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은 전염병이 결핵이다.

최근 들어서는 환경의 개선, 영양의 호전 및 항결핵약의 발달 등으로 우리나라의 결핵의 감염률이 많이 감소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감염률은 세계적으로는 매우 높은 편으로 이러한 국민 보건 상태는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과 비교되는 매우 부끄러운 형편이다.

결핵은 결핵균의 침범에 의하여 주로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되므로 인체의 폐에 가장 흔히 발생하는

데, 결핵은 폐 이외에도 우리 몸의 다른 장기에에도 넓게 퍼질 수 있다.

관절이나 뼈에도 결핵이 발생할 수 있는데 관절 결핵은 척추에 가장 흔히 발생된다.

소위 “곰추”라고 불리는 척추의 변형을 가진 사람의 대부분이 이러한 척추결핵을 조기에 발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데 기인한다.

척추결핵 위치에 따라 다양한 증세

척추에 결핵이 발생되면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목이나 상부 등뼈에 척추결핵이 발병되면 주위의 신경을 누르거나 자극하여 팔다리의 힘이 서서히 감퇴되고 심하면 전신 마비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척추의 앞부분이 파괴되고 주저앉게 되어 등이나 목이 점점 앞으로 숙여져 변형이 진행되면 심한 “곰추” 변형까지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척추의 허리 아래부분에 결핵이 발생되면 척추가 아프거나 신경이 눌리는 경우는 없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엉덩이 관절의 운동이 부자유스러워지거나 척추에서 결핵 고름 주머니를 크게 만들어 아랫배에서 만져지기도 하는 등 좀 특이한 증세가 나타나서 진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러한 척추결핵은 위에 언급한 대로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여 빨리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갑자기 식욕부진, 운동회피하고 피곤해 하면 만성질환을 의심해야

어린이가 갑자기 식욕이 없어지고 운동을 전혀 하려들지 않고 피곤해 하면 일단 서서히 진행되는 병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만성 질환으로 결핵이 흔하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의사의 진찰만 받으면 진단에 크게 어려움이 있지는 않다.

최근에는 선진국에서도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등 면역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환자에게 결핵이 발병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하며, 최근의 발전된 항결핵약에도 듣지않는 변종의 결핵균이 속속 발견되고 있어서 치료전문의를 긴장시키고 있다.

어린이가 특별한 이유없이 관절 결핵에 걸리면 먼저 가족 특히 부모들 중에 결핵에 걸려있는 사람이 없는지를 검사하는 것이 좋다.

결핵은 서서히 진행되는 병으로 초기에는 증세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많은 부모들이 증세없이 결핵에 걸려 있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런 경우 어린이만 치료하고 집안 어른이 치료되지 않으면 저항력이 약한 어린이는 다시 결핵에 시달릴 수 있고 병은 점점 중한 상태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집

식욕부진과
운동회피에
피곤해 하면
만성질환을
의심해 보아야



에서 큰 관절에 잘 생긴다.

어린이에게 발생하는 결핵은 어른보다 좀 특이한 경우가 많다. 특히 무릎이나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손가락에 결핵이 발생하는 경우, 마치 골 종양과 흡사하기 때문에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간혹 있다.

어린이 결핵은 조기발견 및 치료가 중요 세심한 보살핌과 주위 환경의 청결을 요구

안 어른도 발견되면 즉시 같이 치료해야 한다.

척추결핵의 치료는 항결핵약 복용과 더불어 수술로 파괴된 척추부분을 굳히는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치료는 아니다.

그러나 방지하여 발생하는 후유증을 고려해 볼 때 치료는 매우 시급한 경우가 많다.

또한 골관절에 발생한 결핵은 폐결핵에 비하여 항결핵약을 좀더 오랫동안 복용하여야 한다. 많은 환자들이 1년 이상 복용하여야하는 결핵약을 참지 못하고 복용중간에 중단하거나, 환자 마음대로 복용량을 조절하여 결핵이 초기에 완치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오랫동안 더욱 고통받는 환자들이 종종 있다.

엉덩이 관절, 무릎관절에 올 수도

척추 이외에도 관절과 뼈에 결핵이 가끔 발생할 수 있는데 엉덩이 관절, 무릎관절 등 주로 우리몸

어릴 때 발생된 골관절의 결핵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경우에 척추 뿐만 아니라 다른부위에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들어 엉덩이 관절이나 무릎관절에 발생한 결핵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경우 심한 조기 퇴행성 관절염을 야기하여 젊은 나이에 인공관절 치환술(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흔하다.

어린이 결핵은 주위환경이 좌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린이의 결핵은 주위 환경에 따라서 발병 유무가 결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고, 발생시 조기발견 및 조기 치료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모들의 어린이에 대한 세심한 보살핌과 더불어 주위 환경의 청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역사 향기가 깃든



<연재 제 9회>

태권도 백과



이 경 명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차장)

태권도 경기용품

태권도의 공식적 경기용품으로 선수의 복장과 매트, 그리고 경기운영 시스템인 채점기와 전광판 등이 있다.

선수의 복장은 도복과 안전보호구로 구분되며 안전보호구는 머리보호대, 몸통보호구, 팔다리보호대 및 살보대로 구분된다.

1961년 9월 16일 대한태수도협회(현 대한태권도협회)가 창립되고 1963년 대한체육회에 가맹, 전국체전에 경기종목으로 채택됨으로써 경기화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태권도가 경기스포츠로 발전하는 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경기규칙과 선수의 안전

을 위한 보호장비였다.

대태협은 당시 안전장비로서 몸통부위를 보호할 수 있는 호구(몸통보호구의 준말)와 아래 급소부위를 보호할 수 있는 살보대(살보호대의 준말, 낭심보호대라 일컫었음)를 개발, 착용해 경기를 했다.

팔다리보호대와 머리보호대는 1985년에 개발, 86년 6월 세계태권도연맹이 공식채택, 경기에 착용토록 의무화했다.

매트는 1986년, 전광판은 1986년 9월 20~10월 5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 10회 아시안 게임에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무의(武衣)로서의 도복

도복은 태권도를 수련할 때 착용하는 복장이며 동시에 경기복이기도 하다.

언제 누구에 의해 고안되었으며 언제부터 착용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없다.

그러나 태권도를 비롯 일본의 공수, 합기도, 유도 등 무도복의 공통된 유사성을 감안할 때 어떠한 맥락에서 출발했는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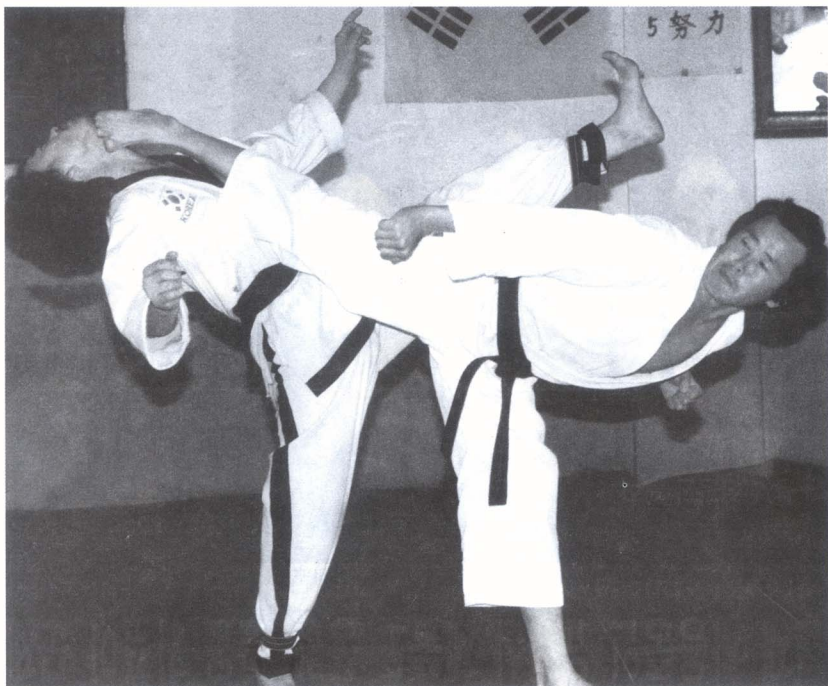
지금의 태권도도복 형태는 기존 도복사양에서 1978년에 앞이 터진 상의를 입고 저미며 띠를 매는 것에서 T셔츠 형태의 목부분의 깃을 V자형, 깃의 폭은 4cm(흑색 깃은 유단자, 반흑·반적은 유품자용)로 규정하고 개량 도복의 공인화가 세계연맹에 의해 공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도복은 한국의 고유의상 즉 한복과 유사한 점이 많은데 한복이 한국민족의 고유의상으로 언제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밝혀져 있지 않다.

“우리 옷은 상체의 옷인 저고리(유)와 하체의 옷(고)인 바지와 치마가 떨어져 꽤 활동적이며 또 우리 복식의 전통양식은 앞쪽을 튼 카프탄(Caftan)형식으로 복방 뚫고인이 많이 입은 호족계통의 옷이다. 한복은 중국의 기포(旗袍), 일본의 기모노(着物)와는 전혀 다른 양식으로 삼국시대의 고유한 양식을 기본으로 간직하고 있다.”고(복식·조호운 저·1992·대원사) 기록돼 있다.

그리고 도복의 철학성에 대한 기록을 보면,

“도복이란 원래 다른 복장과 달리 모양이 잘 바뀌지 않는 보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고구려 조의 선인이 입었던 옷과 고조선의 국자랑들이 입었던



▲어제의 도복 : 70년대까지 많이 터진 상의를 입고 저미며 띠를 매던 도복 모양.

옷이 별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한복의 재단법과 유사성을 지닌 태권도복은 바지 저고리의 형태로 볼 때 원, 방, 각의 세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 바지에서 허리는 원, 마투폭은 방, 그리고 사복은 각의 꼴로 되어 있고 저고리에서도 같은 꼴을 찾아볼 수 있다.”고(태권도·이경명저·1997·대원사) 밝혔다.

신형도복 제정, 공인

“한국을 종주국으로 한 태권도와 일본을 종주국으로 한 가라테(공수도)는 정신면 기술면에서는 물론, 경기규칙이 서로 다른 별개의 경기인데 의상의 역사적 기원으로 볼 때 현 일본의 가라테 도복은 우리나라 신라시대의 고유의상임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규격과 모양의 도복을 착용하고 있는 관계로 태권도를 모르는 사람은 태권도가 마

치 가라테로부터 분화된 경기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어서 태권도 보급 발전에 크나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태권도의 권위가 손상되고 있어 태권도와 가라테를 간단히 식별하게 하기 위하여 태권도 고유한 도복을 제정함으로써 태권도 보급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는 신형 도복 제정의 이유를 들며 태권도인(강원식, 고재천, 광병호, 김인석, 김순배, 김선구, 김일상, 노병직, 박해만, 배영기, 엄운규, 이나석, 이금홍, 이병로, 이교운, 이용우, 전정웅, 최남도, 현종명, 홍중수, 홍정표 등 22인)들이 공동명의로 대가상사(주)를 1978년에 을지로 6가 덕수빌딩 103호에 설립하였다.

신형도복의 판매 보급일시는 76년 7월 20일부터였다.

공인도복의 보급과 사업화에 뜻을 함께한 대가상사는 성공하지 못하고 무성한 잡음만 남겨놓고 몇 년 뒤 폐업했다.



▲오늘의 도복 : 1978년 목부분의 깃을 V자형으로 규정한 현재의 도복형태로 바뀌었다.

구로써 호구와 살보호대의 착용에서 1985년을 기점으로 머리부위와 팔다리부위의 보호대를 개발, 추가로 채택, 사용해 오고 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경기복장 및 안전보호용구에 관한 규정을 1984년 3월 1일자로 제정하고 1985년 1월 1일자로 개정한 바 있다. 내용 중에는 공인 절차, 특허, 마크사용에 관한 조항 등이 명시돼 있다.

공인대상 품목은 태권도복, 머리보호대, 몸통호구, 살보호대, 팔다리보호대, 전광판, 경기용 매트 등이다.

이 품목에 대한 최초의 공인은 '88 서울 올림픽을 위해 이뤄졌고 '86 서울 제 10회 아시안 게임에는 임시승인으로 사용되었다.

공인의 목적은 "태권도

경기연맹으로서 국제경기에 사용되는 각종 보호용기구에 대한 공인제품 사용이 요구되며, 특히 '88 서울 제 24회 올림픽 게임에 사용될 용기구에 대한 공인품이 없음으로 이에 대한 해결을 하는 데 있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태권도경기 보호구

김명수는 '태권도의 스포츠제도화 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논문 · 한양대 · 1992년)에서 "태권도는 실

태권도 경기에서 상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호구 착용 몸통보호구, 낭심보호대, 머리보호대 등

직적인 상황을 중시하고 점차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신체를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강해지고, 기타 경쟁의 장이 동등한 조건을 갖추고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태권도가 스포츠화하면서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특성이 팽배해지고 그에 따라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몸통보호구 및 낭심보호대, 머리보호대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경기를 수행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1960년대 태권도 경기화의 시작과 함께 안전 보호

최초의 공인품

세계태권도연맹은 1987년 5월 1일자로 2년간 태권도복은 한국 제우교역, 머리보호대는 1987년 7월 15일자로 5년간 미국 마초사, 그리고 전광판은 한국 삼익전자와 공인계약을 체결했다.

공인절차는 공인을 받고자하는 업체가 견본을 제작, 각국 협회를 경유 세계연맹 사무국에 제출해야



▲선수의 안전을 위해 태권도경기에서는 머리보호대, 몸통호구, 팔다리보호대 등을 착용토록 하고 있다.

하며 이를 세계연맹 기술위원회에서는 제품과 사양을 검토, 심의를 거쳐 총재에게 재가를 받은 후 공인인가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합격된 업체는 쌍방의 계약조건에 따라 공인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공인은 각국 및 지역별로 안배하거나 업체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현 공인제도는 업체수를 각 대륙별로 2개 업체로 제한하고 있다.

공인 전광판

태권도 경기용 전광판은 최초로 삼익전자에서 제작됐다. 이는 85년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열리는 제 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경기진행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한태권도협회가 제작의뢰함으로써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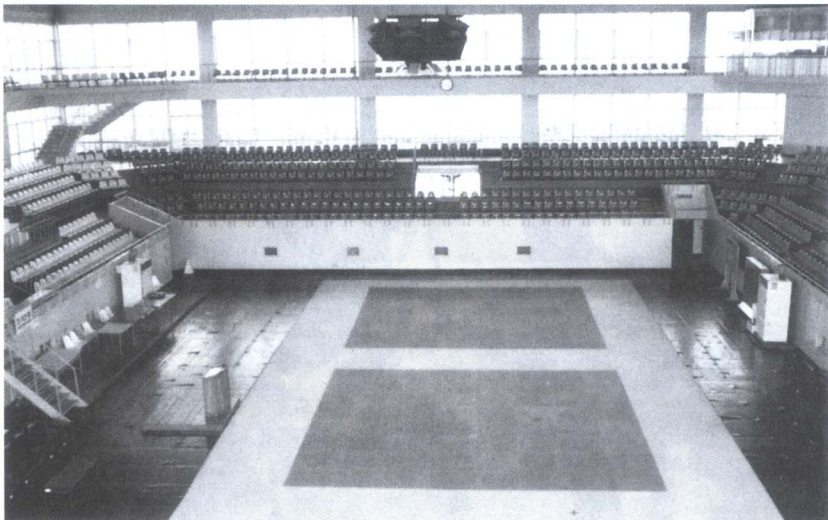
전광판의 대당 제작가격은 2천 7십만원이었고 전원은 220v, 보드 문자는 한글 및 로마자 숫자의 표기가 가능했다.

세계연맹은 삼익전자와의 공인계약에서 공인기간을 '영구'로 해주되 공인료에 관해서는 외국 수출품에 한하여 대당 수출금액의 2%로 책정하고 3대의 전광판이 고가임을 고려하여 계약일로부터 10년간 거론치 않는다는 조건으로 했다.

이에 삼익전자 측은 대한태권도협회에 세계연맹으로부터 공인서 및 추천서를 접수하는 8월 23일자로 전광판 3대(가격 6천 4백 5십만원)를 기증하겠다는 기증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리고 세계연맹은 삼익전자의 제품의 수출을 위하여 회원국에 적극 사용토록 권장한다고 명시했다.

서울에서 개최된 제 7회 세계대회에 처음으로 전



▲마루바닥에서 펼쳐지던 태권도경기는 선수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1986년 매트로 바뀌었다. 사진은 매트가 깔려있는 국기원 경기장 모습.

광판을 사용하게 되자 당시 미국협회 회장인 양동자는 세계연맹 총회에서 극렬히 불법이라고 비난하고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삼익전자가 제작한 전광판은 '88 서울 제 24회 올림픽대회 태권도경기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용됐다.

조웅호는 이종우와 학교 동창생으로 이종우의 제의로 전자호구 개발에 착수했다. 그러나 개발비 등의 지원이 여의치 못했고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해 결별하게 됐다.

대태협 전무이사 강원식은 기존 전광판의 대형화

대형 전광판 경제성, 이동성 문제로 중형으로 개발 현재 사용중인 유경사 제품도 중량, 높은 가격이 문제

해의 수출은 91년 그리스에서 개최된 제 10회 세계대회 경기용으로 3대, 독일 슈탐사에 5대 등 수출 실적이 있을 정도로 저조했다.

유경사 전광판 제작

1992년을 기점으로 해 삼익전자는 전광판 제작을 중단했다.

그 뒤를 이어 유경사(대표 조웅호)가 대를 이어 제작에 참여하게 됐다.

는 경제적인 면과 이동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실리적인 면을 감안, 중형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광판은 유경사 제품이다.

그러나 유경사 전광판도 대당 60kg의 중량이고 가격도 만만치 않아 해의 보급에 문제를 안고 있다.

세계연맹은 93년 뉴욕 제 11회 세계대회, 그리고 94년 히로시마 제 12회 아시안 게임 등에 이 전광판을 사용했는데 운송비만도 엄청난 경비지출과 운반, 설치 등 어려움을 감내치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유경사는 경량화와 경제적인 가격대의 전광판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88 서울 올림픽 경기용구, 공식회의

'88 서울 제 24회 올림픽게임에 사용될 태권도 안전보호 용기구 공인에 관한 회의를 88년 6월 13일 국기원에서 가졌다.

회의 참석은 국기원에서 홍종수, 김순배, 연수원에서 이종우, 강원식, 대태협에서 엄운규, 황춘성, 세계연맹에서 김봉식, 송상근, 김병은 등이 참석, 몸통호구, 살보대, 팔다리 보호대 등 경기용구를 검토하는 등 심도있게 다루었다.

세계연맹은 6월 14일 88체육관에서 세계연맹 임원으로 송상근, 김병은, 강원식, 박해만, 일선감독 코치로는 김용희, 김봉기, 이승국, 김세혁, 박현중, 김우규, 김영희, 윤오남, 주신규, 안현택, 김용국 등이 참석, 직접 경기 보호구를 시험하였다.

시험대상업체로는 상무사, 위너사, 화승, 무술사, 대가상사, 금품상사, 진성기업, 중앙스포츠 등 8개 업체였으며 화승은 몸통보호대 단일 품목이었다.

시험결과 몸통보호구는 주름방벽이 있는 것이 좋다는 평가였고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양 옆구리를 2~3mm 정도록하여 경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거할 것과 거드랑이를 약간 파서 활동성을 높이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살보대는 일반용, 팔다리보호대는 고무식으로 된 것이 좋는데 내부쪽에 큰 원을 파서 부담이 적고 땀의 흡수를 용이하게 할 것, 머리보호대는 평이었으며 단 내부 스폰지 부착을 제거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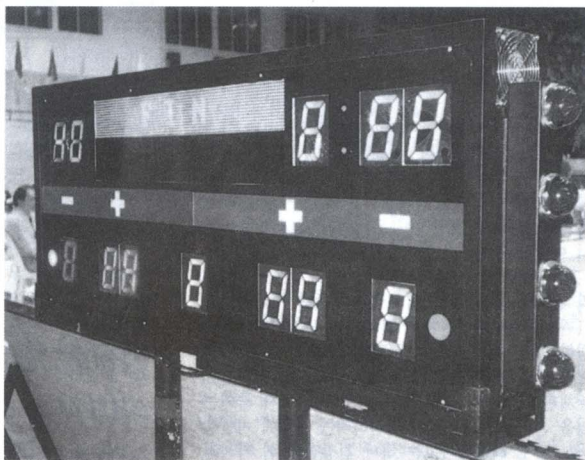
세계연맹은 제 3차 회의를 88년 8월 16일 연맹 사무총장실에서 가져 8개 업체에 시정사항을 보완토록 설명하여 가장 좋은 제품을 SLOOC(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사양과 공문을 통보하고 조직위는 등 제품 제조업체를 선정 구매하되 세계연맹은

제품에 대한 공인절차를 진행한다는 결론을 맺었다.

1988년 7월 25일자로 세계연맹 사무총장 김봉식은 각 회원국에 '경기복장과 안전보호구의 공식 승인'에 관한 공문을 발송했다.

세태연, 시드니 올림픽 전광판 확정

세계태권도연맹은 오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게임 태권도경기에 사용될 전광판 사양을 확정, 지난 10월 29일 제조업체인 스위스 타이밍 회사에 통보했다.



▲전광판은 태권도경기의 득점점 상황을 바로 표출하고 있다.

SOCOG(시드니올림픽조직위원회)은 제조업체인 스위스 타이밍사를 올림픽에 사용될 모든 경기종목의 전광판 등을 납품하는 지정업체로 선정됐다.

세계태권도연맹은 기존 대태협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광판의 사양을 검토, 득점, 감점 등 기존의 표시인 +, - 표시, T(합산) 등 표시를 DEUK-JEOM, GAM-JEOM, KYONG-GO로 변경하고 통산의 난을 삭제했으며 특히 TV중계시 전광판에서 TV화면에 기록이 출력되도록 하는 시스템 등을 보완했다. 이는 경기부 김철오 차장의 제안을 보완, 수용하게 된 것이었다.

〈다음호에 계속〉



죽여버려

〈연재 제 23회〉

호로아 글 · 그림

여자의 인격을 존중했던 전봉준

전주성 안팎은 매우 어수선했다. 성안에서는 아직도 도망가지 못해 숨어있는 탐관오리(貪官汚吏=탐욕이 많고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벼슬아치)들을 동학군이 찾아내느라 법석이었고 때로는 전주성을 장악했다해서 기고만장한 동학군의 행태가 주민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했다.

동학군임을 빙자(憑藉=권력을 빌려 큰소리 치다)하여 매우 못된 짓을 저지르는 자들을 두억시니와 그가 이끄는 지리산패는 팔다리를 분질러버리거나 심한 경우 주먹으로 면상(面相=얼굴의 생김새)을 으깨어 목숨까지 빼앗아버리는 즉결처분(卽決處分=재판을 거치지 않고 범인을 그 자리에서 죽이는 일을 흔히 이르는 말)이 저질러지는 바람에 치안은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는 하나 긴장감은 쉬 가시지 않고 있었다.

성밖은 성밖대로 전주성을 동학군에게 빼앗기고 만 초토사 홍계훈이 이끄는 경군(京軍)과 일부 전주감영의 군사들, 그리고 주변고을에서 징집한 군사들이 완산, 다가산, 사직단 등 전주성을 둘러싼 산봉우리와 골짜기에 진을 치고 척후병(斥候兵=적의 행편이나 지형 등을 살피는 임무를 맡은 병사)을 자주 내보내 동학군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경군의 총수인 홍계훈은 사령부를 용머리고개 남쪽 산 언덕에 두어 전주성 수복(修復=잃었던 땅을 도로 찾음)작전을 세우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한편 동학군의 총대장 전봉준은 전주성의 선화당에 지휘본부와 두고 앞으로 일을 어떻게 벌여나갈 것인가를 참모진들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었다.

전봉준은 먼저 성안의 부녀자들을 비장청 앞에 모아놓고 징발(徵發=군이 민간인으로부터 군수물자나 토지·시설 따위를 거둬들이는 것)했던 포목(布木=베와 무명)을 나누어주고 그것으로 동학군의 군복을 만들도록 당부했다.

무장에서 봉기할 때 입었던 동학군들의 옷은 계절이 바뀐 무더운 초여름 날씨에는 불편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못된 짓을 해온 벼슬아치를 그 자리에서 내쫓아 백성들에게 어진 정치를 베푸는 새

여자를 업신여기던 시절 아녀자를 인격자로 대하는 따뜻한 마음씨 가진 전봉준

로운 세상을 맞이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군사들이 입고있는 옷은 겨울옷인데다 낡아서 입기에 편치 않습니다. 이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뒷받침이 있어야 우리의 거사(擧事=큰일을 일으킴)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여자를 천대(賤待=업신여겨 푸대접함)하던 시절이다. 부녀자를 한사람의 인격자로 대해주는 전봉준의 따뜻한 마음씨가 그들을 감동시킨 것이다.

전봉준은 그 시대에 있어 확실히 별난 사람이었다.

전봉준의 첫부인 최씨의 묘소는 뒷날 동학군이 관군을 크게 깨뜨린 황토재 아래 언덕 위에 있었다.

가난했던 전봉준의
아내는 잘입지도 잘
먹지도 못하면서 4
남매를 낳아 그들의
뒷바라지에 허리가
휘는 나날을 보냈다.
그 어려운 살림 속
에서 최씨는 병을
얻고 끝내는 숨지고
말았다.

아내를 묻은 전봉
준은 자주 어린아이
들의 손을 잡고 무
덤을 찾아 목도를
올리곤 했다.

『저것봐, 또 아내의
무덤을 찾아왔군』
『글쎄 말이야. 무척
이나 금슬이 좋았던
모양이지』

묘소 부근의 사람
들은 전봉준과 아이
들의 모습을 볼 때
마다 한마디씩 지껄었다.

왜냐하면 당시 풍습으로서는 남편이 아내의 묘소
를 찾는다는 것은 흔치않은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전봉준은 여성을 남성과 대등하게 보았던 당시로
서는 보기 드문 사람이었다.

거듭되는 피투성이 공방전

동학군의 지휘본부인 선화당은 초여름의 나른한
기온인데도 분위기는 차갑고 엄했다.

일단 전주성을 점령하기는 했으나 성밖의 산봉우
리와 골짜기에 진을 친 경군은 최신에 무기를 갖추
어 허점만 있으면 전주성 탈환을 노리고 있는 데다
동학군의 사기는 안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은 아무래도 성을 나가 한 번 더 경군을 공
격해야 되겠소. 그렇지 않아도 경군은 성안을 향해
대포를 쏘아 우리 군사들의 기를 꺾으려 하고 있
소』

전봉준은 동학군의 사기를 매우 중히 여겼다. 무
기가 경군에 견주어 뒤지는 동학군으로서는 사기
와 단결력만을 전투력의 밑바탕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그 동안 이미 동학군은 몇 차례 전주성을 나가 경
군과 싸웠으나 별다른 전과(戰果=전투에서 거둔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4월 29일에는 동학군이 북문으로부터 나가 황학대
의 경군을 공격했으나 경군이 회전식 기관총을 쏘
아내는 바람에 동학군은 마구 쓰러졌다.

성안에 남아있던 두역시니는 바로 동학군에게 철
수하라는 신호를 보내 성안으로 불러들였다.

〈흐음, 경군은 황학대에 회전식 기관총을 설치해
두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두역시니는 최신 무기를 갖춘 경군과 싸우려면 야
간 기습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밤에 자신이 지리산패를 끌고 전주성을 나
가 경군에 야습(夜襲=야간의 기습공격)을 감행하
려면 성안에 남아있는 전봉준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가 있어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실정이었다.

머칠전 초토사 홍계훈은 성안에 효유문(曉諭文=
알아듣도록 타이르는 글)을 뿌렸다.

『너희들은 나라의 적자(赤子=원래는 갓난아이를
뜻하나 갓난아이처럼 여기어 사랑한다는 뜻에서
임금이 「백성」을 이르는 말)로서 전봉준의 허황된
꼬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 여기에 이르렀

으니 안타깝다. 전봉준을 잡아다 바치는 자는 위에 보고를 올려 상을 내리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겠노라'는 것이 효유문의 내용이었다.

동학군에는 별의별 인간들이 다 끼여있다. 모두가 나라를 바로 잡겠다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혼란한 틈에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동학군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돈(상금)이 생기고 벼슬자리를 준다면 무슨 짓이라도 저지를 인간들도 겉으로 보아 가려내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두역시니와 지리산패가 경군을 야습하기 위해 전주성을 비운 사이에 육십사나운 녀석들이 잠들어있는 전봉준의 목을 따고 홍계훈에게 간다면 동학군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만다.

또 성안에 숨어있는 배신자도 경계해야 되지만 민비가 틀림없이 내려보낼 것으로 여겨지는 암살집단도 언제 전주성안으로 스며들지 모를 일이었다.

지난번 소성 삼거리에서 해치운 민비의 갑자대대원들은 하나같이 만만치 않은 적수들이었다. 만약 육십갑자대원의 나머지 40명이 들이닥친다면 전봉준은 물론 두역시니도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다.

이 두 가지 걱정 때문에 두역시니와 지리산패는 전봉준의 길을 떠나지 못해 경군에 대한 야간기습도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

다 잡은 큰 고기를 놓치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왜 꼼짝달싹을 안하지?』

『그러게 말이야. 또 무슨 공공이속이 있는 게 아냐? 혹시 우리의 뒤통수를 치려는 것이 아닌지...』

4월 30일 하루종일 동학군이 성안에서 나오지 않자 다음날인 5월 1일 경군은 영문을 몰라 초조 불안해졌다.

신출귀몰(神出鬼沒=귀신처럼 자유자재로 나타났다 사라졌다함)하는 두역시니와 그가 이끄는 지리산패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모른다는 공포감 이 경군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앗! 나왔다. 나왔다』

완산주봉에서 전주성을 내려다보고 있던 경군들은 전주성 북문을 나선 동학군이 미전교(米廉橋)를 건너 남북 두패로 나뉘어 자기네들을 향해 올라오는 것을 보고 허겁지겁 전투태세에 들어갔다.

두패로 갈라진 동학군의 남쪽 1대는 남교천을 건너 곤지단 서쪽 벼랑의 골짜기에서 공격을 펼치기 시작했다.

또 북쪽 1대는 전주천의 왼쪽언덕에서 완산정을 지나 위봉에 올라갔다.

위봉에 오른 동학군 북쪽 1대는 매곡을 사이에 두고 서쪽의 검두봉에 진을 치고있던 경군을 공격했다.

매곡을 사이에 두고 위봉의 동학군과 검두봉의 경군은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동학군은 등에 총알을 막아준다는 노랑색 종이에 붉은 글을 쓴 부적을 달고 입으로는 설새없이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라는 동학주문을 외우면서 가파른 산정을 향해 올라갔다.

부적을 달고 주문을 외우면 경군이 쓴 총알도 피해간다고 그들은 굳게 믿고있었다. 아니 굳게 믿고 싶어 했었는지 모른다.

동학군은 수백 개의 사다리를 옆에 끼고 하얀 포장을 앞세워 몇십 명씩이 때를 지어 올라갔다.

『저... 저 녀석들이...』

『저놈들은 총알 무서운 줄도 모르나?』

앞장선 몇 명이 경군의 총알을 맞고 쓰러져도 동학군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전진 또 전진을 되풀이했다.

경군은 조금씩 뒤로 밀려나고 있었다. 워낙 기세가 당당한 동학군의 강압적인 공격을 감당 못해 경군은 뒤로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매곡 골짜기에는 동학군과 경군의 시체가 즐비했다. 전주천은 양군이 흘린 피로 냇물이 붉게 변했다.

동학군이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검두봉의 경군은 완전히 패퇴(敗退=전쟁에 지고 물러남)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와이! 와이!』

그러나 이때 완산에 진을 치고 있던 강화군(江華軍)이 급히 산을 내려와 경군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조금만 더 강화군의 지원이 늦었더라면 경군은 또 한차례의 큰 패배를 당할뻔 했으나 겨우 위기를 모면하고 반격에 나설 수 있었다.

『철수하라! 철수하라!』

전세가 역전되자 동학군은 썰물이 빠지듯이 싸움터에서 물러나 전주성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동학군은 경군이라는 큰고기를 다 잡았다가 놓친 셈이었다.

얼르고 뺏치는 초토사 홍계훈

『우르릉!汪!汪!』



5월 2일 날이 밝자 경군은 완산 위에서 쿠르프 야포, 회전식 기관총을 마구 성안에 향해 쏘아댔다.

하지만 포탄과 총탄은 성안에 닿지 않고 서문밖 민가를 맞춰 불태웠고 남문밖 민가를 부수었다.

비록 성안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지만 민심을 흔들어놓고 일부 동학군의 사기를 움츠러들도록 만드는 데에는 효과가 있었다.

『어휴우! 경군이 지니고 있는 최신식 화포(火砲= 화약으로 쏘는 포라는 뜻으로 총포 따위 화기·火器를 이르는 말)가 무섭기는 무섭구먼』

『그러게 말일세. 포탄이나 총탄이 성안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한다?』

『아무래도 끝내는 경군에게 당하고 말 것 같네. 기회를 엿보다가 살길을 찾아야지』

초토사 홍계훈은 집중포화(集中砲火=하나의 목표물이나 특정한 지역에 모든 화력을 집중해서 사격하는 일)로 전주성안의 주민과 동학군을 위협한 뒤 다음과 같은 전령(傳令=전하여 보내는 훈령·訓令이나 고시·告示)을 내걸었다.

『평민들이야 무슨 큰 죄가 있겠는가. 평민들은 협박에 못 이겨 따른 자들이니 각자 주소·성명을 적어 바치고 감영의 하급관들도 역시 목숨을 구하려고 어쩔 수 없이 협력한 자들이니 각기 자신들의 직위를 표시해 본진(本陣)에 와 대령하라』

홍계훈은 한편으로는 무력(武力)으로 위협하고 한편으로 귀순하면 용서해주겠다는 회유책으로 전주성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들려했다.

성밖에 내걸린 이 전령을 성벽 위에서 읽고 난 두역시니가 복면 속이 두 눈에 웃음을 띄며 오른손을 들어올리자 동학군의 일제사격이 불을 뿜었다.

전령을 내걸기 위해 왔던 경군의 군사들은 걸음이나 살려라하고 달아났으며 그 뒤를 성벽 위 동학군들의 웃음이 따랐다. 험레벌떡 도망쳐오는 경군들을 바라보는 초토사 홍계훈의 눈에는 분노의 불이 켜졌다.

『순창과 담양에 전령을 보내 포군(砲軍) 3백 명을 4일까지 급파하도록 일러라. 그리고 각 읍에도 전령을 보내라. 금구는 20명, 태인도 20명, 김제는 30명, 고산도 30명, 익산도 30명, 임실도 30명을 급파하도록 해라』

홍계훈의 지시에 따라 전령들은 각자 말을 타고 순창, 담양, 금구, 태인 등으로 흩어져갔다.

철퇴 휘두르는 소년장사 이복용

『무엇이? 초토사가 증원군 급파를 각 고을에 지시했다고?』

『그렇습니다. 화력(火力)을 강화하기 위해 각 고을

마다 포군(砲軍)을 20~30명씩을 보내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군과 감영군 틈에 잡무(雜夫=여러 가지 잡일을 하는 인부)로 변장해 스며들어가 있던 동학군의 간자(間者=스파이)가 2일 밤 어둠을 틈타 전주성으로 전봉준을 찾아 경군의 움직임을 보고했다.

『그렇다면 각 고을의 증원군이 도착되기 전에 경군과 한바탕 큰 싸움을 벌여야겠군.』

전봉준의 이 말에 복면 군사(軍師) 두역시니가 동의(同意=같은 의견)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잘 들으시오, 오늘 점심밥을 먹고 조금 뜬을 들인 다음에 출격하겠소, 내가 지휘하리다. 소년장사 이복용(李福容)에게 선봉장(先鋒將= 앞장선 군대를 거느리는 장수)을 맡기겠소.』

소년장사 이복용은 14살의 어린 나이에도 힘이 매우 뛰어나 두 손에 철퇴(鐵鎚=끝이 둥그랗고 울퉁불퉁한 길이가 1.8m쯤 되는 쇠못등이)를 휘두르며 적진에 뛰어들어 관군을 마구 흐트러지게 만들어 동학군의 사기를 높여왔다.

그러나 14살 짜리 소년의 힘과 무예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복용은 소년장수로 이름을 떨치게 된 데에는 두역시니의 뒷받침이 컸다.

『으악!』

『아이쿠!』

이복용이 철퇴를 휘두르며 적진에 뛰어들 때마다 관군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것은 철퇴를 맞아 서가 아니라 이복용 뒤에서 직경 2cm 가량 되는 둥근 납덩어리를 던지는 두역시니의 팔매에 맞아 서었다.

전봉준과 두역시니는 경군과 감영군 등 관군에 견주어 무기장비에서 뒤떨어지는 동학군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술수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부적을 등에 붙히고 동학주문을 외우면 총알이 피해간다고 믿게 하고 행군할 때 병사의 어깨에 목말을 탄 어린이의 지휘에 따라 대형(陰形=대의 형태)을 바꾸어 마치 신동(神童=여러가지 지혜와 재주가 담달리 뛰어난 아이)이 동학군을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등이 바로 그런 술수였다.

소년장사를 등장시킨 것도 같은 속셈이었다. 14살의 소년치고는 비교적 몸 움직임이 날쌔고 힘이 센 이복용에게 철퇴 쓰는 법을 가르쳐 앞장세우고 두역시니가 그 뒤에서 번개같은 팔매질로 적군의 미간(眉間=두 눈썹 사이)을 쳐서 쓰러뜨리면서 소년

장사의 신화(神話=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인 사실로 믿고있는 일)를 만들어 나간 것이다.

소년장사 이복용이 등장하면 적군은 사기가 죽고 반면 동학군의 사기는 올랐다. 소년장사 이복용을 앞장세운 동학군은 그날 오후 밀물처럼 북문과 서문을 나와 사마교와 장대보 부근에 있는 비석전에서 멀리 서쪽 최고봉 유연대에 이르기까지 길고 긴 인간사슬이 되어 완산의 경군을 에워싸듯 공격하기 시작했다.



전봉준 다치고 소년장사는 전사

길고 긴 인간사슬인 동학군의 무리가 주문을 외우며 겁없이 진격해오자 경군은 간담이 서늘해졌다.

더구나 선두에는 경군에게도 널리 그 존재가 알려진 소년장사 이복용이 씩씩한 모습으로 철퇴를 휘두르며 쳐들어오고 있어 경군들은 벌써 싸우기 전부터 겁에 질려있었다.

공포감이란 급속히 확산하는 법이다.

몰려오는 동학군의 위세에 눌려 겁이 난 경군의 군사 한 명이 등을 돌려 달아나자 마치 전염이나

된 듯 경군들은 우르르 남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와아! 와아!』

함성을 지르며 추격하는 동학군에게 잡혀 죽을까 봐 경군과 감영군은 죽을힘을 다해 뛰었다.

동학군은 쉽사리 다가산을 점령하고 초토사 홍계훈이 버티고 있는 본영(本營=총지휘관이 있는 군영 軍營)으로 육박해 들어갔다.

황토재에서의 큰 승리, 그리고 황룡촌에서 거둔 빛나는 승리에 이어 동학군은 세 번째로 큰 승리를 차지하게 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홍계훈은 경군이 지니고 있는 최신식 무기를 어떻게 써야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조금 더 기다려라. 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결코 발포(發砲=총포를 쏘는 것)해서는 안되느니라』

홍계훈은 겁에 질린 나머지 아직 사정권(射程圈=사격에서 탄환이 나가는 최대 거리 안쪽)에 들어오기도 전에 동학군을 향해 총쏘는 것을 억누르고 있었다.

고개를 넘어서 탁 트인 곳에 동학군이 모습을 나타냈다.

『아빨사!』

뒤따라오던 두역시니가 절규(絶叫=힘을 다하여 부르

짖음)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사격 개시!』

바로 앞 숲속에서 초토사 홍계훈의 사격명령이 울려 퍼졌다. 산비탈을 오를 때는 뽕뽕이 들어찬 나무들이 동학군의 방패노릇을 해주었으나 고개에 올라서자 앞을 가려주는 나무나 바위가 하나도 없어 동학군은 숲속에서 홍계훈의 사격명령만 기다리고 있던 경군의 총부리 앞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것이다.

직감적으로 사태가 위급(危急=매우 위태롭고 급함)하다는 것을 깨달은 두역시니가 채 후퇴명령을 내리기 전에 경군의 포화(砲火=총포를 쏘 때 일어

나는 불)가 일제히 불을 뿜었다.

『탕! 탕! 탕!』

앞장서있던 동학군이 차례차례 쓰러진다.

『후퇴하라! 후퇴!』

두역시니의 후퇴 명령은 그러나 동학군의 지휘관

아빨사! 이미 때는 늦었다 경군의 기습 포화 속에 가장 큰 패배의 쓰라림을

가운데 한 사람이 김순명(金順明)과 소년장사 이복용의 목숨을 건지지는 못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동학군이 선봉에 섰던 김순명과 이복용은 외마디 비명(悲鳴=몹시 놀라거나 괴롭거나 다급할 때 지르는 소리)만 남기고 쓰러지고 말았다.

전세는 완전히 역전됐다.

경군은 막강한 화력(火力=총포의 위력)으로 동학군을 압도했다.

『옥!』

전봉준이 왼쪽 허벅지를 두손으로 움켜지고 고꾸라진다.

경군이 쏜 총에 맞은 것이다.

번개같이 나타난 두역시니가 쓰러진 전봉준을 낚아채 듯 등에 업고는 바람처럼 산비탈을 달려 내려갔다.

5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동학군은 전주성으로 퇴각했다.

그러나 경군은 그 뒤를 쫓아 추격하지는 못했다.

경군도 홍계훈의 본영까지 달아나는 동안 상당한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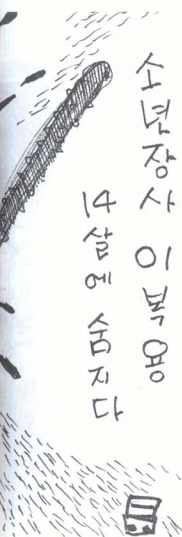
경군의 본영까지 거의 점령할 뻔했던 동학군은 붕괴 이후 가장 큰 패배를 당했다.

배신자들의 처참한 죽음

『아무래도 안되겠어. 경군의 최신식 무기를 당해낼 도리가 없네』

『모젤 소총, 쿠르프 야포, 회전식 기관총 등을 어떻게 구식 화승총이나 죽창으로 대항할 수 있는가』

『이러고 있다가는 우리 모두 경군에게 몰살당할



것 아니겠나』

용장(勇將=용감한 장수) 김순명과 소년장사 이복용이 죽고 총대장 전봉준마저 왼쪽 허벅지를 다치고 나니 전주성안의 동학군은 사기가 뚝 떨어졌다.

사람들의 인심이란 믿을 수가 없다. 황도제 그리고 황룡촌에서 잇따라 관군에게 승리를 거둘 때 만 해도 전봉준을 하늘처럼 떠받들던 동학군 내부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 동학군의 일부 간부와 군사들은 저희들끼리 모여 소곤거리며 앞날을 걱정했다.

『총알을 막아 준다는 부적과 주문도 아무 소용이 없지 않았나』

『맞아 김순명 장수와 소년장사 이복용이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대로 나가다가는 우리 모두가 효수(梟首=죄인의 목을 베어 높이 매달아 본보기로 삼는 것) 당하고 말 것 아닌가』

『왜 아니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아 남을 수 있단 말인가』

부패한 관리들을 몰아내고 백성들이 살기 좋은 올바른 세상을 만들자고 전봉준이 봉기의 깃발을 높이 들었을 때만 해도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고 동학군 대열에 끼여들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겁을 먹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하기야 동학군 토벌에 나선 관군(官軍)인 경군이 나 감영군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의 마음 움직임은 어느 무리나 다를 바가 없는 모양이다.

불안이나 공포에 떠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해도 동학군의 증견간부 가운데는 전봉준을 잡아 관군에게 넘기려는 움직임 마저 있었다.

전주성 안의 목로주점의 으스스한 방구석에 몰려앉아 있던 이리 출신의 쌍돌, 금구 출신의 이무기, 정읍 출신의 살모사, 태인 출신의 쌍칼, 순창 출신의 독고추 등 8명은 모두 그 고장에서 함께나 쓰던 사나이들이며 동학군에서도 그 힘을 인정받아 증견간부로 발탁된 사나이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힘은 있으나 신의(信義=믿음과 의리)는 없다는 점이다.

비수(匕首=날이 썩 날카롭고 짧은 칼)를 두손에 쥐고 번개처럼 휘둘러 사람을 해치는 것이 장기(長技=가장 능한 재주)이기 때문에 쌍칼이라 불리우는 태인 출신의 사나이가 막걸리를 한잔 쭈욱 들이

키더니 입을 연다.

『다른 방법이 없지 않소. 효유문에는 — 전봉준을 잡아다 바치는 자는 위에 보고를 올려 상을 내리고 모든 것을 용서해주겠노라 — 고 되어있지 않소』

성격이 독해서 살모사라 불리우는 정읍출신의 사나이가 이 말을 받는다.

『하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전봉준을 잡거나 죽여서 관에 바치자는 이야기지요?』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대답을 재촉하는 눈초리를 쌍칼에게 보낸다.

『제기랄, 그렇다고 하지 않소』

쌍칼은 이러한 증대 결정을 자기에게만 내리도록 하려는 사나이들의 속셈에 율화가 치민다는 듯 통명스럽게 내뱉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이무기가 고개를 끄덕이며 쌍칼의 제안을 지지했다.

『막상 싸워보니 경군의 최신식 무기는 당하기 힘들다는 것을 모두 깨달았으니 남은 길은 우리가 살아 남고 상금을 타기 위해 전봉준을 잡아 바치는 수밖에 없겠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름 밑에 장군이라고 붙여졌던 전봉준이 이제 이 자리에서 어련히 이름처럼 불리우고 있었다.

『그렇소, 그 길밖에 없겠소』

『가짓껏 모 아니면 도요, 오늘 내일 새에 해치웁시다』

『좋소 우리가 힘을 합치면 어려운 것 없지. 다만 한가지...』

독고추가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다고 말꼬리를 흐렸을 때 뜻밖에도 창밖에서 그 해답이 들려왔다.

『다만 한가지 두역시니가 걸림돌이 될 것 같다는 이 말씀이신가?』

방안에 있던 사나이는 모두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잠시 얼어붙은 듯 꼼짝을 못하다가 이내 걸잡을 수 없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문과 창문을 박차고 밖으



로 뛰어나갔다.

『응!』

비명소리와 함께 우드득 하고 뼈가 부스러지는 소리가 나면서 가장 먼저 방을 나선 쟁돌이 얼굴 모습을 알아볼 수 없는 물골로 마루 밑으로 떨어졌다.

밖밖에 서있던 두역시는 피문은 주먹을 그 다음에 밖으로 나온 이무기의 옆구리 깊숙이 박았다.

『으아아...』



이무기는 천천히 무릎마디를 꺾으면서 넘어졌다. 창문을 박차고 튀어나온 쌍갈은 두손에 비수를 들고 있었으나 족제비의 발이 두차례 허공에 번뜩이자 비수는 쌍갈의 두손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고 이어 족제비의 박치기는 쌍갈의 턱을 깨뜨리고 말았다.

동학군 안에서도 힘깨나 쓴다는 사나이 8명이 무참한 시체로 변하는 데 걸린 시간은 채 2분도 안됐다.

8구의 시체의 목에 손을 갖다대고 모두 맥이 끊어진 것을 확인한 두역시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다른 녀석들도 속마음은 이들과 비슷할 거야. 알

맞는 조건을 달아서 경군과 화약(和約=평화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을 것 같군.』

『지당하신 말씀.』

안주머니에서 수건을 꺼내 손에 문은 피를 닦으면서 족제비도 두령의 의견에 동의했다.

4문으로 나누어 들어온 남사당패

남사당패 40명이 전주성안으로 들어온 것은 전봉준을 배신한 8명의 중견간부가 두역시니와 족제비에 의해 처형된 다음날이었다.

아침식사를 마치고 그날의 작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동학군의 지휘본부인 선화당에 모습을 나타낸 전봉준에게 동문으로부터 보고가 들어왔다.

『장군, 동문으로 남사당패 10명이 들어왔습니다.』

『남사당패? 그것 좋지, 우리 군사들이 좋아하겠구먼.』

전봉준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동학군의 위문거리로 남사당패가 찾아온 것은 잘됐다고 여기고 있었다.

다만 두역시니는 아무말 않고 무엇인가 생각에 잠기는 것 같았다.

얼마되지 않아 남문으로부터 또 보고가 들어왔다.

『남사당패 10명이 남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순간 두역시니의 눈이 번뜻이더니 긴급명령이 떨어졌다.

『서문과 북문을 확인해라. 그 두문으로도 남사당패가 들어왔는지 즉각 확인하라.』

자리에서 휘파람으로 족제비를 불러 손짓으로 대화하는 수화(手話)도 긴급명령을 내렸다.

『지리산패를 긴급소집해서 전봉준 장군의 신변을 경호해라. 서울에서 갑자대원이 내려온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족제비는 자취를 감추었고 얼마 뒤 두역시니는 지리산패가 전봉준 경호(警護=경계하고 보호함)에 들어갔다는 것을 휘파람으로 보고 받았다.

서문과 동문에서 들어온 보고도 각 10명씩의 남사당패가 그 두문을 통해 전주성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었다.

즉각 동학군은 전주성 안을 뒤져 남사당패를 색출(索出=뒤져서 찾아냄)하려했으나 남사당패들이 쓰는 용구만 눈에 띄었을 뿐 그들의 행방은 알 길이 없었다.

<다음호에 계속>

국방부, 전군에 태권무 보급

“장병들 쉽고 재미있게 체력관리”



태권도와 에어로빅을 결합한 태권무 시범행사가 12월 3일 서울 여군학교에서 열렸다.

태권도와 에어로빅을 결합한 태권무가 올해부터 육해공군 장병들에게 보급된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전투체력과 활기찬 병영생활을 위해 태권도와 에어로빅의 장점을 살려 특전사 비호부대가 자체 개발한 태권무를 전장병들에게 보급한다고 밝혔다.

특전사 비호부대는 지난 12월 3일 천용택 국방부장관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주요

증가로 인체에 산소공급량이 증가하여 근육의 수축, 이완을 촉진하는 등 운동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방부에서는 태권무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특전대원들에 의한 태권무 시범을 가진 후 야전부대, 학교기관 등 각급 부대별 태권무 집체교육을 통한 교관을 양성하여 조기에 전군에 보급할 계획이다.

전투체력 향상과 활기찬 병영생활 기대 국방부장관기태권도대회 태권무 경연 도입

지휘관 및 관계관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군학교에서 시범을 가졌다.

이날 선보인 태권무는 경쾌한 음악에 맞춰 태권도의 기본동작과 응용동작에 에어로빅을 가미한 형태로 장병들의 강인한 체력증진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단체생활에 필요한 협동심, 단결심을 배양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태권무는 현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군도수체조보다 심박수 측정결과 폐활량의

또한 부대별 정례적인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부대평가에 반영하는 등 태권무에 대한 붐을 지속적으로 조성, 신바람나는 병영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국방체육정책담당인 김부열 중령은 “신세대 군인들이 태권무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체력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국방부장관기태권도대회부터 태권무 경연이 펼쳐지게 된다.”고 밝혔다.

태권도 산책



故 홍 중 수

KOC 위원
전 국기원 부원장
전 대한태권도협회
상근 부회장

「계간 태권도」가 「월간 태권도」로 탈바꿈한 97년 3월호부터 후진들을 위해 「태권도 산책」을 매호 써주셨던 홍중수 원로가 안타깝게도 타계하심으로 이 연재물은 이번호로 끝을 맺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글은 투병 중에도 홍콩서 원로가 온 힘을 쥐어짜면서 써주신 귀중한 마지막 글입니다. 삼가 거듭 조의를 표합니다.

왕건

이번호에서는 국운(國運=나라의 운명)이 기울어 갈 무렵 후삼국을 전략과 덕(德)으로 통일하고 고구려의 옛땅을 수복(收復=잃었던 땅을 도로 찾음)하고자 힘썼던 고려 태조 왕건(王建)에 대해 알아보자.

왕건의 아버지 용건(龍建)은 도량이 크고 사람됨이 빼어나았다. 한(韓)씨맥 규수를 아내로 맞은 용건은 풍수지리(風水地理=땅의 형세나 방위·方位를 인간의 길흉화복·吉凶禍福에 관련시켜 설명하는 학설)로 이름난 도선(道詵)선사를 만나게 된다. 도선선사는 용건에게 「당신은 반드시 성스러운 아들을 낳을테니 이름을 왕건이라고 지으라」고 당부했다.

서기 876년 왕건이 태어날 때 하늘에서 광채가 뵈어 집안을 비추고 붉은 기운이 들에 가득 하면서 그 모양이 마치 교룡(蛟龍=모양이 뱀과 같고 넓적한 네발이 있다고 믿었던 상상의 동물) 춤을 추듯 했다고 전해진다.

왕건을 하늘이 낸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이야기가 나돌게 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룩한 뒤 약 100년 남짓은 평화로운 시대로 신라문화의 황금기였다.

그러나 귀족들이 왕권(王權=임금의 권력)을 둘러싼 암투(暗鬪=이면에서 드러나지 않게 싸움)를 벌이고 벼슬아치들의 호화로운 생활이 극에 이르게되자 신라는 망국(亡國=나라가 망함)의 비랑으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다.

지방 토호(土豪=그 지방의 토착민으로 세력과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반기(反旗=어떤 체제를 쓰러뜨리기 위해 행동할 때 그 집단의 표시로 내세운 기)를 들었다.

이 가운데 견훤과 궁예가 가장 강성(強盛=세력이 강하고 왕성함)하여 견훤은

전주(全州)에 근거를 두고 광주(光州)와 그 언저리 일대를 공략하여 국호를 후백제라 했고 궁예는 강릉에 근거를 두고 서울 일대를 점령한 뒤 철원(鐵原)에 도읍을 두고 국호를 마진(摩震)이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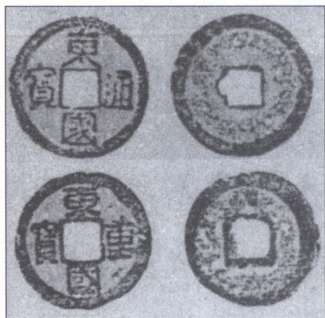
견훤과 궁예는 두사람 모두 거칠고 군주(君主=임금)로서의 덕이 없는 인물들이었다. 궁예는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됨에 따라 점차 교만해지고 포악해져 정신적으로도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서 죄없는 백성들을 마구 다치게하거나 죽이는 만행이 늘어만 갔다.

심지어 왕비마저 의심하여 칼로 베어 죽이니 민심은 완전히 궁예를 떠나고 말았다.

당시 궁예의 밑에 있던 왕건은 싸울 때마다 전공을 세워 벼슬이 높아가고 있었다. 888년 궁예는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의 영토. 덕종때부터 북쪽국경 일대에 장성을 쌓았다. 압록강 어귀에서 시작하여 동해안의 도련포에 이르는 천리장성이다.



▲고려시대에 쓰였던 화폐(돈)

도읍을 송도(松都=지금의 개성)로 옮기고 왕건에게 정기대감(精騎大監)이라는 벼슬을 주니 광주(廣州), 충주, 청주 등 10여 개의 성을 점령했다. 93년에는 왕건이 수군(水軍)을 이끌고 광주(光州)지역을 점령하고 라주(羅州)를 비롯한 많은 성읍(城邑=고을)을 평정하니 무장(武將)으로서 왕건의 이름은 널리 떨치게 됐다.

왕건은 라주 포구에서 수적으로는 열세한 군사들을 이끌고 견훤의 군대와 맞붙자 몸소 칼을 휘두르며 돌격해 들어가 큰 승리를 거두었다.

궁예는 말년에 들어 더욱 거칠고 무도한 생활을 보내면서 의심만 늘어나 죄없는 많은 신하를 고문하면서 죽였다.

이렇게되자 모든 신하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됐고 왕건 역시 언제 매대한 누명을 쓰고 목숨을 잃게될지 모른다고 생각해 언동을 조심하고 있었다.

918년 기병장(騎兵將) 홍유(洪儒)를 비롯한 여러 장수들이 왕건을 찾아와 『폭군 궁예를 쓰러뜨릴 데니 당신께서 왕위에 올라 주시오』라고 간청했다.

왕건이 『신하된 몸으로 도저히 그럴수 없소』라고 일단 거절하자 왕건의 부인 유(柳)씨가 장막속에서 나와 『의(義)로서 포악(暴惡)함을 꾸짖름은 옛부터 있어온 일입니다』라고 손수 갑옷을 왕건에게 입혔다.

장군들이 왕건을 임금으로 추대하자 궁예는 농부로 변장해 도망 갔으나 평강에서 난민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왕건이 포정전(布政殿)에서 즉위하고 국호를 고려, 연호를 천수(天授)로 정하니 그의 나이 42살이었다.

도성을 개경(開京)으로 하고 왕건이 후삼국 통일에 나서니 신라와 후백제의 많은 장수들이 항복해왔다.

이들이 항복해온 것은 왕건의 무력(武力)보다도 그의 인격에 감복(感服=감동하여 진심으로 복종함)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왕건은 통일정책을 밀고나감에 있어 무력과 아울러 유화책(有和策=너그럽게 대하여 화평하게 지내는 방책)을 썼으며 특히 다스림에 있어서 강압보다는 덕치(德治)로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견훤과의 싸움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공산성(公山城)싸움에서 왕건 자신도 목숨을 잃을 뻔 했을 뿐 아니라 개국공신(開國功臣=나라를 세울 때의 공이 큰 신하) 신승겸이 전사했고 의성부성(義城府城)싸움에서는 대장 홍술(洪術)을 잃었다.

그러나 안동(安東) 싸움에서 전세를 만회하여 크게 이길 수 있었다.

이때 신라의 경순왕(敬順王)이 왕건을 초청하여 눈물로서 친교(親交=친밀한 교분)를 당부하니 왕건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에 화답(和答=맞받아 답함)했다.

고구려의 옛 강토 수복과 백성을 다스림에 언제나 덕을 앞세운 임금

단 50기(驕)를 이끌고 신라 서울 경주(慶州)를 예방한 왕건의 겸손함은 경주를 공격하여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른 견훤과 매우 대조를 이루어 민심은 더욱 왕건에게로 쏠렸다.

다음해 견훤이 아들 신검(神劍)에게 쫓겨 왕건에게 구원을 청하니 왕건은 그를 받아들여 후하게 대했다.

대세가 이에 이르자 신라 경순왕은 왕건에게 항복했다. 왕건은 경순왕에게 경주를 식읍(食邑=나라에서 공신 등에게 내리어 그곳의 조세를 개인이 받아 쓰게 하던 고을)으로 주고 편히 살게 해주었다.

왕건은 외적에게 멸망한 발해의 신민(臣民)들을 따듯이 받아들였고 고구려의 옛강토 수복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

또한 백성을 다스림에는 언제나 덕을 앞세운 어진 임금이었다.

이 글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캠퍼스의 무도연구소(소장 민경호 박사)의 양해를 얻어
동 연구소가 수여한 논문집에서 골라내고 있습니다.

태권도와 신체학

그렉 로단

캘리포니아 대학교
무도연구소 연구원

태권도는 인간의 몸 안에서 각기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는 여러 부분들 사이의 상호 작용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 많은 논문들이 대체적으로 태권도의 육체적인 면에 대해서 쓰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다소 짧고 간결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태권도의 열렬한 수련자들이 수련을 하는 동안에 경험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려고 한다.

<이진선 옮김>

인간의 모든 움직임은 근육에서 발생

인간의 모든 움직임은 근육을 사용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근육은 평활근(내장근·smooth), 심근(cardiac), 골격근(striated)이라는 세 가지 상이한 형태를 띠고 있다. 여기서는 신체의 움직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줄무늬 근, 즉 골격근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밧줄처럼 골격근은 건(腱)이라고 불리는 연결 조직으로 말단까지 이어진 섬유질로 구성되어 있다.

골격근은 뼈에 붙어서 뼈의 움직임을 통제한다. 섬유질은 각각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포들은 근육이 움직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의 저장소로 작용하거나 근육군(群)이 수축하도록 세포들끼리 상호 작용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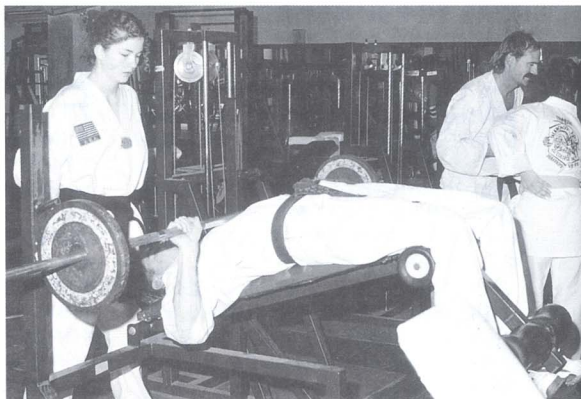
이러한 골격근육군(筋肉群)을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힘과 인내력을 혼합시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 다루될 첫번째 주제는 힘이다.

과부하 원리가 힘 길러줘

웨이트 트레이닝은 근육의 힘을 기르기에 최상의 방법이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과부하(過負荷) 원리라고 알려진 저항을 이용하는 훈련 방법인데, 과부하의 원리란 근육이나 근육군에 지나치게 부담이 가해졌을 때 근육의 힘이 길러지는

원리이다. 근육 세포들은 이 부담에 저항을 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섬유를 만들고 근육을 크게 한다. 또 새로운 모세혈관이 형성되어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섬유 조직에 영양분을 공급한다.

힘을 기르기는 데 효과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동안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근육의 피로를 이겨



▲근육군을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힘과 인내력을 혼합시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내기 위하여, 큰 근육군을 더 작은 근육군으로만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근육의 피로는 더 작은 근육군이 더 큰 근육군으로 되기 전에 피곤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거의 반복 동작



▲유연성은 태권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스트레칭을 할 때, 힘차고 재빠르게 하기 보다는 천천히 오랜시간에 걸쳐서 몸을 펴는 것이 좋다.

없이 무거운 도구를 사용하면 근육의 수와 힘을 기를 수 있다. 반면 가벼운 도구를 사용하여 여러 번 반복하면 근육의 지구력이 증가된다.

충분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웨이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저항력을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짜야 한다. 주 3회면 적당한 근육과 근육의 힘을 개발시키는 데 충분하다. 웨이트 트레이닝 시에

는 이론이다. 통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에 다루기로 하자.

근육의 화학 작용을 활성화시키는 데 소요되는 에너지는 글리코겐, 글루코즈(포도당)의 저장체, 글리코겐의 분해에 따른 부수 물질인 젖산의 관계에 의해 발생한다. 태권도에서는 신속한 고강도(高强度)의 발차기, 방어, 팔지르기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효과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힘 기르기 스트레칭은 천천히, 장시간 동안 실시

는 태권도의 동작과 여러 기술을 흉내내면서 스포츠에 사용되는 근육군에 집중하면 좋다.

웨이트 트레이닝의 속도는 실제로 스포츠를 할 때의 속도와 같거나 그 보다 빨라야 한다. 여러 연구에서 움직임의 속도는 근육이 발달되면 늦어지기 보다는 빨라진다는 사실이 발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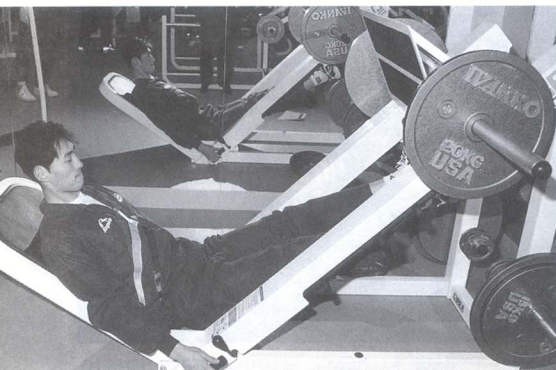
근육통은 태권도와 마찬가지로 웨이트 트레이닝에서도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다.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는 근육 섬유에 찢어짐, 경련 이론, 과도한 움직임, 연결 조직 손상 등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이러한 대부분의 이론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중 경련 이론이란 것은 근육 섬유에 피의 공급이 충분하지 못해서 통증이 발생한다

글리코겐과 젖산의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글리코겐은 근육이 활동하게끔 하는 에너지 공급원이다. 근육군은 활동을 위해 글리코겐을 비축해 놓는 저장고를 가지고 있다.

근육이 활동을 하면 글루코겐은 분해되어 젖산을 형성한다. 근육에서 글루코겐이 감소하면서 젖산의 공급이 증가하면 근육은 피로를 느끼게 된다. 그러나 젖산(유산)의 축적 중 화학 분해 작용을 뒤집어서 다시 글리코겐으로 만드는 성질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를 "두번째 바람"을 얻기 위해서라고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 작용에 의해서 생산된 주된 물질은 물과 이산화탄소이다. 대부분의 글리코겐은 처음 10시간



▲웨이트 트레이닝은 근육의 힘을 기르는 최상의 방법이다. 충분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저항력을 늘려나간다.

동안의 회복 과정을 거친 후, 50시간이 지난 후에야 채워질 정도의 양을 공급 받는다.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신체를 격렬하게 움직인 후에 가볍게(마무리 운동 같은) 운동을 하면 움직이지 않고 휴식을 취할 때보다 젖산이 훨씬 빨리 사라진다고 발표하였다. 운동을 한 후의 회복 기간 동안의 에너지 변화와 에너지 활동은 운동하는 동안의 에너지 변화와 에너지 활동과 똑같이 중요하다.

유연성은 태권도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유연성은 다음의 세가지 요인에 좌우된다.

(1)관절 구조 : 근육군의 이완 능력은 관절의 물리적 구조에 의해 제한된다. 예를 들자면, 팔꿈치 근육은 뒤로 굽힐 수 없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팔꿈치를 뒤로 굽힐 수 없다.

(2)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덩어리 : 배가 너무 나오지만 않으면, 구부려서 발가락에 닿는 능력에서 이것의 예를 찾을 수 있다.

(3)근육 조직과 건(腱)의 신장성(伸張性) : 근육과 건은 각기 한계를 가진다.

스트레칭을 할 때, 힘차고 재빠르게 하기보다는 천천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몸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 힘차고 빠른 스트레칭은 근육을 찢다기보다

는 근육을 수축시키는 반응 장치로 작용한다. 근육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을 하면 좋다.

운동에 필요한 영양

글리코겐 축적이라 불리는 과정에 의해 글리코겐 저장¹이 증가될 수 있다. 이 축적 과정은 강도 높은 운동을 한 후에 근육에 글루코겐의 공급이 부족하게 되어 고당질(高糖質) 음식을 통해 당질 식품을 소비해버린 글루코즈(포도당)나 글리코겐으로 전환시키려는 행위와 관련이 있다.

적당한 글리코겐 저장을 위해서 대략 55%를 당질(탄수화물)로 섭취하는 식사가 뒤따라야 한다. 지방(fat)은 유용하면서 필수적인 에너지원의 하나이지만 주

요 에너지원이 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신체가 지방을 신진 대사시키는 것이 당질보다 더 힘들기 때문이다. 아무튼 근육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저장 글리코겐의 감소를 막으려면 지방의 신진 대사가 증가한다. 달리 말하면, 길고 강도 높은 운동 도중에 글리코겐의 공급이 충분하다고 할지라도 지방은 글리코겐과 마찬가지로 신진 대사 작용으로 변환된다.

적은 양(10~15%)의 단백질이면 인간의 신체를 유지하는 데 충분하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과잉 섭취된 양의 단백질은 더 큰 근육을 형성하지도 않고 많은 양의 에너지를 공급하지도 않는다. 신체는 어느 정도의 글리코겐과 단백질을 신진 대사시킨다. 과잉 된 단백질은 지방으로 전환된다. 비타민과 무기질의 과도한 섭취가 강한 몸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는 또 다른 잘못된 생각이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몸은 필요한만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버린다. 그러나 비타민의 경우에 있어서 쓰고 남은 잉여분을 모두 버리지는 않는다. 비타민 A, D, E, K와 같은 비타민은 몸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지방 세포에 축적된다. 이런 비타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몸에 이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격렬한 운동 다음에 하는 식사는 매우 중요하다.

1. 영양소 중 당질에 속하는 글리코겐(glycogen)은 다당류의 일종으로 동물의 몸속에 저장된 잠재 에너지원이다. 간에 300g, 근육에 150g까지 저장된다. 이 저장된 글리코겐은 외부로부터의 음식을 섭취가 없으면 12시간 정도 에너지로 전환되어 사용된다. [역자주]

앞서 말했듯이 운동을 하기 전 4일에 3일 이상의 고당질 식사는 근육군에 대량의 글리코겐을 공급한다. 이 점에 덧붙여 운동을 하기 전의 식사는 포만감을 일으켜 행동을 지장을 일으키지 않도록 가볍게 하는 것이 좋다. 흔히 에너지 촉진제로 인식되고 있는 글루코즈(포도당)를 운동 하기 전에 다량 섭취하면, 글리코겐 소비를 과도하게 촉진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방해물로 작용한다.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설탕처럼 글루코즈 함유율이 높은 식품보다는 글루코즈가 물과 섞여 들어있는, 즉 희석된 형태의 음식물 섭취가 바람직하다. 희석된 과일 주스는 격렬한 움직임 동안에 소실된 체액과 전해질을 보충하는 데 좋은 갈증 해소 음료가 된다.

격렬한 운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물질은 수분이다. 물은 많은 영양소를 근육에 공급해주는 통로이다. 스포츠 음료, 과일 주스 등은 뜻할 때보다는 시원할 때 훨씬 효과가 좋고, 수분을 많이 함유하여 희석되어 있을 때 훨씬 효과가 뛰어나서 글루코즈(포도당)와 다른 필수 전해물질의 신체 흡수를 증진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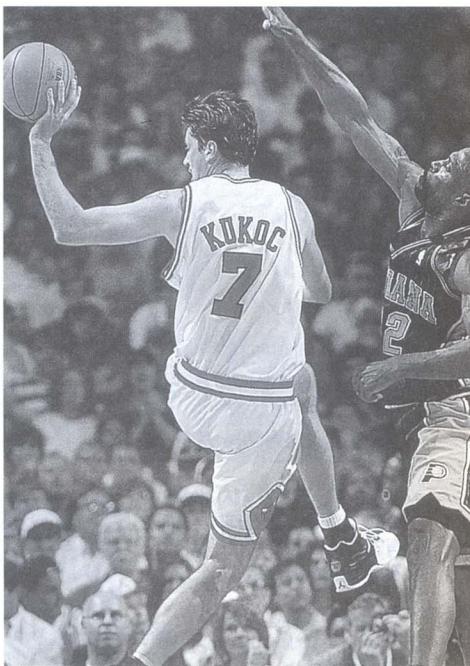
통증은 몸을 보호하라는 경고

통증은 몸을 보호하라는 경고이며 다각도로 나타날 수 있다.(예를 들면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심리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신체는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열돌핀을 생성해 낸다. 운동을 통해 통증을 이겨내려는 인간의 인내력을 기를 수 있다. 카페인과 니코틴의 사용은 통증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줄이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무리 운동과 마찬가지로 준비 운동은 격렬한 운동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통증 방지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 운동, 마무리 운동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부상이 생긴다면 상체 부위를 쉬게 하거나, 얼음 찜질을 하거나 압박 붕대로 고정하거나, 가능한 부상을 입은 사지(팔, 다리)를 위로 들어올리는 것이 고통 해소에 도움이 된다. 물론 아스피린이나 다른 진통제 섭취도 근육이나 관절의 염증을 감소시킨다.

과학적인 훈련의 효과

현대의 과학 기술은 스포츠 훈련을 연구하는 과학



▲운동하기 전에는 가볍게 식사를 하는 것이 좋고 격렬한 운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물질은 수분이다. 몸의 회복을 위해 휴식도 중요하다.

을 크게 발전시켜 왔다. 여러 연구에서 한가지 스포츠만 하는 운동은 특정한 근육군만을 집중적으로 개발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크로스 트레이닝(cross training)이 완전한 운동을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휴식도 중요하다. 움직임의 양에 맞춰서 빠르게 글리코겐을 대체시키는 신체의 능력 이상으로 지나치게 훈련을 하면 글리코겐 저장고를 고갈시킬 수 있다. 나이가 적든 많든, 모든 연령대의 인간은 훈련을 하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인간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비활동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스포츠에 대한 열정으로 활동을 즐기게 되면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보상을 얻게 된다.

〈다음호에 계속〉



올 바 른 심판의 조건

(제 8회)

심판 뿐만 아니라 선수, 코치에게도 도움되는 시리즈

팀워크

심판은 메세지를 보낼 때 선수, 코치, 관중들과 보다 건설적이고 즐겁게 의사소통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심판요원들은 서로가 효과적인 의사소

통을 위해 팀워크를 이루어야 하는데 팀워크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집단을 가장 수준높은 단계로 이끌어 올리는 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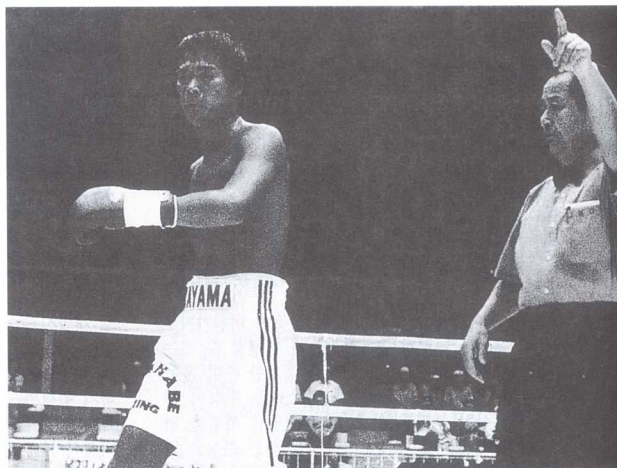
「Referee」 잡지가 제시하는 선수들, 코치들, 관중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심판의 자세는 다음과 같다.

1. 고개를 똑바로 들라

당신이 심판복을 입었다고 해서 관중들로부터 오는 비난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라. 복장은 심판 보기의 일부분일 뿐이다. 심판들은 심판복장이 주는 이득을 얼마만큼 취해야 할지를 알고 있다. 언제 찬스를 잡아야 할 것인가 그 한 가지만을 생각하라.

2. 완강한 사람이 되지 말라

코치가 당신 등뒤에 있지만 반칙을 경고할 만큼 가까이 있지는 않다면 그 또는 그녀로부터 떨어져라. 타임 아웃 동안에는 더 그렇다. 단지 그를 보기 위해 별로 기분이 안좋은 코치 가까이 서있는 것은 긴장만 더 강화할 뿐이다. 어떤 심판들은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그들 중 한명이 되지 말라.



▲심판은 고개를 똑바로 들고 확신을 갖고 정확한 언어로 판정을 내려야 한다.

3. 소리치지 말라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소리치는 게 싫다면 당신도 누구에게 소리치지 말라. 보통의 편안한 목소리로 확신있게 하라. 이 기술은 압력을 줄이는 데 도움

을 줄 것이다. 소리치는 것은 개인 자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경기에서도 조절능력이 떨어짐을 보여 주는 것이다.

4. 확신을 보여라

자만심은 심판보는 데 있어 절대 금물이다. 당신은 확신을 나타내고자 원한다. 당신은 관중들이 당신에게 존경을 표하기를 원한다.

어떠한 걸음걸이나 등장, 매너, 목소리는 당신이 어떻게 받아들여 지는가를 결정한다. 더 나은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 노력하라.

5. 팬들을 잊어라

그룹으로서의 팬들은 심판에게 적대적인 속에서 보통 상당히 감정적인 편파성과 선호도를 보이는 데,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팬들을 무시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게임을 방해하거나 당신이 심판보는 일에 지장을 줄 것이다.

6. 합리적 질문에는 대답하라

코치와 선수들을 우호적인 방법으로 다뤄라. 만약 그들이 합리적으로 질문해 온다면 정중하게 대답하라. 만일 그들이 '여보쇼 뭐 좀 말할 게 있소'라고 귀에 대고 말하려 하면 대화를 중단하고 그들에게 토론의 이유를 상기시키라. 확고하게, 그러나 여유있게.

7. 단어를 현명하게 선택하라

코치나 선수들을 불쾌한 말로 위협하지 말라. 이는 그들을 방어적으로 만들 뿐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 자신이 궁지에 몰린다는 것이다. 만약 상황이 경고를 선언할 만큼 충분히 심각하다고 느낀다면 반칙을 선언하기에 충분하다. 위협적인 자국없이도 명백히 당신이 말한 것들은 위협의 효과를 낼 것이다. 보다 나은 단어의 사용은 상황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8. 냉정을 유지하라

당신의 목적은 게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용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신경질적이거나 날카로운



▲심판은 냉정을 유지하며 게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심판은 팬, 코치, 선수들에 의해 욕을 먹기 쉽다. 게걸스럽게 겁을 썴거나 주변을 어슬렁거리거나 게임 내내 감정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것은 당신을 압력에 대해 공격받기 쉽게 한다.

※ 인용 : '심판 체크 리스트' p58, B. Mano 著 · 1986. 10

협력하는 심판들

심판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러운 경험들 중 하나는 결집성이 있는 단체로서 화합하고 함께 일하는 팀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농구에서 3명의 요원이나 축구에서의 7명의 팀은 각 개인이 그 혹은 그녀의 심판 목표를 달성하면서 일체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해야 한다. 상호간의 존경, 신뢰, 수용, 우정, 그리고 용기는 심판 요원들 서로가 의사소통이 잘 될 때만이 발전될 수 있다.

협력자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한 단계들

경기장에서, 혹은 사회적 모임(eg, 심판협의회, 모임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은 의사소통을 증대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열린 의사소통을 확립하는 것이다.

올바른 심판의 조건



▲태권도 경기에서 심판원들이 모여 판결을 논의하고 있다. 심판원들은 존경, 신뢰, 우정, 용기를 갖고 서로가 의사소통을 해야만 효과적인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유형의 상호작용은 당신의 동료들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한다.

다음은 당신이 맺는 관계들 사이의 개방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몇가지 제안들이다.

- 팀의 다른 구성원들과 알고 지낸다.
- 말대답을 피한다.
- 다른 이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한다.
- 서로 격려한다.
- 당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 협력자들에게 피드백을 줄 때 정직하게 한다.
- 당신의 권위와 전문성을 나눈다.
- 다른 이로부터 조언과 협조를 구한다

협력자들 사이에서의 일관성

일관성은 효과적으로 심판을 보기 위한 중요한 자질이다.

각 요원들 내부에서도 심판 작업은 일관적이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팀워크가 필요하다. 심판들 사이의 팀워크의 정도는 스포츠마다 다양하다. 몇몇 종목들은 규정을 통해 심판이 얼마나 많이, 언제, 누구와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가를 명시하고 있다. 어떤 스포츠에서 심판은 특별한 의무를 가지기

도 하며 자신의 의무에 제한을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배구에서 라인을 선언한 후에는 당신은 오직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만 신호하고 선수들을 불러낼 수 있다. 이런 의무를 가진 심판들은 이런 특수한 의무들로 인해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다이빙, 체조, 아이스 스케이팅같은 경기의 독립심판이라면 다른 심판들과 협조할 수 있다. 당신의 순위매김은 이러한 다른 심판들의 것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매긴 점수가 다른 동료들의 것과 늘 다르다면 당신의 능력은 선수나 코치, 관중들과 다른 심판들 사이에서 의심받게 될 것이다.

반면에 다른 종목들은 제한으로부터 보다 자유롭고 심판 팀원들 사이에서

의 상호작용이 훨씬 자유롭다. 축구경기에서 각 심판은 특정한 의무상황 아래서 경기를 시작한다. 일단 당신이 당신의 일을 마치면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정구 심판들은 특정한 임무를 갖고 있지만 plate 심판이 첫 번째나 세 번째 base 심판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팀 심판들간의 최선의 상호작용은 당신과 당신 동료가 아래와 같이 행동할 때만 가능하다.

*그들의 명령과 행동들을 보조함으로써 다른 심판들의 능력에 확신감을 증명하고

*경기전 훈련, 경기, 그리고 경기후 계획을 개발할 때 함께 함으로써 팀의 사고방식을 소중히 할 때

일체로서 의사소통하는 것

심판팀 멤버나 요원들 사이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늘 쉬운 것은 아니다. 전 시즌동안 함께 일한 요원은 심판들이 연장 타임을 위해 함께 할 경우, 친밀한 관계에 이르게 될 경우, 서로간에 기술상의 강점과 약점을 보완해 줄 경우, 그리고 어떻게 다른 이들과 의사소통하는지를 배울 때 도움을 받는다. 전미 풋볼리그(NFL)심판 Jerry Markbriet의 말에 따르면 '만약 당신이 동료들과 친밀한 가족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들

은 현장에서 더 잘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두가 좋은 친구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마찰이 없다'는 것.

그러나 때로 경기 내내 함께 일하는 것이 심판들 끼리는 성격의 차이에 따른 갈등이 있을 수 있다. Mendy Rudolph 전 NBA 심판은 시즌동안 함께 일하는 season-long pairing 시스템의 함정에 대해 언급했다. '만약 당신이 나쁜 습관을 갖고 있다면, 결코 스스로 그것을 깨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늘 같은 사람과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과 잘 지내지 못한다면 거기서 상당히 많은 갈등을 겪을 각오를 해야 한다.'

남성과 여성들은 점점 빈번히 같은 심판팀에서 일하게 된다. 이 상황은 심판들의 의사소통에 부가적인 문제들을 초래한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스포츠에 보다 많이 관심이 있다. 그들은 때



▲선수들 사이에서 심판을 보고 있는 심판원은 감정적인 편파성과 선호도를 보이는 팬들을 잊는 것이 좋다.

제하는 것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그런 부정적인 상황의 가능성을 피하려 한다. 그러나 이런 행동들을 여성이 보여주는 남성이 보여주는 간에 그것은 심판 전체가 다른 사람과 선수, 코치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가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모든 스포츠는 심판들간의 팀워크가 절대 요구 원활한 의사소통이 수준높은 단계 가능케해

로 (비록 그렇지 않을 때라도) 여성 협력자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고 모임과 게임 상황들을 지시하고 조절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만약 남성 심판이 여성 동료에게 그녀의 위치나 게임 운영의 요령에 대해 강압적으로 얘기한다면 여성 심판은 의심할 것도 없이 그의 지시를 거절할 것이다. 이런 유형의 의사소통은 긴장을 유발하고 효과적인 팀워크를 요구하는 경기에 방해가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심판의 자질이다. 일부 여성심판들은 권위적인 접근을 통해 상황을 통

프로 스포츠, 대학연합, 고등학교, 그리고 오락 수준의 여러 스포츠는 심판들간의 팀워크를 요구한다.

그리고 팀워크는 심판 팀 멤버들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필요로 한다. 그들의 성격은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하고, 심판 스타일은 상호보완적이어야 하며 파트너들은 서로의 이해와 요구에 민감해야 한다. 당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 집단을 위한 가장 수준높은 단계를 가능케하는 분위기속에서 심판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전문가가 지도하는

태권도를 위한

시범 : 이 호 열
(태권도 공인 7단 / 국기원 심사위원)



지도 : 박영철

'76 미스터 코리아
'82, '86, '88 미스터 아시아
'88 미스터 유니버스 3위
'89 월드컵임 2위
하이아트호텔 체력관리센터 부장

웨이트 트레이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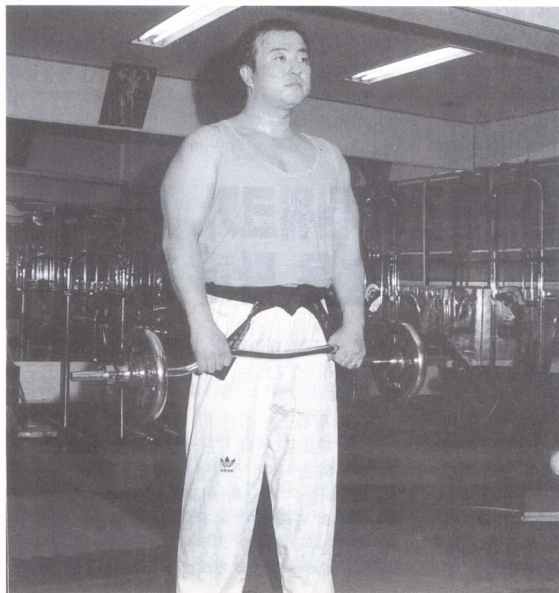
웨

이트 트레이닝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려면 큰 근육에서 작은근육 순서로, 또 많은 무게를 사용하는 운동으로부터 적은 무

게를 사용하는 순서로 실시하는 것이 근육에 자극을 보다 효과적으로 줄 수 있다.

바벨 리버스 컬

E-Z BAR REVERSE GRIP CURL



【 자세 】

- ① 발을 어깨넓이로 벌리고 서서 이지바(E-Z BAR)를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도록 어깨넓이 정도 잡는다.
- ② 무릎을 살짝 구부린다.
- ③ 양쪽의 팔꿈치를 몸 옆구리에 붙히도록 한다.

【 동작 】

- ① 양쪽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바를 어깨높이까지 들어 올린다.
- ② 팔꿈치를 펴면서 바를 천천히 시작했던 위치로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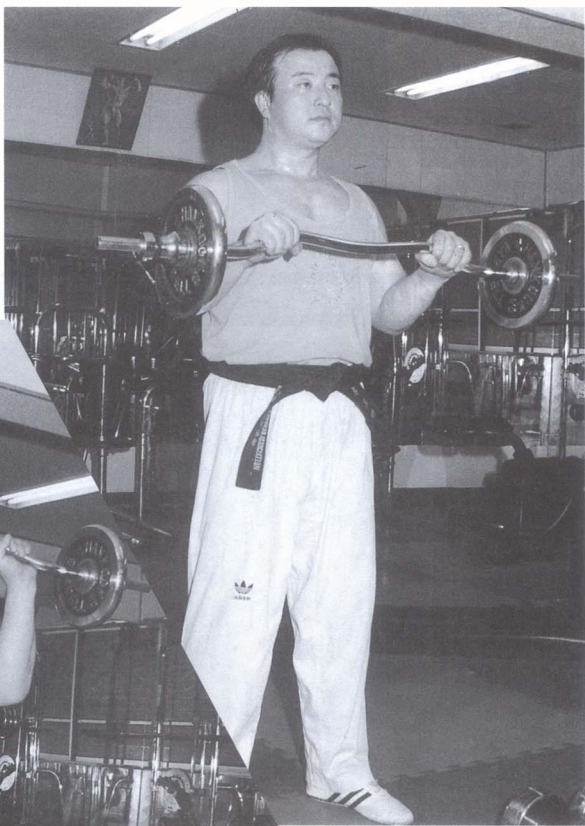
【 호흡 】

코로 호흡을 들여마시며

이지바를 들어 올리며,
입으로 내뿜으면서 이
지바를 천천히 내린다.

【 적정무게와 반복횟수 】

팔꿈치가 옆구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10번 정도 할 수 있는 무게를 선택한다.

【 주의점 】

- ① 팔꿈치를 항상 몸 옆구리에 대고서 실시한다.
- ② 상체가 지나치게 앞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 ③ 운동 중 손목을 위쪽이나 아

래쪽으로 구부리지 않고 똑바로 유지한다.

【용용동작】

① 이자바(E-Z BAR) 대신 일직선으로 된 스트레이트 바(STRAIGHT BAR) 또는 아령, 혹은 케이블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 운동 중에 손목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발달 근육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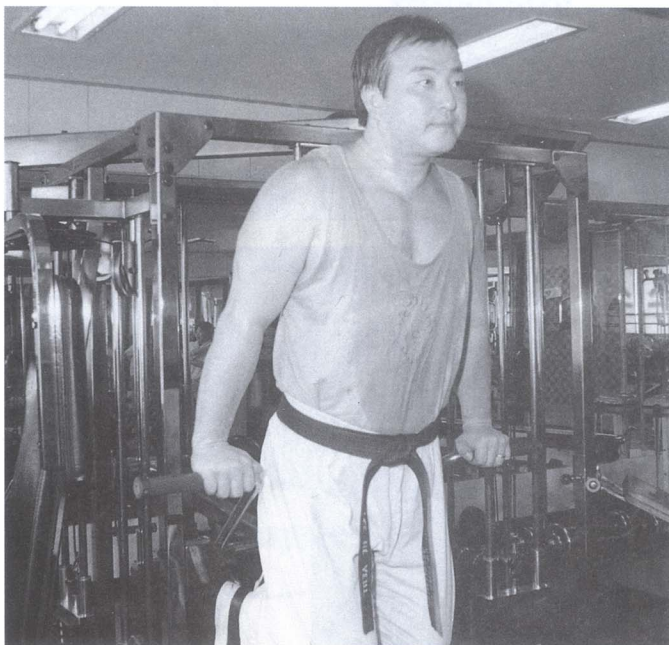
- 이두근 (바깥쪽)
- 전완근 (신근)

【발달시키는 동작】

- 내려뜨린 팔의 상태에서 편치를 날리는 준비동작의 민첩성 강화
- 뻗은 팔을 원위치 시키는 동작의 스피드 강화

평행봉에서 팔굽혀 펴기

DIPS



- ② 양팔로 몸을 공중에 띄우고, 무릎 아래쪽 다리를 교차시킨다.
- ③ 얼굴은 정면을 응시하도록 한다.

【동작】

- ①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몸을 아래쪽으로 서서히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내린다.
- ② 팔꿈치가 거의 곧게 퍼질때까지 상체를 위로 들어 올린다.

【호흡】

코로 호흡을 들며마시며 팔꿈치를 구부렸다가 입으로 내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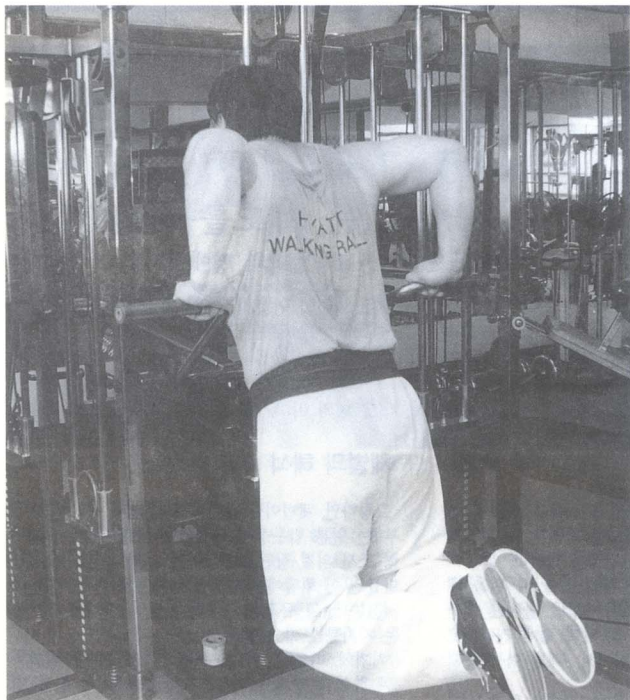
【자세】

① 평행봉에 양손의 손바닥을 대고 엄지 손가락은 봉 안쪽에 네개의 손가락은 바깥쪽으로 오도록 봉의 끝을 잡는다.

으면서 팔을 펴 상체를 들어 올린다.

【주의점】

- ① 팔꿈치를 구부릴 때 옆구리쪽으로 볼도록 한



기 쉽다.

【용용 동작】

① 운동을 실시할 때 팔꿈치를 몸 바깥쪽으로 구부리고 구부러진 아래쪽 다리를 몸 앞으로 내밀면 삼두근 보다는 대흉근에 자극을 더 줄 수 있다.

② 팔힘이 부족하여 상기운동을 실시하기 어렵거나, 몇번 더 할 수 있는 의욕이 있다면, 팔꿈치를 구부려 신체를 내려뜨리는 동작만을 실시하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발달 근육】

- 삼두근
- 삼각근
- 대흉근

다.

② 몸이 앞뒤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③ 팔꿈치를 구부려 몸이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너무 빨리 실시하면 어깨부위나 팔꿈치에 부상을 입

【발달시키는 동작】

- 편지력과 격파력의 강화

트레이닝
도움말

웨이트 트레이닝을 위한 식사

영양학자들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근육운동을 하는 웨이트 트레이너와 보디빌더에게 탄수화물을 65%, 단백질을 15%, 그리고 지방의 섭취를 전체에너지 섭취 중에서도 20%로 권하고 있다.

이것은 효과적인 운동을 위해서는 많은 양

의 좋은 탄수화물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며 너무 많은 단백질과 지방의 섭취는 효과적인 운동을 방해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탄수화물은 바로 에너지가 되어 많은 운동량을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단백질은 근육을 형성하는 데 필요하다.



스포츠지도와 체벌의 관계

체벌이란 무엇인가, 체벌 없는 지도를 위한 제안

사카모토 히데오 (坂本秀夫 · 일본교육법학회 명예이사)

학교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체벌은 인권침해이며 법률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다른 한 쪽에서는 교육에는 사랑의 매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번 호에서는 이미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일본에서

현재 체벌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체벌이 가장 많은 체육·스포츠활동을 중심으로 알아 보고자 한다. 체벌·징계에 대해 연구하는 사카모토 히데오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자.

교육개혁과 체벌

2차대전 이전 일본의 교육은 아이들을 가르쳐 선(善)으로 이끌어 간다는 교화주의(敎化主義)가 강했으며 그 배후에는 권력과 강제가 있었다.

그 때문에 징계(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벌을 내림)를 할 때, 몸으로 움직이며 '힘'을 들어서 깨닫고 익히는 것이 말로 하는 것 보다 쉽게 전달되고 그 효과도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체벌'이 사용되었다.

물론 그 당시 교사들에게 학생에 대한 애정의 마음으로 같이 울면서 어쩔 수 없이 때리는, 전형적인 사랑의 매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후, 교육개혁에 의해 '교육은 어린이를 한사람의 인격체로 키우고 학습시키는 것'이라고 교육이념이 변하면서 어린이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받고 학습할 권리를 인정받았다.

즉 어린이에게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어른은 그것을 충족시켜줄 의무가 있다. 결국 교사는 '교화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권리를 위한 교육'을 하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그 동안 교육의 중심이 되었던 '징계·체벌' 중 체벌이 법으로 금지되었다. (학교 교육법 제 11조).

실제적으로는 그 전에도 체벌은 금지되어 왔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부모가 하는 정도의 체벌은 체벌이 아니라는 식으로 묵인되어 왔던 것이 교사는 '절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체벌의 해석

그렇다면, 체벌이란 대체 무엇인가.

이는 일본 법무성에서 체벌에 대해 내놓은 <법무성 조사 의견 장관 회답>에 잘 나타나 있다. 1947년 발표된 이 회답에는 체벌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제시했는데, 그 규정은 문부성은 물론 학회에서든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다.

거기에 따르면, 학교교육법 제 11조에서 말하는 '체벌'이란 징계의 내용을 신체적 성질에 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신체적 침해에 의한 징계(때리거나 차는 행위), 또 하나는 신체적 침해는 없으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징계(장시간 꿏어앉히거나 세워두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체벌이라 하며, 법률로 금지한다는 해석을 달았던 것이다.

또 체벌에 관한 재판의 판결에서,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은 본질적으로 차이점이 있으므로 부모로서는 인정되는 정도의 체벌이라도 교사에게는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같은 내용의 고등법원 판결이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그 이후 체벌사건으로 재판을 하게 되면 거의 교사에게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다.

체벌이 금지된 이유

앞의 법무성 견해를 개인적으로는 조금 다른 해석을 내리고 싶다.



▲교육자(지도자)는 어린이의 자긍심과 이성, 자유를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교육이 출발한다는 것을 알고 지도해야 한다.

‘이성’과 ‘자긍심’

먼저 왜 ‘체벌’이 금지되어야 하나 하는 논리부터 밝히겠다. 체벌을 정계의 한 종류로 보고 부정적인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 한다면, 우선 그 학생의 ‘이성’을 자극시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나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기해야 한다. 그래서 아이 스스로 좀더 성숙한 사고를 하며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일을 저질렀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충분히 반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즉 ‘자긍심’에 호소하는 것이다.

체벌을 이성을 마비시켜버린다.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 학생은 공포로 사고할 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는 것조차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공포에 질려버리는 것이다.

또 체벌은 인간적 자긍심에 상처를 입힌다. 얻어맞는다는 그 자체가 모욕이며, 특히 많은 사람 앞에서 머리를 맞게 되면 그 이상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행위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체벌은 학생이 바르게 커나가기 위해 기본이 될 수 있는 이성과 자긍심을 교사에 의해 파괴당하는 반(反)교육적인 정계임을 알 수 있다. 교사는 학생의 학습을 지도하고 발달시킬 임무는 있지만 그 기회를 파괴할 권리는 없다.

그것이 바로 체벌이 법률로 금지되어야 하는 나 나름의 해석이다.

교사는 흔히 ‘또 네 녀석이나? 뻔하지, 넌 구제불

능이야’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러면 학생은 ‘그래, 어차피 난 찍혔으니까. 까짓 것 또 해볼까’하고 생각하게 된다. ‘비행학생’이란 꼬리표를 다는 것은 비행을 저지를 권리를 부여하는 것과 같다. 즉 문제학생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교사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도 체벌은 절대 있을 수 없는 행위이다.

‘사랑의 매’는 있을 수 없다

일본의 전통에 ‘사랑의 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폭력을 사용해 이성을 바로잡겠다는 데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성은 따뜻하게 타이르는 교사의 말이나 자긍심을 일깨워 줌으로서 깨우치게 되는 것이지, 때린다고 해서 깨닫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런 이성이 있었다면 정신은 폭력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정신이 폭력을 지배하는 한 폭력에 의해 정신이 깨닫게 될 리가 없다. 교육자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체벌로 정신을 차렸다는 사람도 꽤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 교사를 학생들이 좋아하고 존경했으며, 학생 스스로도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이다.

즉 체벌을 행할 때 교사의 말, 표정, 눈물에 감동을 받은 것이지, 결코 체벌 자체가 효과를 거둬 정신을 차린 것으로 볼 수 없다.



힘에 의한 제압의 한계

더욱이 체벌은 상대가 약하고 절대 반격해 오지 않으리라 무의식중에 전제하고 행하는 비열한 행위이다. 교내폭력이 만연했을 무렵, 폭력학생의 다수가 1학년 때 체벌을 당했다고 한다. 그러나 3학년이 되어 몸집이 커지고 힘이 세어지면 나쁜 것을 저질러도 교사는 묵인한다. 그래서 더더욱 교사를 불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체벌을 계속 받다보면 좀 얻어맞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인간이 된다. 체벌의 한계가 바로 거기에 있다. 비행학생이 많은 학교의 교사일수록 점잖다(?)고 하는데, 그것은 학생이 계속되는 체벌에 만성이 되어 이제는 체벌에 꿈쩍도 않고 오히려 교사가 얻어맞을지도 모르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결국 체벌하는 교사도, 당하는 학생도 체벌에 의해 사고하는 습관이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만다. 체벌은 말로 설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손을 대는 것인데, '말'을 업으로 삼고 있는 교사가 말로 학생을 설득하지 못한다는 것은 직업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잃어버린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교사로서 실격이다.

타인의 인격침해에는 징계가 필요

전후 한동안 징계에 대해 처벌하지 않고 묵인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교육이란 지적인 이성에 의해 인간을 향상시키는 것이므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물론 이성에 호소해서 이해를 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폭력이나 괴롭힘,

절도, 협박 같은 행위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학생들 사이에 이런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면 교사는 즉각 강제로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 어린이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규제는 법적으로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단순히 배제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지도를 해야 한다.

법원칙에 위반되는 체벌

또 한가지 덧붙이자면 법률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인권보장 차원에서 인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그것을 나는 법원칙(法原則)이라 부르는데, 이 법원칙은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더라도 체벌이란 말이 안 된다.

※공평원칙 : 인간은 누구나 공평하다는 것. 그러나 체벌에는 아무런 기준도 없이 교사의 의지나 주관에 따라 행해진다. 공평한 체벌은 어렵다.

※비례원칙 : 벌과 죄가 비례한다는 것. 체벌은 자의나 주관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례원칙에서 벗어나기 쉽다.

※절차보장원칙 : 직원회의에서 합의하고, 본인의 변명도 듣는 등의 절차를 밟았는가 하는 것을 말한다. 체벌은 일반적으로 아무런 절차도 없이 교사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행해진다.

또 요즘은 알 권리에 대해 자주 거론된다. 예를 들면 징계를 가하려다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말인데, 체벌은 느닷없이 일어나는 것으로 예고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때 체벌은 교육적 징계에 대한 법원칙을 전면적으로 위반한 반교육적이며 위법성이 높은 징계라 할 수 있다.

권리의식 · 인권의식

체벌을 '올바른 지도를 위한 것'이라거나 '교육의 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교사가 있는데, 그 교사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교육적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것은 교사를 특별한 존재로 인정했던 전후 얼마동안만 가능했던 생각이다.

모든 어린이의 교육을 학교에만 의존하던 사회적·자연적 상황이 고도성장과 더불어, 교사나 학교의 사회적 지위가 저하되고 교사가 하는 일은 무

조건 바르다, 가르침에 따르면 틀림이 없다는 식의 시대는 사라졌다.

또 어린이의 권리조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어린이도 권리의 주체라는 것은 국제적인 상식이므로, 그런 전체하에 징계론이나 교육론이 제정됨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문부성이나 교육위원회에서 별로 적극적이지 못하여 어린이의 자긍심과 이성, 자유를 존중하는 전통에서 출발해야 하는 교육적 사명을 무시하고 있다.

사랑의 때는 어쩔 수가 없다. 체육시간에 기합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공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린이의 인권에 대한 이해가 지극히 부족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체벌재판의 판결문을 보면, 교육위원회는 체벌교사를 지나친 교육열에 의한 실수라는 변호를 자주 한다. 하지만 교사의 열정이나 애정은 어린이의 인권이나 이성, 정신을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

해보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 몸으로 익히게 할 때, 원래는 왜 그것을 해야 하는가, 왜 그런 방법을 쓰는가를 설명하고 어린이가 납득한 상태에서 스스로 궁리해서 직접 해보며 체득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말로 설명해서 이해시키지 않고, 일단 먼저 시켜봐도 잘 해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잘 해내면 그걸로 다 된 것이라고 여겨 설명이나 이해를 경시하는 경향이 생겨난다.

그리고 자신의 활동성과가 기록이나 승리라는 단순한 것으로 실증되기 때문에 이기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합리화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연습과정보다는 결과만을 중시하여 시간을 두고 연습을 시키면서 스스로가 연구해서 깨우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려서라도 무조건 하게 하거나 아침부터 밤까지 장시간 기합을 주거나 한다.

또 체육은 기록에는 남더라도 플레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기하는 순간들을 대상

교사의 열정은 어린이 인권이 존중되는 범위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교사 자신의 의식개혁

여야 하는 것이다. 때리거나 마구 부러먹는 행위를 교육열이 넘친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다.

또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의 의견을 들어보면, 학교가 좀더 교사들의 일할 환경을 고려해 달라라는 말이 반드시 나온다. 그러나 교육조건을 완화한다고 해서 체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교사 자신의 '의식개혁'이다.

체육 · 스포츠가

체벌의 온상이 되는 이유

체육교사가 체벌을 많이 하고, 운동부 활동에서 체벌이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자료를 보거나 직접 느낀 바로 분명한 사실이다. 왜 그럴까. 그 점에 대해 운동부가 안고 있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체육 · 스포츠의 특성

체육 · 스포츠는 몸으로 익히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말로 설명을 하더라도 실제로 몸을 움직여

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교사의 지도에만 무조건 의지하여 그 지도력을 판단할 힘도 기르지 못한다. 그 때문에 실력이 향상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탓이고, 시합에 진 것도 자신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만다.

운동부 활동의 성격

(교사와 어린이의 교육관계)

운동부 지도자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어 선수나 주장의 역할은 오로지 지도자에 의해 결정된다. 지도자가 하는 말은 무조건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은 지도자가 하기 나름이다. 그것은 교육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이성적인 관계라기보다 절대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안되는 상하지배관계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나가즈삼업고교 사건의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체벌이나 기합, 모욕을 당하더라도 어떻게든 지도에 따라 가려는 현상까지 볼 수 있다.

운동부의 지도자는 크든 작든 권력을 갖고, 또 신앙 대상이 되기도 쉬운 존재이다. 대학에서 체벌

스포츠 지도와 체벌



▲강도높은 훈련을 통해 기량을 향상시키고 있는 운동부의 체력훈련모습. 스포츠에서 승리만을 추구하다 보면 심한 기합이나 체벌이 묵인되는 병폐를 낳기 쉽다.

비판에 대한 강의를 했을 때 그에 반발하는 이들은 체육학과 학생들이었다. 그들은 체육·스포츠 세계에서 행해지는 체벌을 일반 사람들은 무조건 비판하는데, 그건 아무 것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운동부 활동에서 지도자는 절대적인 존재이며, 그 자체가 진실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하는 행동은 무엇이든 바른 것이며 때리거나 모욕을 주는 것도 애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얻어맞은 보상으로 대표선수로 발탁되는 막대한 은혜도 있어, 그렇게 따져 보자면 때렸다, 맞았다 하는 일을 자신을 인정해 주는 하나의 표시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더욱이 체벌을 당하고도 '감사합니다'고 말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 체벌을 당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적인 모독인데 거기에 더해 감사하도록 시키는 것은 이중으로 정신적 모독을 주는 것이 된다.

운동부의 존재 자체도 특이하다. 대학 동아리에서도 그렇지만 부 활동은 폐쇄적이고 그 부의 고문으로 있는 지도자의 지배하에 놓여있다. 또 지도자와 학생의 지배-복종관계에서 상급생과 하급생 사이의 상하관계도 생겨난다. 어느 부라도 하급생이 허드렛일을 하고, 자기가 상급생이 되면 하급생에게 힘든 일을 시킨다. 힘으로 조직을 지배하는 군대와 같은 시스템이다.

체육·스포츠의 사회적 지위

체육·스포츠의 사회적 지위도 체벌과 관련이 있다. 첫째는 승리주의다. 매년 각 시도별로 각종 대

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런 대회를 잘 보면 체육·스포츠가 안고 있는 문제를 들여다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67년 사이타마현(埼玉縣) 국민체육대회의 과열현상을 보고한 <사이타마국제 보고서> (사이타마현 고등학교직원조합편)를 보면, 개최되는 지사를 중심으로 행정기관이 '이기기 위해' 유명선수를 다른 지역에서 불러들이는 등, 학교와 지역민을 둘러싸고 이기지 않으면 안된다는 '승리주의'에 빠져 있었던 걸 알 수 있다.

고교야구에서도 마찬가지다. 투구 하나 하나에 시도(市道)의 명예가 달려있다. 우승하면 도지사가 직접 마중까지 나오는 등의 과장된 행동이 이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그 운동부에서 심한 기합이나 체벌이 있었다 해도 우승만 하면 모든 것이 묵인되고 미화되어 버린다. 그래서 지도자는 더 자신을 갖고 승리주의에 빠져버리는 것이다.

또 출전팀은 각 시도지부 대표라 할 수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선거라도 해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라고 말하긴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대회 출장이 결정되면 전교생에다 지역 주민들까지 합세하여 학교전체의 운명이나 지역의 명예와 결부시키면서 우승을 강요하고 오로지 이기는 데에만 신경을 집중하게 한다. 그런 대표주의도 스포츠를 멍들게 하고 있다. 체벌교사를 지지하는 또 하나의 지주가 그런 대표주의와 승리주의이다.

운동부 활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 중에 연대

책임이란 것이 있다. 부원 한사람이 비행을 저질렀을 때 공식시합의 출장이 금지된(출장이 취소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타인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는 것이 근대법의 상식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원 중 누군가가 폭력사건을 일으켰다고 해서 꿈꾸던 공식대회에 나갈 수 없다는 논리를 과연 그냥 인정해도 되는 것인가. 연대책임 규정이 있는 스포츠 단체의 인권의식에 문제가 있다.

체벌·기함·모욕에 자살한 선수 — 나카츠(中津)상고 사건

(사카모토 히데오 : <체벌의 연구> P. 205~210, 1995년
·에서 인용)

체벌과 체육, 특히 체육부 활동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사건은 나카츠상고 사건이다. 그 사건을 우선 판결문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체육부 활동에 힘을 쏟고 있는 이 학교에 A군은 운동부에 가입하고 싶어 지원, 입학했다. 1학년 때는 기부현(岐

도의 투창 연습용 봉)로 등이나 허리, 머리를 때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또 학생들의 생활지도 면에 있어서도 일지를 쓰지 않았다고, 또 합숙 중 교사의 빨래를 가지러 오지 않았다고 여학생 부원을 대나무 몽둥이로 때려 교복을 때려 옷입술이 찢어진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연습중 좋은 기록을 내지 못하면 종종 '바보' 라거나 '운동 집어쳐' 등의 발언을 한 적도 있다.

일반 학생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면, 일부권유를 거절한 여학생을 체육 교관실에서 끌어앉혀 급속성 몽둥이로 머리를 때리고, 육상부를 탈퇴하려는 학생의 얼굴을 마구 때렸다. 교문에서 복장검사를 할 때에도 파마를 했다가나 택시로 등교하는 것을 보면 그 학생의 머리를 마리카락이 다 뽕힐 정도로 잡아당기고 죽도로 내려치는 등 과격한 징계행위를 빈번히 행하였으며, 그 중에는 B교사에게 머리채가 잡힌 채 끌려다녀 결국 20여일간 입원한 여학생도 있다.

참으로 광폭한 교사이다. 그러나 어떤 의미로는 체벌교사의 전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이 자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A학생에 대한 체벌에 대해서도 판결은 다음과 같이 상세히 밝히고 있다.

① 연습중 A학생에 대해서 '그만 집어쳐' 라거나 '넌 바

체벌은 교육의 좌절이며 교사로서도 실패를 뜻한다

阜縣)대회에서, 2학년 때는 현(縣) 고교선수권대회에서 우승, 투창에서는 전국 고교 랭킹 16위에 있는 선수였다.

지도교사인 B선생은 상당히 엄격한 훈련을 시켰는데, 매일 아침 40분, 방과 후 2~3시간, 토요일은 2시부터 5시까지, 일요일은 10시부터 5시까지 거의 매일이 훈련의 연속이었다.

판결은 이 교사의 인간성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B교사는 고등학교 때 투창선수로 전국대회 우승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육상경기에 있어 연습방법, 생활태도 및 그 지도방법에 대해 일종의 강한 신념을 갖고 있어서 그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지도에도 대단히 열성적이었다. 하지만 성격은 공격적이고 격정적이어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로서 주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해를 가하였다.

예를 들면 육상부 주장이 지도교사의 지도를 다른 부원들에게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였다고 뺨을 때린단든지, 쥐고있던 대나무 몽둥이(길이 24미터, 직경 1~2미터 정

보나, 대체 몇 번 말해야 알아들겠느냐'고 말했다. 허리 통증을 드러냈다고 '집어쳐' 라고 소리를 질러 A군은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계속 연습하게 해주세요' 하며 무릎 꿇고 빌었다.

② 의사가 피로골절로 2개월 정도 연습을 쉬도록 지시를 내렸는데도 무시하고 연습을 시켰다.

③ 다른 부원이 병원에 가는 것을 A가 막지 않았다고 흥분하여 '이름 매일수록 연습을 쉬지 않게 하는 것이 정말 그 친구를 생각하는 것이다'고 소리쳤다.

④ 합숙 때에 A와 그 친구들 3명이 점심밥을 한 공기 밖에 먹지 않았다고 화를 내며 끌어앉게 하고 대나무 몽둥이로 마구 때려 몽둥이가 부러졌으며 3명은 울면서 밥을 먹었다.

⑤ 여름방학 일요일에 개인 트레이닝을 쉬고 친구와 영화를 보러 갔다가 늦게 귀가했던 일을 알고 이제 네 연습은 봐주지 않겠다'고 말해, A는 낙담한 나머지 기침을 했다.



⑥ 1년 후배부원이 연습에 나오지 않는다고 A를 2시간이나 추궁했고, A는 얻드려 빌었다.

⑦ 후배부원은 탈퇴를 했고, 기록은 향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알부미눔체 연습용 봉으로 A의 머리를 때렸다.

⑧ 기록이 늘지 않고 일지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크게 분노하며 얼굴을 적어도 두 차례 이상 때렸다.

⑨ 학년말 테스트 성적이 나쁘다고 1시간 이상 큰소리로 야단치고 투창연습을 시키지 않았다고 했다. 운동장 한 구석에서라도 연습을 하게 해달라고 애원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그 후 다시 체육 교관실에 가서 연습을 하게 해달라고 빌었으나 오히려 곧 있을 합숙훈련에도 참가하지 못하게 하며 '너 얼굴 보기도 싫다' 등의 말을 하고 돌아가 버렸다. 그래서 A는 낙담하여 귀가했고 아버지가 위로를 해주었지만 계속 울다가 그날 밤 목을 매 자살했다. 유서에는 '아버지... 어머니... 전 지쳤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왜 다른 아이들은 즐겁게 운동을 하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맞는 건 이제 싫습니다. 우는 것도 싫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이 재판에서 교육위원회의 항변은 인상적이다. 먼저 B교사의 행위는 교육적 필요에 의한 것이란 주장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운동부 활동은 사회교육으로 기술항

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도 '유형적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승낙이 명시되었든 그렇지 않은 주위의 상황으로 미루어 이미 승낙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체벌을 묵인하는 것이다. 「바보」라고 했다 해도 그건 B교사의 선수들에 대한 사랑의 역설적 표현이다. 「일지는 지도자가 다수의 부원들과 마음을 나누고 한사람 한사람을 성실껏 지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일지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태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B교사가 선수들을 엄하게 대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질이 있는 선수를 보다 강한 선수로 단련시키기 위한 애정이 바탕이 된 지도로서, 어디까지가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기 위해 때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며, 아무런 비난받을 여지가 없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기부천 교육위원회의 인권의식 수준이 의심스럽다. 또 유서에 대해서도 「난 선생님을 좋아했지만 아무런 보답도 해드릴 수 없었다」고 감사의 말도 있었기 때문에 A군이 교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재판관이 이런 주장을 단호하게 부정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나는 선생님을 좋아하지만...」은 교사가 끝까지 이해하지 않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

B교사의 구타 등을 모두 체벌로 인정했을 뿐 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부 활동에 대해서도 서술했다.

「부 활동의 엄격함은 학생 각 개인이 제각각 자기 한계에 도전하는 끝없는 노력을 통해 보다 깊은 인간적 연결 고리를 형성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서로 협조하고 격려하면서 한계를 극복해 나간다는 의미의 엄격함일 뿐이지, 결코 지도자의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기합이나 무계 획적으로 행해지는 맹훈련, 장시간 훈련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소의 기합이나 체벌 비슷한 지도를 사전에 학생이 포괄적으로 감수하겠다고 했다 하더라도 그 건 인정할 수 없으며, 또 그러한 상조양해는 있어서는 안된다」.

「바보」라는 등의 발언은 「앞에서 말한 부 활동의 엄격함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단순히 모욕을 주는 발언일

뿐이며, 지극히 부적절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무릎 꿇는다는 것이 얼마나 굴욕적인 행위인지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본 건의 경우, 비록 A학생이 잘못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었다 하더라도 그런 학생의 행동을 묵인하고, 학생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B교사의 자세 그 자체가 이미 교육적 배려를 전혀 하지 않은 극히 부적절한 지도방법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육상경기선수에게 영양섭취가 중요하다고 해도 밥을 한 공기 밖에 먹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지도교사가 학생을 무릎꿇게 하고, 또 머리를 동동이로 때리는 행위는 비정상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으며, 그것이 위법인 체벌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 「나는 선생님을 좋아하지만…」이라고 한 A군의 기술은 교사를 용서하는 발언이라기 보다 오히려, 「얼어맞고 모욕적인 발언을 들으면서도 필사적으로 B교사의 지도를 받으려고 했던 자신을 B교사가 마지막까지 이해해주지 않은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이상, 긴 인용이었지만 이들 판결부분은 운동부 활동의 본질과 고교생의 마음을 깊이 있게 잘 이해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문제는 왜 이러한 비정상적인 체벌·기합·모욕행위가 생겨나는 것인지,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A군이 B교사를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필사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 지도에 따르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체벌을 없애자

생각해보면 체육·스포츠에서 체벌을 근절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스포츠에 대한 과열현상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스포츠의 승리주의와 대표주의가 운동부 활동을 잠먹고 있다. 승리만을 위한 기합이 만연하고, 지도자와 학생간의 지배-복종관계나, 학생들 사이의 상하관계가 어우러져 운동부 활동이 체벌의 온상이 되는 것이다. 스포츠 과열완화가 스포츠를 승리주의·대표주의에서 해방시키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체벌을 없애기 위해서는 운동부 활동을 개방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학생의 의견이나 보호자의 의견이 통용되고, 체벌을 공개적으로 문제로 삼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 매스컴에 의한 사회비판, 체벌교사에 대한 동료들의 비판도



▲운동부의 지도자는 큰든 작은 권력을 갖고, 또 신장적 대상이 되기도 쉽기 때문에 지도자의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

필요하며 효과가 있다.

체벌은 교육의 좌절이며, 교사로서도 실패하는 것이라는 걸 체벌교사는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아무리 학부모가 '선생님이 열심히어서'라는 식의 변명을 해준다 해도 체벌에는 어떠한 변해도 통용될 수 없다. 심각한 반성을 해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배를 휘두르는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니다. 교사의 사랑에 매는 필요없다. 그것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체벌을 받은 학생은 어떤 사람이라도 분명 '말로 해도 알아들을 텐데'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이든 이성과 자긍심에 호소하면 알아듣는 '인간'이란 애기다.

이성과 자긍심에 호소하는 교육, 지도를 바란다.

〈주진인 옮김〉

사카모토 히데오

1924년생. 주오(中央)대학 법학부 졸업. 동경 오쓰이(櫻木)상업고교 교사, 전국고등학교 교육법연구회장, 도쿄도립대학 비상근 강사, 주오대학 비상근 강사를 거쳐, 현재 일본교육법학회 명예이사, 전국고등학교 교육법 연구회 고문. <학생징계 연구>, <교육정보 공개 연구>, <교칙재판> 등 저서 다수.

서울특별시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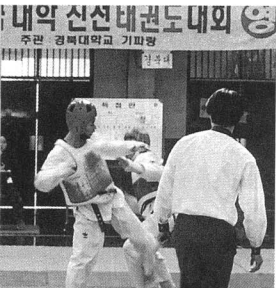
사무실 이전 안내

서울시 태권도협회는 서울시 체육회의 이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다.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 주경기장내 서울시체육회 306호
- 전화번호 : (02) 424-3765-7
- FAX : (02) 424-3768
- 천리안 : go tkdseoul

대구광역시협회

전국대학선체육대회



▲대학 태권도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대학생들이 경기를 하고 있다.

이번 대회 우승은 남자부 동아대, 여자부 경북대가 각각 차지했다.

김운용 회장 계명대 태권도학과 초청 강연회

김운용 회장은 23일 2시간 동안 계명대학교 성서 캠퍼스 시청각실에서 '21세기 태권도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계명대학교 체육대학 태권도학과 주최로 열린 강연회는 계명대 체육대학 학생을 비롯, 지역 태권도인 등 3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강연회에서 김회장은 태권도의 비전을 중심으로 강연하고 『태권도가 영원히 올림픽에 남을 수 있는 길은 중주국인 한국이 선수 부상 방지를 위한

제 19회 전국친선타권도대회가 지난 11월 14일과 15일 이틀간 경북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경북대 태권도 동아리 기과랑의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35개 대학에서 남자 506명, 여자 98명 등 총 604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해 순수 아마추어 태권도 기량을 자랑했다. 대구태권도협회는 이번 대회를 위해 경기용품을 지원하고 심판위원을 파견하였다.

호구 개발과 매끄러운 경기진행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회는 2개월 전부터 배영상(학생처장, 태권도학과장) 교수와 이선장(태권도학과 지도교수, 전 국가대표) 교수를 비롯해 태권도학회(학회장 이근철)의 치밀한 사전준비와 계획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제 3회 열린 계명태권제 개최

계명대 태권도학과는 지난 11월 14일 제 3회 계명태권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상홍 체육대학장, 배영상 태권도학과장, 이선장 지도교수와 송형석 태권도학과 교수 등 계명대 체육대학 교수들과 대구협회 오광웅 상임부회장, 양경덕 전무이사 등 태권도계 임원들과 대구, 경북지역, 태권도장 지도자와 수련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



올아프리카게임 4회 연속 정식종목 태권도 위상 재삼 확인

내년 9월 개막되는 아프리카 지역 종합스포츠대회인 올아프리카게임에 태권도가 4회 연속 정식종목으로 채택돼 제 3세계 내에서 태권도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아프리카 스포츠 최고평의회(SCSA)는 지난 11월 19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총회를 열고 내년 9월 개최되는 제 7회 올아프리카게임에 태권도를 정식 종목으로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세계태권도연맹에 알려졌다.

태권도가 4년마다 개최되는 이 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는 지난 87년 4회 대회 이후 4회 연속으로 세계태권도연맹은 아프리카 지역에 뿌리 내린 태권도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증거라고 밝혔다.

지난 70년대 초부터 태권도가 보급되기 시작한 아프리카 지역에는 모두 25개국에 태권도 도장이 있으며 태권도 인구는 300만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되었다.

계명태권제의 주요 프로그램은 겨루기, 품새, 시범, 격파 부분으로 나뉘어져 실시되었는데 창의성에 중점을 두고 치러졌다.

〈김기만 리포터〉

광주광역시협회

제 79회 전국체전 선수단 해단식 조선대 이계행 코치 특별상 수상

광주광역시체육회(회장 고재유 시장)는 11월 4일 시청대강당에서 제 79회 전국체전에 참가했던 선수단 해단식을 거행하였다.

태권도부문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5개, 동메달 3개로 4위를 차지한 태권도 선수단은 광주의 효자종목으로 자리를 굳혔고, 이에 따라 조선대학교 이계행



▲문성고 선영준 선수가 태국회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다.

행 코치가 고재유 시장으로부터 특별상을 수상하였고, 문성고등학교의 선영준 선수는 광주의 국가대표 출신들의 모인단체인 태국회로부터 장학금과 상장을 수상하였다.

체육관협의회장기 및 소년체전평가전

광주태권도협회(회장 한길진)는 98년도 마지막 대회인 제 1회 협의회장기를 겸하여 소년체전평가전을 11월 7~8일까지 이틀동안 구동체육관에서 실시하였다. 체육관협의회장기(회장 김정록 관장)대회는 전국체전이 끝나고 다음해 3월까지 대회가 없는 공백기간을 활용하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신설하였다. 초, 중, 고등부 350여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각 부별 졸업반 선수들이 제외된 상태라 다소 열기는 적었지만 99년 봄에 열리는 제 28회 소년체전에 대비하여 평가전을 겸하는 시합이어서 초등부와 중등부의 의욕은 대단하였다.

선발된 선수들은 동계훈련을 통하여 소년체전을 대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각 부별 우승자〉

▲초등부(저) 김유광(하남남), 주효성(오치), 이승철(상무), 오호철(금호), 이정언(정암), 최명화(백운), 강현준(운천), 류재청(송원) ▲초등부(고) 전호준, 유정열(이상 송정우산), 문재영, 김성모, 노광민(이상 금호), 서기원, 최성필(이상 오치), 박재식(하남남), 김정윤(상무), 조경준(송정서), 최필선(운천) ▲중등

김운용 회장 美 태권도연맹 총회 참석

미주지역 태권도 지도자들에게 특강

미주지역 태권도 보급에 앞장서 온 한인태권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미태권도연맹(회장 이상철·USTU)은 지난 11월 19일 래디슨윌서 호텔에서 미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범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 내에서 활동중인 한인 사범은 물론 외국인 사범 등 300여명의 태권도 관계자들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이기도 한 김운용 회장은 이날 올림픽 운동이란 특강에서 『태권도는 오는 2000년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것을 계기로 앞으로 한국의 국위선양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태권도 보급의 가장 중심적인 위치는 바로 지도자



개개인의 만큼 사범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정록 협의회장이 중등부 우승을 차지한 문성중학교 태권도부에 우승기를 전달하고 있다.

▲2위 금호초, 금호초, 고려중, 광주체육고 ▲3위 오치초, 윤천초, 상무중, 고려고 ▲최우수선수상 이정인, 전호준, 유창혁, 윤덕근 ▲지도상 이석삼, 강민석, 나덕호, 김지운 <이병도 리포터>

부 박성민, 정인영, 김대성(이상 상무), 박상주, 유창혁(이상 문성), 장근동, 정석환, 박대현, 고윤석(고려), 김동환(체육) ▲고등부 이준근, 유지호, 이우영, 김대현, 최고봉, 윤덕근, 윤승환(이상 문성), 박현욱(고려)

<중합수위>

▲우승 정암초, 송정우산초, 문성중, 문성고

강원도협회

평창군수배, 정선군협회장기, 속초시협회장기 개최

지난 10월 24일 평창군 대화문화체육관에서 제 1회 평창 군수배태권도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에는 권혁승 평창군수, 박동락 평창군 협회장 등 각급 기관장과 임원 선수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또한 10월 24~25일 양일간 제 15회 정선군태권도 협회장기 대회가 정선학생체육관에서 김원창 군수, 오종구 회장 등 각계인사와 임원 선수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한편 11월 21일 제 8회 속초시협회장기태권도대회가 속초학생체육관에서 동문성 시장, 최용영 회장을 비롯해 태권도관계자와 일선관장, 학부모, 선수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초등부 32개교, 중등부 10개교, 고등부 8개교 등 모두 50개교에서 선수들이 출전해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겨뤘다.

제 13회 교육장배 및 협회장배대회 개최

지난 11월 14일과 15일 제 13회 교육장배 및 협회장배 대회가 원주여중 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에는 주수복 교육장, 김수기 회장, 한호선 전 국회의원 등 각계인사 및 임원 선수 85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해까지 남자 초, 중학생이 참가하던 이 대회는 올해부터 고등부와 여자부까지 확대해 경기를 가졌다. 시상식에서는 입상자들과 태권도 발전에 공이 큰 태권도 지도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개인별 우승자명단>

▲남초부(저) 구진호, 노진호, 이형근(이상 태장), 고희민(치악), 김동민(치악), 박성민(문막), 유기종(평원), 권택훈(교동) ▲남초부(고) 김영두(소초), 원성환, 김찬철, 황병선(이상 문막), 김범수(호저), 이운성(원주), 박용혁, 김승훈(이상 치악), 최진호(부론), 김일운(평원), 오형석(홍입) ▲남중부 김삼민, 지유민, 김민우, 지훈, 성석구, 주진우, 조현(이상 평원), 명은철(대성), 전형기(원주), 김대호, 주성현(이상 문막)



▲임원들과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수상자명단>

▲교육장 감사장 최지천(이사) ▲표창장 손평(명륜초등교사), 여승환(명륜초등교사) ▲원주시태권도협회장 감사패 신양승(문막초등교장), 고종근(원주시청 문화관광과), 홍관표(원주시청 문화관광과), 이승수(원주교육청 사회체육계) ▲원주시태권도협회장 공로패 이호영(관장), 양병석(관장), 이종면(관장), 이병남(관장), 이광한(관장) <원재용 리포터>

울산광역시협회

승품·단 심사에 1,500여명 응심 김제경 선수에게 MMP상 시상

제 6회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 승품(단)심사대회가 중화 실내체육관에서 총 1,518명의 수련생이 응심한 가운데 개최되어 도장에서 수련해온 태권도 실력을 발휘했다.

이날 제 79회 전국체전에서 울산소속으로 출전, 해비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고향의 명예를 드높인 김제경 선수에게 MVP 포상금과 격려금을 체육회와 태권도협회에서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황세열 대회장의 대회사와 국기원 심사분과 김중엽 위원장의 격려사에 이어 식후 행사로 제 1회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장기 경연대회 격파 부문에서 우승한 현대체육관 시범단이 시범을 보여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다.

제 2회 울산협회장기대회 개최

제 2회 울산광역시 태권도 협회장기쟁탈 태권도대회가 10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종합 실내체육관에서 초등부 50개팀 310명, 중등부 12개팀 110명, 고등부 11개팀 60명, 여자부 6개팀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대회 개최식에서는 서여자 상업고등학교의 고적대 페레이드와 김기오 운영부장의 진행으로 행운권 추첨을 통해 IMF한파로 움추린 태권도 가족의 얼굴을 환하게 했다.

<종합전적>

▲종합우승 우정초, 동평중, 대안체육관, 상무체육관 ▲2위 삼일초, 울산중, 연양농고, 청도체육관 ▲3위 홍익체육관, 방어진중, 상무체육관, 남부체육관 ▲최우수선수상 김현수(삼일초), 김병철(울산중), 박상률(삼양제) <박성배 리포터>

충청북도협회

제 2회 청주 청년회의소 회장배대회

지난 11월 1일 청주시 JC회장배 태권도대회가 청주 신충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청주시 태권도협회가 주관 청주시내 20개 체육관에서 480여명의 초등부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품새, 격파, 창작 품새, 줄다리기 대회가 개최되었는데 학부모님들도 함께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특히 이날 경품추첨을 통하여 푸짐한 상품도 나누어 주었다.

<개인품새 입상자>

▲1학년 양성로(우성체) ▲2학년 김하늘(국제체) ▲3학년 심을아(혜성체) ▲4학년 김승수(청룡체) ▲5학년 옥원리(호암체) ▲6학년 김영순(신천체)

<창작품새 최우수상> 정도 체육관

<격파 최우수상> 청룡체육관이 차지하였다.

제 5회 충북 태권도 지도자 체육대회

지난 11월 15일 충청대학운동장에서 충북 태권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체육대회를 가졌다.

이번 대회는 청원군 태권도협회가 주관한 대회로 일선지도자들간에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박도철 청원군 협회장은 그 동안에 지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내년도에는 더욱더 분발하여 충북 태권도 위상을 높이는데 지도자들이 다같이 노력해 나아가자고 다짐했다.

축구, 배구, 족구 등으로 열린 경기에서 1위는 청주시협회, 2위는 청원군협회, 3위는 초등학교연맹이 차지하였다.

<김경수 리포터>

경상북도협회

제 35회 학도종합체육대회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도승희)이 주최하고 경상북도 체육회(도지사 이익근)가 주관한 제 35회 학도종합체육대회가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충의와 예절의 고장 영천에서 개최되었다.

영천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치러진 태권도 경기에는 남초부 11개팀, 남중부 11개팀, 남고부 12개팀 등 총 330명이 출전한 가운데 개최되어 남초부는 고령군, 남중부는 경산시, 남고부는 구미시가 각각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체급별 1위 입상자>

▲초등부 윤희중, 이원우(이상 청림), 김성환, 이성만(이상 운수), 최성호(형곡서부), 서경환(송정), 이성진, 염진호(이상 고령), 박연호(황상), 이인식(영가), 이중광(도리원) ▲남중부 정대석, 우영택(이상 고령), 육우성(형남), 장세민, 소순용(이상 체육), 임균락(형곡), 장민호(영신), 백근태, 권석찬, 김기표(이상 대동), 송동원(영천) ▲남고부 김세효, 이덕봉(이상 고령실), 김동일, 박재우(이상 영신), 유봉선(금오공), 신금철(홍해공), 민병국(함창고), 최지철(영천)

우수선수선발대회

11월 20일~21일(영천체육관에서 498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초등부 헤비급 이준호(안동 용상초)는 결승에서 양진(의성 단인초)을 2회 1분 15초에 RSC승으로 승리를 거두며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고, 남중부 윤민균(고령), 남일부 최지철(영천), 여중부 박미영



(경북 체육), 여일부 한미주(경북 체육)가 부별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제급별 1위 입상자〉

▲초등부 윤희종, 김경우, 김우석(이상 청림), 지성철, 문광주, 신재홍(이상 고령), 조기정(다산), 류효창(황상), 라광진(광평), 김병수(광평), 이준호(용상) ▲남중부 이성우(경덕), 박덕현, 장세민, 우종민, 소순용(이상 경북체), 임정균, 권도형(이상 영천), 정민호(영신), 윤민균, 이진옥(이상 고령), 송동원(영천) ▲남일부 김세호, 김지련, 임용식(이상 고령실), 김선주(홍해골), 하성훈, 정순호(이상 경북체), 손중석(금오공), 최지철(영천) ▲여중부 김희진, 김주희, 강상희, 손은희(이상 흥해), 조소영(경안여), 박미영, 김도영(이상 경북체) ▲여일부 이아름(고령실고), 박은숙(안동 정보대), 정윤정, 김은숙, 한미주, 이화전(이상 경북체)

〈김태현 리포터〉

충청남도협회

제 50회 도민체육대회 개최

200만 충남도민과 화합의 발전을 위한 제 50회 충남도민체육대회가 지난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공주 영평고 체육관에서 개최되어 주최자인 공주시가 종합우승, 천안시가 준우승, 논산시가 종합 3위를 차지하였다.

▲중등부 주영한(천안시), 유열, 강우성, 강대길, 신연철(이상 공주시), 유재홍(금산군), 한민영(태안군), 강현성(당진군), 송은규(서천중), 조원도(보령시), 김영재(논산시) ▲고등부 이창진, 김태호(이상 보령시), 최기원(당진군), 정홍진(논산시), 박순근(연기군), 이광일(부여군), 송성민(천안시)

제 7회 학생체육대회 개최

도내 태권도 경기력 향상을 위해 미래의 꿈나무들을 조기에 발굴 육성하기 위한 제 7회 충남학생체육대회가 지난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보령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어 교육청이 1위, 공주시 교육청이 2위, 서산시 교육청이 3위를 차지했다.

각 부별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초등부 이성규(청파), 유환수(중앙), 전대진(홍남), 황원재(구성), 김정수(부여), 이세범(전동), 최석훈(서남), 김기덕, 임용민(이상 중동), 남궁갑(신관), 김재호(중앙) ▲남중부 주영한, 이민호(이상

천안북), 강우성(공주), 최민형(조치원), 이종철(창기), 김인성(홍성), 송기화(서천), 강현성(당진), 박상혁(덕산), 편의창(서산), 이지훈(사천) ▲여중부 사영주, 성아영(이상 조치원여), 이성숙, 양지선, 김은옥, 박상협, 정현자(이상 백제), 박현철(천진), 유맑음(천안여), 김진주(창기), 김수진(홍남)

제 16회 도지사기 시·군대항대회

충청남도태권도대회(회장 이종승)는 지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보령 시민체육관에서 제 16회 충남도지사기 시·군대항태권도대회를 73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종승 회장은 개최식에서 충남태권도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김태우 보령시청감독(태우체육관장), 서인원 심판위원장(홍성푸른체육관장), 정진주(천안시지회전무이사(송무체육관장)에게 우수지도자상을 수여했다.

이번 대회에서 종합우승은 부여군, 종합준우승은 공주시, 당진군이 종합 3위, 홍성군이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최우수선수상은 부여군의 변성훈 선수가, 천안중의 최병수 선수가 우수상을, 박창길 부여군 코치가 지도자상을 수상하였다.

▲초등부(우승 : 공주시, 준우승 : 당진군, 3위 : 부여군) 박병남(청파), 전영주, 이영우(이상 중동), 이완형, 정복성(이상 홍남), 변규남(용남), 변성훈, 정상구(부여), 이영석(청수), 권선욱(서산), 정남호(상록내도) ▲중등부(우승 : 천안북중, 준우승 : 천안중, 3위 : 공주시) 박재철, 강우성(이상 공주), 주영한, 이민호, 모수광(이상 천안북), 박철수, 최병수, 이일제(이상 천안), 송은규(서천), 강상구(금산군), 김영재(덕은) ▲고등부(우승 : 예산공, 준우승 : 당진송악, 3위 : 서천) 이창진, 설진수(이상 대천수), 강석만, 정동욱, 김용태(이상 예산공), 유제국(당진송악), 김충열(세일체), 정종훈(장항) ▲여중부(우승 : 부여군, 준우승 : 청신여, 3위 : 명동체) 사영주(명동체), 이수진(천안서여), 이성숙, 양지선, 김은옥, 박상협(이상 부여), 이은희(청신여), 이금미(금산비룡체), 유맑음(천안여), 문미라(창기), 김유라(부여군) ▲일반부(우승 : 홍성군, 준우승 : 신성대, 3위 : 금산비룡도장) 김종남, 이민우, 송종석, 김태국(이상 홍성군), 김진규(금산비룡도장), 최광명, 김현중, 백종호(이상 신성대) ▲여자부(우승 : 당진군, 준우승 : 인화체, 3위 : 당진송악고) 전영숙(금성여), 김은미(당진 송악고), 윤수원, 시선이(이상 금산군), 김진

주(당진고), 조성희(함덕여고), 이진향(대천여고)

〈김봉환 리포터〉

전라북도협회

99년 전국체전, 소년체전 1차 선발전

전북협회는 지난 11월 20일과 21일 양일간 학생체육관에서 99년도 전국체육대회 및 소년체육대회 1차 선발전을 개최하였다. 체급별 우승자는 다음과 같다.

▲남초부 강민수, 옥근호, 조동신(북초), 이종문, 정성훈(이상 부천), 김진영(금암), 김제성, 유정범(이상 금평), 권순곤(태인), 남기백(김제 중앙), 김미루(구암) ▲남중부 김경수(옥구), 안영진(관촌), 박경제(기린), 김동희(전주), 김영옥(풍남), 이승룡, 홍상우, 신창용(양지), 박광수(군산 중앙), 조명철(전주), 이영원(군산동) ▲여중부 황지은(남초동), 조은영, 이슬기(이상 군산 서흥), 김은진(진성), 김주미, 김은정, 김선영, 정진영(이상 군산 중앙), 전보영(월명), 이국화(고창), 김소라(관촌) ▲남고부 박성철, 임현, 임태수, 정인석, 손준우(이상 체고), 김준형, 김성두(이상 군산), 신경남(군산 중앙) ▲여고부 채선미, 하은영(이상 덕암), 국현진(고창), 박현미, 김현희, 정미선, 김정애, 채주희(이상 중앙) ▲남대부 김정일, 장문식, 박만훈, 양현도, 강훈(이상 군산), 신종학(호원), 김영환, 박정수(이상 군장)

중국 강소성과 태권도 교류

전북협회는 중국 강소성 체육위원회로부터 초청을 받아 16명의 대표팀을 중국 강소성에 파견했다.

전북대표팀은 12월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 중국 강소성에서 태권도 친선경기 및 세미나를 실시했다.

〈파견 임원 및 선수〉

▲회장 유기대(전라북도태권도협회 회장) ▲단장 이병도(남원시태권도협회 회장) ▲여감독 임귀택(익산시의회 의원) ▲남감독 이창호(군산동중 감독) ▲기자 김진경(CBS 체육부기자) ▲주무겸교치 고봉수(전라북도태권도협회 운영부장) ▲선수 임태수(전북체고), 김정일(군산대), 김정수(경희대), 정을진(전주시청), 서탁(군산동중), 이승룡(양지중), 오정길(덕암고), 국현진(고창여고), 최강주(덕암고), 김유라(군산중앙여고)

〈김성신 리포터〉

제주도협회

99년 소년체전 1차 선발전 개최

제주협회는 지난 11월 28일 도체육관 다목적체육관에서 '98 우수선수 발굴·육성대회 및 제 28회 전국소년체전 제 1차 제주대표 선발대회를 개최했는데 체급별 우승자는 다음과 같다.

▲초등부 김정우, 오영택(이상 위미교), 임창현(구좌중앙), 송문철, 강동호, 부경철, 안성준(이상 삼양교), 고관선(화북교), 오정일(효돈교), 이경률(대정서교), 김운주(남원교) ▲남중부 이영광(남주), 한찬석, 김천권, 김상수, 강상봉(이상 조천), 고기보(서귀), 윤달호, 김형준, 김효빈(이상 귀일), 장명수(남주), 김민범(오현) ▲여중부 조상미(제동교), 신지은, 김양전, 방용, 진미화(이상 아라), 서희정(제주여), 오영연(성산), 강나영, 장연선(이상 중문), 이성희(대정), 오미경(남원)

〈공철국 리포터〉

신간
안내

“성인을 위한 위생 태권도, 아동을 위한 인성 태권도”

제 3사관학교 하태은 교수가 태권도 서적을 연달아 펴냈다.

태권도 위생 품새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온 하교수는 지난 9월 『성인을 위한 위생 태권도』(삼학사·28,000원)를 비디오와 함께 펴낸 데 이어 11월에는 『아동을 위한 인성 태권도』(삼학사·18,000원)를 경희대 태권도학과 동기생인 이송학씨(수원대 사회체육학과 강사)와 함께 공저로 펴냈다.

성인을 위한 위생 태권도는 예방의학 차원의 태권도 프로그램으로 태권도와 한의학학을 접목한 것이 특

징. 아동을 위한 인성 태권도는 필자들이 평소 태권도를 지도하며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해 엮어낸 것으로 아동을 위한 태권도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독자 페이지

소식과 작품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이 태권도에 관해 겪은 이야기, 일러스트레이션, 만화, 본지에 대한 희망이나 건의 등 무엇이든 좋으니 보내주십시오. 일러스트레이션, 만화 등은 돌려드릴 수가 없으니 필요하신 분은 복사를 해서 보내주십시오.

- ◆보내실 곳 : 서울시 송파구 오륜동 88-2 (편의시설 A-3동) 「월간 태권도」 편집실
- ◆전화 : 420-4568
- ◆팩스 : 420-4274
- ◆이메일 : DKY@KOREATAEKWONDO.ORG



PC 태권도

다음은 대한태권도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WWW.KOREATAEKWONDO.ORG) 자유토론장과
방명록, E-mail에 올라온 글입니다.

◆ 태권도 홍보효과는 아무래도...

<마루치>

요즘 태권도 협회에서 태권도 홍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이 역력히 보이더군요.

태권도 홍보효과는 무엇보다 태권도 캐릭터의 개발과 보급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권도를 온 국민이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도 태권도 캐릭터를 가방에 붙이고 다닌다면 태권도 홍보차원에서 참 좋을 것 같은데요.

◆ 한국적인 품새와 재미있고 실전적인 경기에 힘써 주시길...

<이정욱 · 26세>

현재 태권도 2단입니다.

97년 10월부터 1년간 모 만화 잡지에 '8X8' 이라는 태권도 만화를 연재했던 만화가이기도 하지요.

앞으로 태권도를 비롯한 전통무예를 소재로한 만화 제작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권도가 세계적으로 보다 한국적인 무술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한국적인 '품새'와 재미 있고 실전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경기를' 개정에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 태권도 전당 세위 태권도 관광상품으로 활용하자

<이상훈>

몇년전 각종 신문과 방송에서 국기원이 사실상 낡고 규모가 작아 이를 대체할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다면서 강원도 모처에 엄청난 규모의 태권도 전당을 세운다고 발표한 것을 본적이 있을 겁니다.



▲태권도인들의 축제인 태권도 한마당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해외에서 온 수련생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벌써 몇년이 지났는데도 전당이 완성되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나는 작년 미국에 잠깐 나갔다가 태권도의 위상이 생각 이상으로 대단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 보급을 위해 해외에서 땀을 흘렸는지 조그만 꼬맹이도 태권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 도장을 방문하니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까지 태권도를 정말로 사랑하며 배우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엄청난 태권도 인구를 한 곳으로 묶어서 한국을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방문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그게 다 IMF시대 돈 버는 길이고 또, 돈 안들이고 국가의 정신적, 문화적 홍보를 할 수 있으니, 이를 두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유식한 말로 일거양득이라고 한대 왜 왜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의 국기원은 좁습니다.(좀 심하게 말하면 태권도의 위상에 비해 초라하다.)

국기원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서 전세계 사범들을 연수시키고, 돈 없어 못 배우는 사람에게 장학금도 주고 기타 등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년 내내 국기원을 바쁘게 만들면, 연수에 참가한 태권도인들은 자못 궁지에 살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국기원 한국연수 참가희망을 평생의 원으로 삼을 것이니 이 얼마나 돈 안들이고 장기적으

로 애국하는 일입니까?

외국(특히 미국)에서 어린 꼬맹이 승단심사에 온 가족이 나와서 응원하고 축하화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지구촌 가족을 그냥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언제까지 두고 볼 것입니까?

◆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태권도 <장현구>

태권도를 생업으로 하는 전문인은 아니지만 태권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태권도에 대한 애정이 너무 심하다보니 어떤 때는 태권도와 태권도인을 경멸하다 어떤 때는 그 반대로 한없는 경의와 존경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현대는 모든 것을 자본의 논리로 저울질하기 때문에 돈이 안되는 운동, 태권도가 점점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냥 즐기고 마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황폐하고 나약한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강화할 수 있는 차원높은 운동으로 자리 매김될 수 있도록 태권도인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스포츠의 한 종목으로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문 선수등록과 대회 출전에 대해

선수등록은 누구나 되죠?

혹 코치나 감독이 없고 등록이 된 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선수등록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대회 출전도 가능한지요?

휴학 중인데 경험 삼아 대회에 나가 보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선수등록은 소속팀(학교, 실업, 체육관)없이 개인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선수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대회 출전이 불가능하고 혹 대회에 출전해 입상할 경우라도 하더라도 성적은 무효처리 됩니다.

그리고, 휴학 중인 자는 당해 학교 선수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한국태권도는 해냈다 · 금 11개 은 1개 아시안게임의 새로운 메달박스로 떠올라



98. 12. 7 ~ 10
방콕 타마사트대학
제 7체육관

제 13회 아시안게임 태권도 경기(98년 12월 7 ~ 10일 · 방콕 타마사트대학 제 7체육관)에서 한국은 12명이 출전, 금 11개와 은 1개를 따내는 위업을 이뤘다.

태권도 종주국의 체통을 유감없이 세우기까지 나홀로단 치러진 열전과 감동의 장면을 카메라 렌즈에 담아보았다.
〈방콕 = 임충희〉

헤비급

◀헤비급 김제경(청)은 결승에서 요르단의 카밀 이브라힘에게 3-1 판정승을 거두고 아시안게임 2연패를 달성했다.

▼태권도경기를 관전하고 있는 김운용 회장 겸 세계태권도연맹총재(가운데)와 박용성 국제유도연맹회장(왼쪽), 박상하 국제정구연맹회장.



쉴새없는 왼발·오른발 돌러차기



라이트급

▶라이트급 결승에서 김병욱(청)은 대만의 성 천시엔에 6-1이라는 높은 득점차로 승리를 거두었다.

웰터급



▲웰터급 우승을 차지한 류근무. 2위는 이란, 3위는 요르단과 카자흐스탄이 각각 차지했다.

미들급



▶미들급 강동국에게 작전지시를 내리고 있는 신재근 코치. 강동국은 요르단의 탈레 후세인을 3-2로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페더급

▶페더급 입상자들이
손을 높이 들어
보이고 있다.
1위는 한국의 강남원,
2위는 필리핀의 게이슬러
(왼쪽), 3위는 이란과
태국.

▶태권도 첫날 경기에서
첫 금메달을 따낸
박희강의 얼굴엔
기쁨이 넘쳐흐른다.



우리 선수의 승리의 득점을 올리자
세관관의 감찰요 로저가 기뻐하고 있다.

핀급

심판의 공정성 확보에 힘쓴
이승완 부회장

이승완 상임부회장은 대회 2일째 여자라이트급 결승에서 이선희가 타이페이의 수치링에게 억울한 판정패를 당하자 판정불복소청을 진두지휘하고 아시아태권도 연맹과 소청 위원회에 강력히 항의했다.

『누가 보더라도 이긴 것이 뻔한 이선희에게 판정패를 매긴 불공정한 심판들의 존재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태권도가 영구종목으로서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에도 방해가 된다.』는 이승완 상임부회장의 논리정연한 주장은 남은 이틀동안의 경기에서 심판의 공정성이 확보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경기필름을 살펴본 뒤 이선희의 판정패가 부당하다는 것을 확인한 WTF(세계태권도연맹)는 한 때 판정반복과 불공정판정에 관여했던 심판들의 영구제명까지 검토했었다.





밴텀급

▶여자 밴텀급 이지은은 결승에서 '98 아시안선수권대회 준우승자인 태국의 수공동노엔(왼쪽)을 5-4로 이기고 금메달을 따냈다.

▶핀급의 정정은 베트남의 구옌을 1-0으로 이기고 금메달을 독에 걸었다.



핀급



웰터급

▲결승에서 오르단의 쿠티쿠트 알라를 꺾고 장상을 차지한 여자 웰터급 조항미의 김격스러운 얼굴.

▶여자 미들급의 이희영(홍)은 중국의 헤루밍과 승부를 가릴 수 없는 치열한 접전을 펼친 끝에 2-20에 무세승을 거두었다.



미들급



라이트급

아쉬운 은메달

세계연맹의 이듬해 사무총장이 라이트급 준우승을 차지한 이선희에게 시상하고 있다. 뒤는 태만의 슈 친린이 차지했다.



헤비급

여자 헤비급 정명숙(오른쪽)은 결승에서 말레이시아 리원유에게 3-1로 판정승을 거두었다.

◀한국이 출전하지 않은 플라이급 금메달은 태만의 탕 후이웬에게 돌아갔다. 2위는 태국, 3위 인도네시아, 중국이 차지했다.



피로로 쓰러졌던
이봉 아시아연맹 차장

태권도를 처음 치러서인지 방콕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의 경기운영은 매우 어설피 첫날 경기는 예정시간보다 훨씬 늦게 열렸고 판정불복이 일어날 때마다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를 주관했던 아시아태권도연맹은 골머리를 앓았다.

어수선한 속에서도 아시아태권도연맹의 이봉 사무차장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사태를 수습하느라 무진 애를 썼다.

대회기간 중 제대로 식사도 못한 이봉 사무차장은 대회가 끝나자 다음날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서 링거주사를 맞기까지 했다.

『조직위원회가 리허설도 치르지 않고 전광판도 정규규격대로 만들지 않는 등 여러가지로 소홀했던 점이 대회운영에 반영되고 말았다. 이 문제점을 앞으로 아시안게임에서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고 이봉 사무차장은 말하고 있다.



▲한국은 12세급에 출전
금메달 11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 메달을 목에 건
한국선수들의 환호하는 모습.



▶빛나는 성적을 거둔 대표 선수들이
그동안 수고해준 최정도 감독을
행가래치며 기쁨과 감사를
나타내고 있다.

타권도경기장에서 성원을 보내고 있는
한국교포와 고국에서 날아온 응원단들





▲이승환 삼임부회장을 중심으로
노우종 전무이사(오른쪽), 김무천 운영부장(왼쪽)이
좋은 성적을 올리며 중주국의 기량을
과시한 대표팀과 기념촬영을 했다.



◀이승환 삼임부회장과 노우종 전무이사가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축하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인기 최고의 홍일점 방경애 심판

태국에는 출라롱콩대학과 타마사트대학이라는 두 명문대학이 있다. 이 타마사트대학 제 7체육관에서 태권도경기가 치러졌고 자원봉사자들은 타마사트대 학생들이었다.

이 자원봉사자들에게 가장 인기있던 인물이 2명의 국제심판 가운데 유일한 여성인 한국의 방경애(28) 심판. 남성들 틈에 끼어 절도있는 동작으로 당당하게 심판보는 모습이 멋있다는 것이다.

소속선수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 방콕에 왔던 임신자 감독(인천시청)은 「방경애는 지난해 홍콩세계선수권대회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심판으로 기용된 것 같다. 여성은 타고 나면서 섬세한 데다 부정을 싫어함으로 심판으로서 앞으로도 많은 여성들이 기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장 **김운용**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상임부회장 **이승완**씨, 전무이사 **노우종**씨



김운용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이승완 상임부회장



▲노우종 전무이사

지난 11월 3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19대 회장으로 추대된 김운용 회장과 함께 오는 2000년 12월말까지 대한태권도협회를 이끌어가게 될 신임집행부가 사회 각계인사들로 구성되었다.

김운용 회장은 태권도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위임한 바대로 12월 5일 신집행부(이사회)의 구성을 결정, 발표했다.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는 모두 20명으로 김운용 회장을 비롯해 10명이 새로운 인사로 보강되고 이승완 상임부회장을 비롯한 10명이 유입되었다.

이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태권도계 인사를 비롯해 체육계, 정치계, 법조계, 경제계, 학계, 언론계 인사 등 사회 각계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신임 상임부회장에는 태권도 원로로 부회장이었던 이승완씨(태권도신문사 회장)가 승격 선임되었으며 부회장에는 태권도계 원로인 김순배씨(국기원 자문위원)와 국회의원 황학수(국민회의)씨가 유입되었고, 전무이사에는 노우종씨가 유입되었다.

한편 이번 이사회에서는 최재승 국회의원(국민회의)과 조정원 경희대학교 총장이 고문으로 위촉되었다.

대한태권도협회 이사명단

직 위	성명	현 직	비고	직 위	성명	현 직	비고
고 문	최재승	국회의원	신	이 사	채정석	법무부 검찰국 4과장	유
	조정원	경희대학교 총장	신		임춘길	서울시협회 부회장	신
회 장	김운용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신		김용래	대한체육회 고문	신
상임부회장	이승완	태권도신문사 회장	유		김성태	조일산업 회장	신
	김순배	국기원 자문위원	유		강석호	삼일그룹 부회장	신
부 회 장	황학수	국회의원	유		박보희	한국문화재단 총재	신
	노우종	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	유		정종택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신
이 사	김영태	세계태권도연맹 자문위원	유		이상철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신
	김철오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차장	유		정재규	대통령경호실 특보	신
	황춘성	대한태권도협회 기심회 의장	유		노기창	일간스포츠 체육부장	신
	박충일	신흥인쇄(주) 사장	유	감 사	조영기	전남협회 부회장	
	이장원	국기원 총무이사	유		홍승해	청운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대통령 경호실 특별보좌관은 태권도 8단의 정재규씨



'88 서울 올림픽 1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을 방문한 사마란치 IOC위원장과 김웅 회장이 지난 9월 30일 청와대로 김대중 대통령을 예방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재규 대통령 경호실 특별보좌관(왼쪽끝)이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다. 태권도 8단의 고단자인 정재규 보좌관은 전 미국태권도연맹 콜로라도주 태권도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대한태권도협회 이사, 대한올림픽위원회 명예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대한태권도협회 인터넷홈페이지

WWW.KOREATAEKWONDO.ORG

인터넷 전문지 BEST WEB으로 선정

대한태권도협회 인터넷 홈페이지가 인터넷 전문지인 월간 인터넷 12월호에서 레크레이션과 스포츠 부문 Best Web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월간 인터넷의 Best Web의 선정은 Yahoo, 동아일보 마이더스, PC LINE의 추천 사이트에 이어 네번째로 타경기단체나 스포츠 관련 홈페이지 중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 5회 세계대학선수권대회

98. 11. 24 ~ 27

멕시코 코리마 만자날로



세계 각국의 대학생들이 태권도경기를 통해 기량을 펼치며 친선을 다진 제 5회 세계대학 태권도선수권대회가 지난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멕시코 만자날로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은 모두 금 10, 은 1, 동 1개를 따내며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대만이 2위, 프랑스가 3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남자는 7체급을 석권하며宗主국의 위용을 떨친 반면 여자부는 대만에 밀리며 2위를 차지해 충격을 안겨주었다.

한국대학생들 여자부는 대만



좋은 성적을 거둔 남부 포항스타프의 일원에 마쓰가 남친다. 왼쪽부터 강문섭 코치, 김유규 감독, 이경호 도쳐, 조근중 감독



“잘했다”

금메달 10개를 따내며 종합우승을 차지한 한국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페더급과 라이트급 우승자인 노현구(한체대·왼쪽)와 이준희(울인대)의 기뻐하는 모습.

제 5회 세계대학선수권대회



영광의 순간

▶남자 핀급 시상식에서 1위를 차지한 민병석(오른쪽에서 두번째)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입상자들과 함께 손을 높이 들어보이고 있다.

▼동료의 경기를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대표선수들.

태권도기량 최고 실력이 한수 위

“파이팅”

▼멕시코로 출발하기 전
필승을 다짐하는
한국대표선수단의 모습.



패기와 강인한 10회 연속

98. 11. 16 ~ 23
미국 텍사스 포트후드

각국의 군인들이 태권도경기를 통해 우호 증진과 세계의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 10회 세계군인태권도선수권대회가 지난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미국 텍사스 포트후드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은 금 5개, 동 1개로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10회 연속 우승의 쾌거를 이룩했고 독일이 준우승, 미국이 3위를 차지했다.



핀급 우승의 김홍일

▲핀급 우승을 차지한 김홍일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자랑스럽게 손을 높이 들어보고 있다.

▶한국대표팀의 김남홍 단장(국방부 OSM담당 중령)이 종합우승컵을 수상하며 축하의 박수를 받고 있다.



미들급 우승의 황동환

◀미들급 우승을 차지한 황동환.
2위는 캐나다, 3위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그리스가 차지했다.

정신의 한국 군인

종합우승 차지

고대휴, 최우수선수상 수상

▶ 밴텀급 결승에서 독일대표에 2-1 판정승을 거둔 고대휴(홍)에게 승리의 판정이 내려지고 있다.



작전을 지시하는
황영갑 감독

◀ 황영갑 감독이 밴텀급에 출전한 고대휴에게 작전을 지시하고 있다.

플라이급 우승의 고동완

▶ 플라이급 결승에서 패기와 고난도의 기술을 발휘하며 독일대표를 4-1로 꺾은 고동완(청)에게 승리가 선언되고 있다.

